

광복70주년기념사업 백서

광복 70년

광복 70년
기념사업 백서



광복70주년기념사업백서

광복70년
끝까지 약속한소리

2015년 수원 3·1운동을 기리면서

3월의 노래

고 은 지음

우리의 3월이다

1919년 3월 그 이래

1백년의 세월

우리는 비로소 우리였다

그날이래

우리는 기어이 되찾은 우리였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너도 나도

대한독립만세

산천초목도

대한독립만세

그날의 함성 없이

그날 이래의 지칠 줄 모르는

우렁찬 함성 없이

고난 없이

고난 속

불타는 의지 없이

어찌 내 조상의 후예인가

파고다공원에서

대구장터

광주장터

마산장터

대처에서 두메산골에서

예배당에서

학교에서

저 제주도 절간에서

3천리 방방곡곡

고종 인산(因山) 눈물바다 떨치고

나와

그날 이래의 함성 없이

어찌 내 조국인가

그날의 함성 없이

어찌 내 고장 수원인가

2백년 창엽의 정조 화성

어찌 그 영광의 도시 수원인가

방화수류정 밑에서

바람찬 서장대에서

그 아래 연무대에서

여민각 앞

종로거리에서

기와집 역전에서

서호 별관에서

장날이면 장터에서

좌판 잡고

가게 닫고 쏟아져 나와

오호라 스무살 기생 김향화 들도

병원 앞 거리에서

빼앗긴 나라 되찾는 만세 불렀다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

총칼 앞에서

피범벅으로 외쳤다

쓰러지며

잡혀가며 외쳤다

이로써 나는 대한사람이었다

이로써 나는 수원사람이었다

이로써

우리는 어제의 우리였고

오늘의 우리

내일의 우리이리라

이로써 수원은 영원한 수원이리라

2015년 3월

우리는 다시 그날의 함성을

가슴에 담는다

우리는 다시 그날의 일치를

우리의 시간 속에 채운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자신에게 맹세한다

만드시

만드시

이루고야 말 하나의 세상을

달려오는

저 환희의 세상을

2015년에 맹세한다

여 백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은 시민 여러분의 사업이었습니다

2015년 을미년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나 광복의 기쁨을 누린지 7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수원시는 광복70주년을 맞아 국권회복의 기쁨을 온 시민과 함께 경축하고 우리지역의 자랑스러운 독립만세운동사와 독립 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널리 알려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주위에 만연한 갈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기틀을 다짐으로써 희망찬 수원의 미래를 준비해 가고자 했습니다.

마침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광복70주년을 뜻 깊게 맞이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 수원시와 함께 기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와 시민사회는 광복70주년 기념행사가 '시민참여형'축제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1월부터 시민사회가 주축이 된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15년 2월 12일 수원시의회에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마침내 2월 26일 추진위원회를 발족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광복70주년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학생, 종교단체, 시민사회와 공직자 등 각계각층, 각 부문과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 7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기할 것은 12명의 공직자를 제외한 58명이 민간인사로 채워진 점입니다. 이는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이 시와 시민사회가 긴밀한 협조 속에 시민주도로 추진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광복 70년, 평화·인권·통일'이라는 주제 아래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시민참여, 시민통합형'사업들은 물론,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거울로 삼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형'사업들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주요 결과가 이 백서에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광복7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의 참여와 통합, 그리고 미래에 대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진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은 그 소임을 다했다고 자평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광복70년의 또 다른 이름이 '분단 70년'이라고 합니다. 70년의 세월은 한반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짙은 철조망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제 철조망을 걷어내고 번영된 미래를 위해 나아

가야 할 때입니다. 통일이 이루어 질 때 진정한 광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래가 없는 눈부신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어 최하위 빈곤국가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이제 3만 달러를 앞두고 있으며, 세계인들은 우리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국가로 평가하며 부러움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물질 만능주의와 인간성 파괴, 역사인식의 부재와 혼재, 세대·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은 우리가 해소해야하는 과제입니다. 수원시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25만 수원시민과 함께 역사를 통해 지켜내야 할 정신과 수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사명과 광복70주년을 기리는 지향점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한 해로 이끌어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시민여러분의 열띤 참여 속에 펼쳐진 여러 기념사업의 과정을 되돌아보며 저는 수원사람으로서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시민여러분 또한 그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은 시민여러분의 사업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참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성공을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무엇보다 수원시의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은 시대적 갈등과 고민을 풀어내고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지역적 노력의 모범사례로 평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의 이런 모습이 도미노 현상처럼 주변으로, 나아가 국가적 차원까지 퍼져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백서를 통해 1945년에서 2015년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근현대사 속에 여전히 숨 쉬고 있는 광복의 기쁨과 함성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16년 2월

광복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 수원시장

염 태 영



2015년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국 모두 광복, 승전, 종전 등으로 1945년 8월의 역사를 기념하며, 국내외적으로 그 의미를 새기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동아시아 각국의 국민들이 일본제국주의의 압제와 대동아전쟁의 고통, 그리고 전후 70년의 세월을 회고하는 것은 각 공동체 나름으로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작업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70년 전에 맞이한 광복의 벅찬 환희가 곧 민족 분단으로 이어졌던 아픈 기억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우리가 이룩한 역사적 위업을 되새기면서, 한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광복70주년 기념 사업을 폭넓게 전개한 바 있습니다.

수원시는 이 같은 광복70주년의 의미를 충실하게 새기고자 2014년 하반기부터 시민사회, 시의회, 시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수원시 차원의 광복70주년사업추진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수원시는 광복70주년을 정조대왕의 개혁정신이 깃든 근대 계획도시 수원의 정체성을 근현대사 속에서 풍부하게 확인하고, 변화하는 아시아 속의

더 큰 수원을 온 시민이 함께 꿈꾸는 계기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기획과 추진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극대화하고, 일회성 기념 행사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세대와 계층이 주도하는 사업이 일 년 내내 이어지도록 해야 하며, 수원의 과거와 미래를 성찰하는 학술대회와 대규모 시민합창과 결합된 총체극 등으로 사회통합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기념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이 여러 분야의 책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수차례의 기획모임을 통해 사업의 목표, 기초와 주요사업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소요예산을 의결하였으며, 시 기획조정실은 조례에 근거해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 70명으로 수원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업계획을 확정함으로써 70여개에 달하는 다양한 사업이 '평화, 인권, 통일'이라는 주제 하에 연중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주제는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불안한 평화'속의 남북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시대적 가치요, 나아가야

할 뜻대로 생각되어 채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 한 번 수원이라는 우리고장의 독특한 역사적 위상과 가파른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근대화강과 국권수호,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자랑스런 선조들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지닌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치역량의 뿌리가 바로 이들의 삶과 정신에 닿아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월에 있었던 '수원, 그 날의 함성'과 8월의 '7000인 시민대합창' 등 대표적인 행사에서 보여주었던 감동적인 시민참여와 문화적 구성력은 우리 스스로도 놀라게 하는 것이었으며, 다양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화합된 모습에서 수원의 미래를 향한 열정과 힘을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국가적으로 기념하면서 국가공동체가 지향할 바를 늘 새롭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의 의미가 고위직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기념식에 국한되고, 대다수 국민들은 쉬는 날로 치부하는 등 대중적 수준에서 기념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원에서 추진되었던 기념사업은 바로 기념의 취지를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다양하게 실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시민참여시정, 거버넌스행정을 표방하며 지방자치 역량의 발전을 추구해 온 염태영 시장의 시정철학과 수원의 역사적 전통이 어우러져 민선시장 선출 20년, 곧 성년을 맞이한 '수원의 지방자치'가 드러낸 수준과 지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1년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참여해 주신 시민들과 보이지 않게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업의 시종을 있는 그대로 담은 이 백서를 통해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 이룩한 성과, 그리고 미처 채우지 못한 부족한 점들이 폭넓게 공유되어 이후 보다 나은 수원을 향한 모두의 노력에 참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 2월

광복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황 인 성

목차

주제시	_002
발간사	_004
인사말	_006
프롤로그	_010

1부 평화·인권·통일을 외치다

1장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표	_026
2장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_032
3장 기념사업 주요내용 및 경과	_038
인터뷰 광복70주년기념사업에 동참한 소감을 말한다	_058

2부 광복70년, 수원의 축제가 되다

1장 수원, 그날의 함성	_066
1절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강연 수원지역 여성 민족운동가 나혜석, 김향화, 이선경을 만나다	_074
2절 3·1운동 재현 퍼포먼스 '수원, 그날의 함성'을 외치다	_082
3절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전망」 역사를 통해 오늘을 질문하며, 내일을 열다	_088
인터뷰 광복70주년기념사업에 동참한 소감을 말한다	_088
2장 환희의 대합창, 수원을 울리다	
1절 7000인 시민대합창 7천개의 목소리가 8월 여름밤을 수놓던 날	_096
2절 7000인 시민대합창 기념조형물 제작 7000인의 목소리를 역사에 새기다.	_110
인터뷰 광복70주년기념사업에 동참한 소감을 말한다	_116

3장 또다른 역사, 수원시민이 만들어가다	
1절 시민공모사업 : 8개의 발자국	_124
2절 시민단체자율사업 : 수원의 독립운동가 임면수 선생을 추모하다	_132
인터뷰 광복70주년기념사업에 동참한 소감을 말한다	_143

4장 수원시가 독립70년을 기억하던 순간들	
· 수원시 단위사업	_150

3부 독립의 숭고한 녀을 기리다

1장 광복70년, 우리는 기억한다	
· 수원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_182
· 수원에서 만난 생존 독립유공자	_194
2장 광복70년, 그래도 살아가다	
· 독립운동가 후손의 삶	_204
3장 광복70년, 역사의 흔적	
· 수원의 독립운동과 사적지	_228
4장 광복70년, 미래를 향하여	
· 광복70년 수원의 변화	_246
인터뷰 광복70주년기념사업에 동참한 소감을 말한다	_262

부록	
수원의 항일독립운동가	_266
수원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명단	_272
수원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_274
에필로그	_278

과거의 시간을 기억하는 것, 미래를 향한 소망

2015년은 광복을 맞은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분단이 된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해방의 기쁨과 민족의 아픔을 동시에 담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아픈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담긴 탓입니다.

과거의 교훈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하도록 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찾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故 강덕경 (姜德景)

수원, 광복70년 기념사업을 향한 출발

수원과 수원시민은
2015년을 특별한 시간으로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수원에서 광복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황인성 교수와 제2부시장의 대화로 시작된
2014년 가을의 작은 움직임은
2015년 수원의 거대한 역사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움직임이
수원시와 수원시민 모두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일의 출발은
그렇게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지지해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광복70주년,
평화·인권·통일을 향하다



1945년 8월 15일,
그날은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날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평화'가 돌아오고
무너진 '인권'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대적 과제는 '통일'입니다.
수원시와 수원시민은
시대가 남긴 교훈과 과제인 '평화·인권·통일'을
가슴에 새기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시민과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70명의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광복70주년을 축제의 시간으로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



국민 스스로 참여하는 축제의 시간들

수원시민들은 소중한 광복70년을
진정한 축제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7000인 시민대합창'은 만 명이 넘는 수원시민의 목소리로
여름 밤하늘을 가득 채웠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대한 독립'을 100년 가까이 지난
오늘에야 진정한 기쁨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수원시와 시민들, 자신이 만들고 움직인 시간들을 통해
역사를 현실에서 느끼고
간절함으로 미래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강물의 흐름 속에 가려졌다가
나중에는 발견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은
역사라는 커다란 강물이 휩쓸었던 그 자리에서
수원의 가치를 다시 찾아내었습니다.

필동 임면수 선생의 사역을 재조명했고
수원의 여성 독립 운동가들을 재발견하였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가장 치열하고 강력하게 지속되었던 곳이 수원이라는 사실은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정신적 문화유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과 수원시의
협동이 만들어낸
커다란 힘



의식의 움직임은 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모양으로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것은 지도자의 몫입니다.

시민들의 움직임을 담는 그릇이 되어준 것은
참여시정의 철학과 의지였습니다.

2015년도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을 함께 이루어 냈습니다.
수원시민은 움직였고, 수원시는 길이 되어주었습니다.

시민과 수원시의 협동이
오늘의 수원을 있게 했고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었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난 작은 움직임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향하게 했듯이,

오늘의 수원은 흠어진 가치들을 모아
커다란 힘을 만들어 냈습니다.



100년을 향해!



수원시의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을 국가가 아닌 기초단체가 해냈습니다.
이것은 수원시가 단독으로 한 일이 아니라,
수원 시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같이 움직인 결과입니다.
이 길을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걸어온 것입니다.

2015년 1월1일

수원의 생존독립운동지사가 함께 참여한 제야 타종을 시작으로

2015년 12월 31일

수원관문에 대형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백서에 담는 기록이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마무리입니다.

2019년은 3.1운동이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독립을 외치던 그날은 대한민국의 선포를 외치던 날입니다.

그날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때도 어김없이

우리 수원이 보여주었던 미래의 희망을

맘껏 펼치길 바랍니다!



1부

영화 비결





異之

所知

1장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표

추진배경

2015 년은 광복 70 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일 뿐 아니라 을사늑약 110 년, 한·일 국교정상화 50 년, 그리고 6·15 남북공동선언 15 주년 등 우리 민족사의 굵직한 주요 사건들을 되새겨 볼 수 있는 해였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광복은 곧 독립이요 해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에게 당시의 역사적 의미가 계승되지 않으면 광복은 우리에게 그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중 하나로 간주되기 쉽다.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수원시는 이를 위해 광복70주년을 모든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생각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구한말 이후 우리의 근현대사는 한마디로 '격동의 시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제의 국권 침탈, 수많은 독립투사와 온 국민의 열망으로 이뤄낸 광복, 외세에 의한 남북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 그리고 세계사에서 유례 없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온 힘을 다해 이뤄낸 민주화. 이 시기를 지나오는 과정 속에는 우리 수원지역의 동학농민운동, 3·1 만세운동, 근대화 운동, 경제발전, 평화와 인권 등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수많은 사실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그림자가 있듯,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는 우리사회에 수없이 많은 갈등과 반목을 초래했고,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수원시는 민선6기가 시작된 2014년 하반기부터 광복70주년을 맞는 2015년을 우리의 고질병이 되어버린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고 그동안 수없이 외쳐왔으나 이뤄내지 못한 사회통합을 이끌어내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단초로 삼고자했다. 또한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화해와 화합을 통해 통합을 이끌어 내고 시민모두가 희망찬 수원의 미래를 지

향해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보고자 했다.

수원에서 할 수 있고 성공한다면 마치 유행처럼 주변의 도시로 번져나갈 것이고
이윽고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며 그것이 국가의 정체성을 찾고 사회통합의 밑거
름이 되어 온 국민이 미래를 지향해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져보고자 했다.
그 첫걸음은 수원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선대의 발자취를
탐구하는 일, 그리고 '후대인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즉 사명에 대
한 고민이었다. 그러던 중 때마침 수원시민사회로부터의 반가운 제안이 있었다.
우리지역의 영광과 시련의 역사를 돌아보며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성숙된 시
민의식 속에 통합을 이루어 빛나는 수원의 미래를 지향해 가기 위해 광복70주
년 기념사업을 범시민적 차원에서 추진하여 새로운 출발을 도모해 보자는 것
이었다.

수원시도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고 민선5기 이후 거버넌스와 시민참여를 시
정의 근간으로 삼아온 터라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힘을 모을 수 있는 기념사업
추진에 적극 공감하고 환영하였다. 수원시는 즉시 민·학·관이 함께 참여하는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2015년을 우리가 기억하
고 찾아내야 할 수원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시민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해 우리 안의 자부심을 일깨우기 위한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함은 물론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들이 가르쳐 주는 이정
표를 찾아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개척해 갈 수 있는 의미 있는 해로 만들기 위해
'평화·인권·통일'을 주제로 기념사업을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함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광복군으로 활동하셨고 현재 수원에 거주하시는 두 분의
생존 지사(이영수 웅, 오희옥 여사)를 모시고 70주년이 되는 2015년 새해를
시민들과 함께 맞이하여 그 상징성을 더했고, 광복회원과 그 후손들을 초청해

수원시가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기념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과 동의를 구했다. 이러한 진지한 논의와 다양한 활동 끝에 2015년 2월 12일, 「수원시광복7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수원시의회 백종현 의원 등 12명의 의원공동발의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수원시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시민사회 33인, 학계대표 9인, 학생 4인, 종교대표 4인, 언론대표 1인, 경제계 대표 1인, 탈북인 대표 1인, 다문화 대표 2인, 수원시의원 3인, 수원시 및 유관기관 공직자 12인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한, 이영수 옹과 오희옥 여사 등 생존지사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안점순 할머니를 비롯해 고은 시인, 김동연 아주대학교 총장, 채수일 한신대학교 총장, 염상덕 수원문화원장, 안희선 수원종로교회 목사님 등 시민들로부터 추앙받는 지역의 원로 25분을 고문으로 모셨다.

2015년 1월 2일 신년사에서 '광복70주년을 소통과 참여를 통해 미래세대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자'고 역설한 바 있던 염태영 수원시장은 위촉식에서 '세대와 계층 간 갈등을 직시하면서 화해와 공동번영을 위한 성숙한 시민사회를 지향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걸맞는 사업이 이뤄졌으면 한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민간위원들은 이에 공감하고 시와 협력하여 주도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추천에 의해 호선되는 사람과 시장이 공동으로 맡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3개 분과위원회와 실무 및 세부사항 조정을 위한 집행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그리하여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할 공동(민간)위원장으로서 민간위원 중 선출된 황인성 한신대 초빙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가 위촉되었다.

추진목표

2015년 2월에 발족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광복70주년을 맞아 지역정체성을 찾고 시민사회 통합을 위한 의미 있는 기념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2015년 2월 26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과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황인성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에서 시작되는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갈등과 반목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전과 달리 행정주도를 지양하고 민간주도로 전환해 진행하는 만큼 화려함 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과거보다는 미래에 중점을 두어 화해와 공동번영을 위한 성숙한 시민사회를 지향해 갈 것'을 호소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추진 기조를 '시민참여, 시민통합, 미래지향'으로 선정하고 광복70주년의 시대사적 의의를 감안해 준비위원회에서 정한 '평화·인권·통일'을 기념사업의 3대 주제로 확정하였다.

국권의 상실은 평화와 인권의 상실을 의미하며, 광복과 함께 되찾은 평화와 인권은 또다시 분단과 전쟁으로 산산이 망가졌고,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변형된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내어 잃어버린 평화와 인권을 되찾아야하는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원시만의 힘으로 이와 같은 시대 목표를 구현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전국적 모범사례 제시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단초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선 지역정체성을 찾아 시민들에게 지역적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여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병인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어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 우선 광복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성찰하고 우리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력해야 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고 지속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쌓아온 지역학적 발굴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담을 수 있는 미래지향형 사업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또한, 일제에 의해 아픔을 겪은 국가들과 함께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여 수원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평화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가고자 노력했다.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먼저, 우리지역의 정체성을 찾는 것,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 속에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함께 희망찬 수원의 미래를 지향해 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수원의 노력이 전국으로 불길처럼 퍼져나가 대한민국이 정체성을 찾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세계 선진일류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주길 바랐다. 따라서 지난 세기 우리민족이 걸어온 길을 회고하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치열하게 싸워왔던 우리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알려지지 않은 숨은 영웅들을 시민에게 알려 지역적 자부심을 심어주려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이룩한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기여한 수원의 노력을 알리고자 했다. 이를 통해 100세 어르신부터 예닐곱 살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정겨운 사회기반을 구축하는데 기념사업의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분야별 분과 위원회를 구성해,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취지와 목표에 걸맞는 다양하고 알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민간 추진위원들은 전문분야별로 3개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효율성을 더했으며,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목표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7000인·시민대합창 오케스트라 연주〉

2장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기조

위원회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세대나 계층, 이념 갈등 등의 문제점을 직시하면서 화해와 화합을 통한 사회통합과 이를 통해 공동번영을 지속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기 위해서 시민대화합과 성숙한 시민사회를 지향해 갈 수 있는 시민의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했고 많은 검토와 논의 끝에 기념사업의 방향을 설정했다.

첫째, 관주도의 행사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시민참여형'사업 위주로 추진한다.

둘째, 광복70주년의 의미를 시민 모두가 함께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민화합형'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과거와 현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형'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렇게 '시민참여, 시민화합, 미래지향'을 기념사업의 구체적 추진기조로 삼아 통합 지향적이며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기조 위에 위원회는 수원시 관계부서, 수원시의회, 관련 유관기관, 종교단체, 학생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조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전시성 행사가 아닌 미래 지향적이면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

추진체제

구성

수원시는 광복70주년이 되는 2015년을 맞이하여 평화·인권·통일에 관한 시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광복7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를 2015년 2월 12일 공포하고 기념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광복70주년의 상징성을 담아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추천받아 공동위원장인 수원시장이 위촉했다.

70명 추진위원을 살펴보면 학계·종교계·경제계·언론계·문화계 등의 사회지도층 인사와 애국지사 후손, 역사학자를 비롯하여 사회에 온정을 심거나 의로운 용기를 보여주면서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 시민단체 대표까지 다양했다. 또한 청년 학생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미래를 지향해 가고자 했다.

여야를 막론한 시의회의원, 노·장년은 물론 탈북인·다문화 대표와 청년층까지 포괄하는 등 각계각층의 대표성 있는 인사를 위촉하려고 노력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종교계 지도자와 지역의 원로 등 시민의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 25명을 위원회 고문으로 모시고 지혜와 식견을 듣기도 했다.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 참여한 수원시 공직자로는 수원시장(공동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여성국장, 문화교육국장, 박물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고 문화예술과 이동근 학예연구사가 행정내부의 지역학 전문가로 함께 참여했다.

2015년 2월 26일 제1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중지를 모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당시 '대한민국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했던 황인성 한신대학교 초빙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애국지사 후손인

임남규 광복회 수원시지회장과 수원지역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던 매향중학교 김혜숙 교장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하였다.

또한 박환 수원대 교수(학술편찬위원회), 강진갑 경기대 교수(문화예술위원회),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시민참여홍보위원회)을 각각 분과위원장으로 선출하여 효율적인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집행위원회를 두도록 한 규정에 따라 실무를 관장할 집행위원회를 두었으며 집행위원장은 황인성 위원장을 선출하여 기념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고 각 분과위원장과 간사, 대표성을 띤 위원 20명이 참여하여 분과위원회 심의사항과 위원회 운영방향·기념사업 등을 심의·검토하는 등 의견 조정업무를 수행하였다.

2015년 2월 26일 발족 당시의 민간위원과 고문, 유관기관 및 수원시 당연직 참여 공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염태영(수원시장) 황인성(한신대 초빙교수)

윤범모 이광열 이귀선 이기호 이주영 이화자
조돈빈 황 옥 수산스님

부 위원 장

임남규(광복회 수원시지회) 김혜숙(매향중학교 교장)

시민참여홍보위원회

고 문

이영수 오희옥 안점순 유종하 김진우 고 은
김기언 김동연 채수일 홍기현 이금자 우봉재
김훈동 염상덕 이태준 이종화 이병학 김형식
안희선 이재식 유철수 박순영 한규흠 이해련
김기정

장성근(위원장) 박두호 강용한 김봉식 김순화
김장일 박진희 신현옥 심상호 유근중 유용선
윤진석 이강현 이성호 이영길 이춘식 최극렬
최성국 최종현 홍지호

유관기관 및 수원시 참여 공직자

이재익(수원보훈지청장)
최경숙(수원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홍성욱(삼일상업고등학교 교장)
김영규(수원시 기획조정실장)
이필근(수원시 일자리경제국장)
배민한(수원시 복지여성국장)
홍사준(수원시 문화교육국장)
박래현(수원시 박물관사업소장)
한상율(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
이동근(수원시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

위 원

학술편찬위원회

박 환(위원장) 김준혁 김재기 백종현 송명숙
신의섭 오동석 오영숙 우종남 유문중 유준숙
정진숙 조영연 최동호 최승웅 한준택 황용원

문화예술위원회

강진갑(위원장) 이석기 구기태 권화옥 김인경
김홍규 서 준 송병수 송종완 안도현 안명애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고 문

학술편찬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시민참여홍보위원회

집행위원회

운영

2015년 2월 26일 제1차 전체회의는 위원회의 임원을 선출하고 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추진위원들이 주체가 되어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되 민간위주로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또한 지역의 자부심인 정체성을 찾고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되 미래를 지향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체회의에 이어 당일에 가진 분과별 회의에서는 분과 주제에 부합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학술편찬위원회에서는 학술회의, 강연회, 토론회 등 학술사업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의미 있는 사건과 인물을 토대로 광복70주년을 상징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시민참여홍보위원회에서도 시민의 정체성 확립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찾고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제1차 위원회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별 토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기구인 집행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안된 다양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 기조에 입각한 종합적인 검토·심의와 조정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했다. 그리고 2015년 5월 28일 집행위원회에서 심의한 광복70주년 기념사업(안)을 확정하기 위한 제2차 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결과 70개 사업이 광복70주년 기념사업으로 선정되어 본격 추진이 결정되었다. 특히, 자율적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 화합과 사회통합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7000인 시민대합창'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을 아우르는 상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도 집행위원회가 2015년 한 해 동안 15회 개최되었다. 집행위원회에서는 광복70주년의 주제어와 3·1 독립만세 운동 재현 및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의 활동사항 발굴, 기념사업 시민제

안 공모, 학술회의 및 문화예술행사 기획,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시민참여 및 홍보대책 등 기념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위원회 고문으로 참여한 사회원로인사를 초청해 고견을 듣고 사업추진에 반영하고자 했다.

위원회는 2015년 8월 6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광복70주년이 되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시민화합을 위해 개최되는 '7000인 시민대합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수원시 주요부서장과 분과위원회별 준비 및 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노고격려와 함께 많은 시민이 모이는 행사인 만큼 안전사고 및 메르스 여파로 인한 감염병 예방 등 참여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7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로 개최된 '7000인 시민대합창'은 아무런 대가 없이 스스로 도시락까지 준비해오며 자발적으로 함께한 1만 500여명이 넘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2015년 9월 11일 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념하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시민단체인 수원예총에서 기획·제작을 맡아 2015년 12월 10일 '7000인 시민대합창'이 펼쳐진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 참여시민의 이름을 새긴 상징조형물을 설치했다.

또한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추진해 오던 시민공모사업 중 미래를 지향해 가기 위한 행사로 2015년 12월 18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행사인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전망' 포럼을 개최했다. 그리고 광복70주년의 마지막 날인 2015년 12월 31일 수원의 남쪽 관문인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변 곡반정동 썸지공원에 모두의 마음이 오롯이 담긴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며 모든 사업을 마무리 했다.

3장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주요내용 및 경과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은 2015년을 지역정체성 확보를 통한 자부심 고취, 세대와 계층간 화해와 화합의 여건조성 및 미래지향 의식 형성, 도시경쟁력 강화와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3·1절 행사, 광복절 기념행사, 국내외 학술대회, 문화·예술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2015년 2월 26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은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숨은 영웅을 찾아 학생과 시민에게 알려나가고 참여와 소통을 통해 사회통합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미래지향, 비전제시에 역점을 두고 시민참여가 가능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인성 공동위원장은 '평화·인권·통일'을 주제로 학술대회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열기를 평가하고, 이러한 뜻을 모아 기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원시가 동아시아 평화와 대한민국의 번영된 내일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학술편찬위원회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수원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실 고찰을 통해 정체성을 찾고 이를 통해 화해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문화예술위원회는 시민 모두가 함께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며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 및 우리의 역량과 자신감을 발현시켜 수원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사업, 시민참여홍보위원회는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의의를 알리고 학술 및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와 시민공모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근현대사 고찰, 재연 총체극,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전시회, 문화행사, 이벤트 등의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였다.



분과위원회별 사업개관

학술편찬위원회

2015년 2월 26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후 각 분과위원회가 진행되었다.

학술편찬위원회는 준비위원회부터 참여했고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대가로서 전국적으로 명망이 있는 수원대학교 사학과 박환 교수를 분과위원장으로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를 간사로 선임했다.

이어 학술편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주제인 평화·인권·통일을 아우를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근현대사 중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독립운동 관련 사실과 경제발전 및 민주화 과정에서 수원의 역할을 조명하고 일제에 의해 파괴된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그리고 화해와 공동번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를 지향해 가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후 학술편찬위원회는 주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지역의 근현대사를 바탕으로 평화·인권·통일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를 고민했다.

우선 3·1절을 맞아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지역적 자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수원지역의 3·1 만세운동과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찾아 그들의 활동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예컨대 수원지역은 3·1 만세운동의 최대 격전지였고 학생과 종교인, 상인과 농민, 기생에 이르기까지 시민(당시 수원군민) 모두가 참여했으며 당시 삼일학원과 수원종로교회는 우리지역의 비밀결사 및 독립운동가 배출의 산실이었으므로 학생과 종교단체 등 시민과 공동으로 행사를 추진하자는데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1919년 3월의 수원군 지역에서 불길처럼 일어났던 3·1 만세운동 일지, 당시의 신문보도 자료, 우리지역의 독립운동가와 활동사항을 정리하고 신 독립신문을 제작하여 2015년 3월 28일 화성행궁 광장에서 5,000여명이 넘는 시민과 학생이 관람한 '수원 그날의 함성' 공연에서 호외 형태로 나눠주고 수원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3·1만세운동의 의의와 수원의 자랑스러움을 알려 정체성을 함양하고자 했다.

또한, 공연을 2시간 앞두고 수원화성박물관 영상교육실에서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시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온몸으로 부딪혔던 수원지역 여성 민족운동가에 대한 스토리텔링 형식의 학술강연회를 개최하여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과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추어 학술대회를 진행하고자 여러 차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와 함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적 명망이 있는 전문가, 석학 등을 모시고 제안을 받으며 의견을 수렴하여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핵심 주제인 평화·인권·통일을 포괄할 수 있는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라는 대 주제를 선정하고 과거·현재·미래의 3가지 섹션을 구체화 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학술대회보다는 학생 등 젊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기획하면서 과거는 역사학자를 중심으로 수원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현재는 수원이 동아시아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이나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미래는 젊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가기로 했다. 이렇게 준비된 광복절 주간 학술회의는 시민 공감대를 위해 학자중심 보다는 일반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강연회 또는 시민참여 토론회 형태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제암리 학살사건·관동대지진 학살사건·경신참변 등 일본 제국주의 학살만행과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동아시아 평화를 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광복의 의미와 평화·인권·통일의 주제를 연결할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전망'을 대 주제로 확정하고 2015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과거를 훑어보는 장, 현재를 점검하는 장, 미래를 지향하는 장 등 3가지 챕터로 구성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015년 8월 12일 열린 첫째 날 학술대회는 과거를 훑어보는 장으로 '민족운동



사에서 수원의 인권을 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수원시 이동근 학예연구사의 '제암리 학살사건을 통해 본 일제의 폭력성과 식민지 인권', 前 친일진상규명위원회 박철하 전문위원의 '일제의 강제동원과 수원사람들'에 대한 발제를 통해 식민지 수원의 현실과 인권을 바라보았고 이어서 진행된 수원박물관 한동민 학예팀장의 '근대 수원지역의 변화와 교육구국운동', 선문대학교 김경수 교수의 '수원지역 민족운동과 대한성공회 수원교회'를 제목으로 한 발제는 수원의 민족운동과 교육·종교기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다음날 두 번째 학술대회는 '수원에서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날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반도의 통일전략'이란 제목으로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의 기조강연에 이어 수원대학교 박환 교수의 '역사전쟁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제언',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의 '인권을 통해 본 시민자치와 민주주의 발전', 한신대학교 이기호 교수의 '평화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발제를 통해 현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8월 14일 세 번째 학술대회는 '수원에서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제1강연으로 광복군 제3지대원으로 활동하셨던 김우전 지사의 육성증언을 통해 당시의 생생한 광복군 활동사항을 전해들을 수 있었고 우리민족의 번영된 미래를 위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망을 눈물로 호소하며 진한 감동을 전해주었다.

제2강연은 아주대학교 김동연 총장의 인생이야기인 '유쾌한 반란'을 통해 미래 세대인 청년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며 광복절 주간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광복70주년 학술대회는 무엇보다도 시민들과 함께 광복70주년의 참된 의미와 수원시가 지향해야 할 평화·인권·통일에 대한 의미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갔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술대회가 수원르네상스포럼 등 시민사회에서 추진했던 '독립투사 필동 임면수 선생 학술대회', 박물관에서 주관했던 '수원의 독립운동가 발굴 학술대회'등과 연계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시민 모두의 마음속에 나라사랑의 열정과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상승효과를 낼 수 있었다.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장에 강진갑 경기대학교 교수, 간사에 이석기 수원예총 수석부회장을 선임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수원시와 시민사회가 조금 늦은 시점인 2014년 11월부터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하며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위원회 구성과 출범이 2월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어질 3·1절 관련 행사를 준비할 시간이 촉박했다. 다행히 황인성 교수, 박환 교수, 강진갑 교수 등이 참여했던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에서 3·1절 관련 행사의 시기를 1919년 당시 수원군 만세운동의 촉매제가 되었던 김향화 선생 등 수원기생 33명이 지금의 행궁광장 자리인 당시 수원경찰서 앞에서 만세운동을 했던 날인 3월 29일을 가장 의미 있는 날로 결정했고, 행사의 명칭도 가칭 '못다 핀 꽃들의 합성'으로 정하여 당시의 만세운동을 재현하고 수원지역의 학생비밀결사활동과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여성 민족운동가에 대한 활동사항을 조명하고자 총체극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에 문화예술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3·1절 관련행사의 내용정리 및 시민참여 등 현안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총체극의 명칭을 '수원 그날의 합성'으로 정하고 수원지역의 만세운동과 여성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재현하기로 결정했다.

행사일도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하고자 일요일인 3월 29일 보다는 하루 전인 토요일이 좋다고 판단하여 3월 28일로 변경했다. 동시에 동기부여를 통해 학생과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고등학교를 찾아가 행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언론 및 시 홈페이지 등 활용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홍보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매산초등학교, 매향중학교, 매향여고, 삼일상고, 동원고등학교 등에서 221명의 학생과 일반시민 289명 등 총 510명이 공개모집에 참여해 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최된 '수원 그날의 함성'은 1919년 3월에 수원지역에서 불길처럼 일어났던 3·1 만세운동과 알려지지 않은 여성 민족운동가 '수원의 유관순, 이선경', '의로운 기생, 김향화', '신여성 나혜석'의 활동을 재현한 총체극에 이어 고은 시인이 작시한 '3월의 노래'를 낭송했고, 어린이·여성대표·탈북인·다문화 대표의 희망메시지가 행궁광장에 울려 퍼져 5,000여명의 학생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더욱이 '수원 그날의 함성'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많은 시민들은 이제야 우리 고장에서 있었던 만세운동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지역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며 7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이런 행사가 마련되어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기회를 자주 만들어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움을 남겨줄 수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남겨주었다. 이렇게 직접 참여한 학생과 시민들은 즐거움 속에 보람을, 관람했던 학생과 시민들은 자긍심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정체성을 찾는 모습을 보며 시민참여에 대한 희망을 보게 되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정체성을 찾고자 했던 3월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화해와 화합으로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8월 광복절 기념행사를 4월의 시작과 함께 준비해 가기 시작했다.

관객 동원력 있는 연예인을 초청해 공연의 형태로 추진하자는 의견, 고은 시인과 성우들이 참여하는 평화·인권·통일의 시 낭송 행사를 하자는 의견, 광복절이니 815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합창을 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으나, 당시 수원문화재단 홍철욱 축제기획단장이 제안한 '7000인 시민대합창'을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7,000명의 시민이 과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제까지 누구도 해보지 못했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7,000명의 시민이 화음을 맞춰가며 하나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화해와 화합을 통한 사회통합 여건을 조성하자는 지향점에 가장 가까이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7000인 시민대합창’이 결정된 후에는 참여시민 모집방안과 내용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수원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의 42개 아마추어 합창단원 활동을 하고 있는 1,2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초·중·고·대학생,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종교계, 기업, 탈북·다문화 단체 등 온 시민사회를 총망라하여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의미를 설명하고 행사 시간이 저녁식사 시간으로 도시락 또는 간식을 참여자가 직접 준비해 와야 했기 때문에 명확한 동기부여를 통해 자발적으로 합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십 차례에 걸쳐 찾아다니며 설명회를 가졌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5월 중순부터 메르스 사태가 전국을 강타하고 국민들은 대혼란에 빠졌으며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행사 등이 줄줄이 취소되었다. 그 여파로 설명회를 일정기간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메르스 사태는 종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일단 6월 말까지 설명회를 중단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7월이 시작되면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8월 15일까지 남은 시간도 별로 없었지만 차츰 메르스 사태가 진정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광복이후 70년이 흐르면서 국가경제 발전과 함께 의료기술 또한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7월 1일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공모를 시작하여 참여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매일매일 참여 현황을 보여주면 그에 비례하여 신청자 수도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서였다.

꾸준한 설명회 덕분인지 공모시작 당일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산하의 청소년 합창단인 수원유스콰이어합창단원 51명이 참여 신청을 해왔고 점차 메르스 사태가 진정기미를 보이기 시작하며 참여 신청이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100명, 200명, 500명이 넘고 1,000명이 넘어서면서 참여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목표했던 7,000명을 넘겼으며 삼성전자, 기업은행, 수원애경역사(주) 등 지역 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최종 11,444명이 신청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기념행사는 정조대왕께서 위민정신과 개혁을 실현하고자 수원에 화성을 축성하고 그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 회갑연을 위해 화성으로 행차하는 모습으로 시작해 일제치하를 지나 한국전쟁과 분단을 겪으며 세계사에서 유래 없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면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한 오늘날 수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미래를 지향해 갈 수 있도록 영상과 퍼포먼스 그리고 '7000인 시민대합창'으로 꾸며졌다.

2015년 8월 15일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된 '7000인 시민대합창'의 실제 참여인원은 10,5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총 연출은 임형수 용인대학교 교수가 맡았고 수원시립교향악단 김대진 상임지휘자의 지휘와 시립합창단이 시민합창단을 이끌며 진행되었다. 합창곡은 시대를 대표하는 곡으로 '아빠의 청춘, 아침이슬, 아름다운 강산, 우리의 소원'이 불러 졌으며 '애국가'를 마지막 곡으로 하여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7000인 시민대합창'은 연예인 한명 참여 없이 진정한 시민참여를 통해 이루어진 유일한 기념행사였으며 '평화를 노래하고 인권을 외치며 통일을 염원'한 성공적인 행사였다.





시민참여홍보위원회

시민참여홍보위원회는 수원시와 시민사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을 시민에게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 내는 활동과 평화·인권·통일과 관련된 사업들을 시민이 직접 기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분과위원들은 주로 시민사회 활동가와 언론인, 경제인 등이 참여했고 분과위원장으로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간사로 지역 언론인을 대표하여 前 연합뉴스 경기지부장 박두호 왓츠뉴스 대표를 선임했다.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은 자유롭고 진취적인 분위기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분과회의를 통해 이를 취합·수정·보완하고 다음과 같이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첫째, 대중 참여를 이끌어내는 축제마당을 제공할 것. 둘째, 젊은 층의 관심을 이끌어내 참여시킴으로서 '광복'의 의미를 새롭게 느끼게 하고 미래를 지향해 갈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세대와 계층을 잇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 넷째, 기념사업의 주제인 평화·인권·통일의 의미와 화해·화합을 통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시민스스로가 역사적, 미래적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할 것.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분과위원들은 구체적으로 다채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한편 타 분과위원회 및 수원시 부서별 사업 그리고 민간단체 등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을 검토하면서 추진사업의 방향을 잡아나갔다. 그러나 시민참여홍보위원회는 시민공모사업을 제외하면 자체사업보다는 기념사업의 취지를 홍보하고 학술편찬위원회와 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시민참여 및 행사 홍보 등의 지원역할이 주된 임무라는 한계와 시행방식의 적정성, 예산사용의 가능성, 선거법 저촉 등 제한사항이 많고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민간위원들이 제안한 많은 사업들이 제외되는 아쉬움을 겪기도 했다.

분과위원회는 가능한 민간위원들의 제안을 반영하고자 노력하면서 추진위원



회의 집행위원회에서 최종사업을 결정 하였는바, 본 분과의 사업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주요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이 숙의 되었다.

시민참여홍보위원회의 4개 추진방향과 연결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다. 첫째, 대중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주요행사 축제마당을 우리 수원의 정체성이 서려있는 수원화성의 행궁광장과 되도록 많은 시민이 운집할 수 있는 수원 제1야외음악당으로 하자는 것이 민간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며, 집행위원들 사이에서도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던 3·1 만세운동과 독립운동가 활동 재연 총체극 '수원 그날의 함성'행사가 열린 화성행궁 광장과 시민의 화해와 화합의 여건 조성을 위해 광복절 기념행사로 추진된 '7000인 시민대합창'이 열린 수원 제1야외음악당의 행사 당일 하루는 태극기의 물결로 넘쳐났고 퍼포먼스와 전시회 등 다채로운 참여 이벤트에 시민들이 직접 참가함으로써 진정한 축제의 마당이 되었다.

둘째, '광복'의 의미를 새롭게 느끼게 하고 미래를 지향해 갈수 있도록 젊은 층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고 인디밴드 크라잉넛이 리메이크한 독립군가를 활용해 아트컴퍼니 예기 안영화 대표가 춤추는 독립군가 수원시민 플래시몹을 개발하고 우리지역의 중고등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직접 나가 공연을 통해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었다.

또한 3·1절을 기념하여 평화의 메시지 전달캠페인(수원희망교육시민포럼), 전국 철인3종 경기(수원보훈지청), 나라사랑 음악회(수원보훈지청), 문화유적 답사(수원박물관) 등이 실현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20~40대의 젊은 층이 주를 이루는 행사라는 것에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셋째, 세대와 계층을 잇고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시민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빛합창단, 다문화극단 모아, 노숙인극단 노자, 실버극단 청춘극장, 청소년극단 수원 등 세대와 계층을 총망라한 수원지역 예술단체 합동공연이 펼쳐졌고 '수원의 유관순, 이선경 열사'와 그의 언니 이현경 자매를 중심으로 수원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삶을 어린이들이 즐기고 이해하기 쉽게 인형극으로 제작해 공연하는 등 현실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넷째, 기념사업의 주제인 평화·인권·통일의 의미와 화해·화합을 통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시민 스스로가 역사적, 미래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광복70주년 기념행사로 개최된 '7000인 시민대합창'의 시민참여를 기리고 그날의 화음과 하나된 목소리를 통해 조성됐던 화해와 화합의 분위기를 기리고자 행사장소인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했고, 시민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수원 희망교육시민포럼의 '차별을 넘어 아픔을 넘어, 통일의 길로'라는 주제의 이주민/선주민 소통화합 프로젝트, 풍물굿패 삶터가 진행한 '평화통일 염원의 북을 울려라' 등을 적극 지원했다.

또한 2015년 12월 31일 광복70주년의 마지막 날에 사단법인 한국생활국악연합회 주관으로 수원의 남쪽 관문인 곡선동 비상활주로변 소공원에 대형태극기를 게양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광복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수원시민의 진취적인 마음을 담았다.

이렇듯 광복70주년을 맞아 수원시와 시민단체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은 일회성 기념행사가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만한 뜻 깊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으며, 수원시민이 2015년에 찾고자 했던 지역정체성과 이를 기반으로 사회통합의 여건을 조성해 시민 모두가 미래를 지향해 가고자 했던 노력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어 타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그것을 통해 온 국민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화합하며 대한민국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위원회 추진사업

위원회 주요사업으로는 수원화성 행궁광장에서 열린 3·1절 기념 '수원 그날의 함성'과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된 광복70주년 광복절 기념 문화행사 '7000인 시민대합창' 등 매머드급 행사가 많았고, 수원지역의 여성민족운동가 학술강연회,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전망을 위한 학술대회 등 학술행사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실질적인 시민참여와 공감을 위해 '그 날의 감동 스토리 나도 만든다'는 공모명칭으로 추진된 시민공모사업에 14개 시민 및 사회단체가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참신한 내용으로 응모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나 가용예산 부족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8개 사업이 추진되어 광복70주년을 빛내주었다.

위원회는 기념사업의 취지를 대변해 주는 다양한 종류의 17개 사업을 많은 시민의 참여 속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실 있고 감동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유관기관 추진사업

수원보훈지청과 수원교육지원청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정체성을 찾기 위한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를 시민과 학생들에게 알려나가는 사업에 동참 의지를 표명하고 준비위원회에서부터 함께 참여했다.

수원보훈지청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후손과 장애인 그리고 일반인이 함께해 벽을 허물고 화합으로 하나 되는 '나라사랑 전국 철인3종 경기'를 광교 호수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현충일 주간에 매년 추진해왔던 나라사랑 음악회를 메르스 사태로 인해 약 2개월이 연기된 7월 말에 추진하는 등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고자 하는 행사를 추진했다.

수원교육지원청에서도 청소년들이 지역적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미래를 지향해 갈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의 지역정체성을 찾기 위한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특히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는 등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끌었다.

수원시 자체사업

수원시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을 광복7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더하여 특색 있게 추진하고자 했다.

2015년 새해를 맞는 타종행사 및 시무식을 생존 독립지사와 광복회원들이 함께 했고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행사, 문화유적지 방문, 태극기달기 운동 및 무궁화 가로수 길 조성 등 선열의 일을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하는 행사가 그것이다.

특히, 수원광교박물관에서 추진한 위안부 관련 특별순회전시 ‘마르지 않는 소녀의 눈물’과 광복70주년 특별기획전, 생태공원과의 ‘전국무궁화 수원축제’, 권선구에서 추진해 구민과 학생이 함께 참여한 ‘대형 손도장태극기’ 제작 등도 눈에 띄는 행사였다.

이밖에 사회복지과에서 수원보훈지청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평화의 테마거리 조성, 여성정책과의 다문화 한가족 축제, 감사관의 인권센터 개소 및 인권영화 상영회, 팔달구에서 추진한 가족사랑 골든벨 등도 인상 깊은 행사였다.

시민사회 추진사업

시민사회에서도 광복70주년을 맞아 활발한 활동을 전개 했다.

우선 ‘수원의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로서 근대 수원 100년을 대표하는 인물인 임면수 선생의 모범적 삶을 기리고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위원회는 수원과 만주에서 계몽운동·항일운동을 펼친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하는 ‘필동 임면수 선생 학술제’를 개최하고 그 뜻을 기리고자 시민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학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복70주년 기념 ‘광복의 길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를 추진하였다.

특히 위원회의 취지와 활동에 공감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운동으로 모아진 후원금으로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동상을 건립하는 등 기념비적인 활동을 펼쳤다.

또한 시민단체인 수원희망교육포럼에서도 초·중등학생들이 참여한 태권도 플래시몹을 활용해 3·1절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평화·인권·통일을 주제로 테마가 있는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는 등 주목을 받았으며 그 외 시민공모사업을 통한 8개 시민단체의 활동도 인상 깊었다.



7대 주요사업

-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민간주도의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정책기획과)
-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참여해 기념사업의 취지와 목표에 맞는 사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정책기획과)
- 수원 그날의 함성
1919년 3월, 수원지역에서 일어났던 만세운동을 재현하고 우리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사항을 알려 지역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심어주고자 추진하였으며 5,000여명이 넘는 학생과 시민이 관람하고 감동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등 성공적인 개최가 되었다.(위원회/정책기획과)
- 시민공모사업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 광복의 의미를 새롭게 느끼게 하고 기념사업의 주제인 평화·인권·통일의 의미와 화해·화합을 통해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시민공모사업을 추진하여 14건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8건을 선정 후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 유도과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였다.(위원회/수원문화재단)
- 수원의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 기념사업 전개
수원에서 태어나서 1908년 수원의 국채보상운동 주도와 1911년 만주 서간도의 신흥무관학교 분교인 양성중학교 교장으로 독립군을 양성한 필동 임면수 선생의 업적을 기림은 물론, 지역의 통합과 정체성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필동 임면수 선생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 광복70주년 기념 토론회
시민사회단체와 석학 및 전문가를 모셔 수원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실진단과 미래지향적 비전제시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기념사업 전체를 관통하는 담론을 구성하였다.(위원회/정책기획과)
- 7000인 시민대합창 및 상징조형물 설치
광복70주년을 맞아 각계각층의 수원시민 7천명이 모여 평화·인권·통일을 염원하는 대합창을 통해 화합과 사회통합을 이루고 미래70년을 향한 수원시민의 의지를 전국 방방곡곡으로 전달하였으며, 수원 시민의 자발적 참여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위원회/정책기획과)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은 준비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고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3월 28일 3·1절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수원 그날의 함성'은 아이와 어른, 신세대와 기성세대, 탈북인, 다문화인 등 남북동서 모든 세대와 계층이 골고루 참여한 수원시 최초의 행사였다.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시민 5,000여명이 관람한 이 행사는 1919년 3월에 수원지역에서 있었던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고 여성독립운동가의 활동을 조명해 우리지역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찾았다.

매산초등학교 학생의 아리랑과 고은 시인의 '3월의 노래'에 이어 여성대표, 시민대표, 탈북인 대표, 다문화인 대표 등이 전해 준 희망 메시지는 또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 주었다. 이로써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희망의 싹을 틔웠다.

유명연예인의 참여 없이도 시민의 자발적 참여 속에 '시민축제'로 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림픽 공원에서 개최된 시민사회 3·1절 기념행사 '태권도 플래시몹'과 팔달구에서 추진한 가족사랑 도전 골든벨, 권선구에서 추진한 '대형 손도장 태극기 제작', 시민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춤추는 독립군가-수원시민 플래시몹' 등은 시민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 주간에 개최된 다양한 경축관련 행사에는 '시민참여형' 축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고 쌍방향 소통을 넘어 다자간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을 적극 활용해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행사의 의의와 의미 설명을 통해 참여 동기를 불러일으키고자 했던 이와 같은 노력은 시민들로부터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으며 광복절 주간행사에 대해 시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광복절 주간의 첫 번째 행사로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전망'을 위한 학술대회는 인권을 통해 바라본 수원의 민족운동사를 재조명하고 근현대사를 관통해 오는 과정에서 수원지역에서 있었던 자랑스러움을 찾아 알려나감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3일간 진행된 학술대회는 대한민국 근현대사 연구의 대가들이 참여해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매일 많은 청년학생과 시민은 물론 탈북·다문화인이 참여해 평화·인권·통일을 염원하는 수원시민의 열망과 기대를 읽을 수 있었다.

제70주년 광복절 당일인 8월 15일에는 '사회통합형' 행사가 개최되었다.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계승하는 사업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시민의 자발적 모금운동으로 '수원의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 동상'이 올림픽 공원에 세워졌고 순수 민간주도로 추진된 이 행사에는 임면수 선생 후손 및 독립운동 생존지사 이영수 옹과 오희옥 여사, 독립운동가 후손인 광복회원 및 많은 시민과 학생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하고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발굴해 가며 만주 등 해외 유적지 탐방과 함께 수원시내 산재한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가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도 큰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7000인 시민대합창'은 정조 시대에서 시작해 우리 부모님 세대와 아이들 세대를 아우르는 '수원의 이야기'를 영상과 퍼포먼스, 합창을 통해 함께 나누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찾고 한 발 더 나아가 통합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때론 가족단위로, 때론 모임단위로, 혹은 친구들과 함께 삼삼오오 참여한 1만 5백여명의 시민이 자발적 의지를 갖고 참여해 주었다. 수원시의 모든 구성원인 학생,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탈북인, 다문화인 등 남북동서의 모든 사람이 평화를 노래하고 인권을 외치며 통일을 염원했다.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어 수원에서 울려 퍼진 이 대합창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소통의 초석이 되었음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방송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국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은 구한말 이후 세계사에서 유례 없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내며 우리사회의 고질병이 되어 버린 갈등과 반목을 우리 수원에서부터 치유해 가고 상생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역사적 진실을 기반으로 반성과 화해를 통해 우리의 고질병을 고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이다. 이와 같은 성과 위에 각종 사회단체 등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고 수원시에서 적극 협조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에서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은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로 기억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은

시인 |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고문

수원시 광복70년기념사업을 돌이켜 보며

현대사에서의 70년, 특히 조국의 실재와 그 미완성의 조국 현실의 고난을 겪은 70년은 그 과정을 결정해야 할 70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70년의 시대적인 당위는 어떤 결실도 얻지 못하고 다만 70년을 기념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가슴 아픕니다.

다만 광복 70년을 살아온 해방 1세대를 이은 여러 세대의 각성은 새삼스러웠습니다. 또한 조국의 절반만으로 세계 10위권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화 민주화 국가가 된 것은 세계적인 것으로 그 긍지는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수원의 광복70주년기념행사에 참관자로서의 시민참여와 함께 몇 개의 주요행사에는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 지역 주민으로 생활한다는 실감과 이어지는 일입니다. 함께 숨 쉬고 함께 기리는 일은 삶의 공동체가 갖춘 기본행위입니다.

저는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알게 된 수원 일원에서 3·1운동 이래 여러 국내외 독립운동가 가 배출된 사실, 해방 직전의 일제말기까지도 그 의지가 지속된 사실에 나는 새삼 놀랍니다. 앞으로 수원 자치권의 시민의식의 진전에 이런 정체성이 결부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통팔달의 열린 시민의식을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수원은 수원만으로

생존하지 못합니다. 수원은 수원 아닌 것과도 일치해야 합니다.

'지역'은 '전체'와 '보편'과의 불화로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서울만이 서울이 아니라 수원도 또 하나의 서울입니다. 수원은 서울의 베드타운이나 부속도시가 아니라 더 아름답고 독립적이고 당당한 또 하나의 서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수원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롭게 결합된 도시, 누구나 부러워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조화로운 수원을 끊임없이 가꾸어 갈 선진적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5백년 전이나 똑같은 오늘을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불과 10년 전의 오늘과도 다른 시대변천이 신속한 시대입니다. 그렇더라도 행복의 추구나 불의에의 분노 또는 세상 속의 평화와 같은 높은 덕목은 불멸의 가치들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은 것 두 가지를 다 실현해야겠습니다.



김영규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나라와 민족의 소중함과 가치를 되돌아보는 기회였습니다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실무를 총괄하는 수원시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준비위원회 구성 등 초기 준비단계에서부터 기념사업 추진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집행위원회에서 '평화·인권·통일'이라는 주제에 부합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화해와 화합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끌어 내는 사업을 발굴, 검토, 실행하는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하는 시민사회단체가 늘어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며 수원시민에 대한 자부심을 크게 느꼈고 화해와 화합에 의한 사회통합이라는 과제를 풀어 나갈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사업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게 느껴지지만 그중 '7000인 시민대합창'은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진한 감동을 던져 주었습니다. 불가능 할 것만 같았던 10,500여명의 시민이 백의민족을 상징하는 흰색 상의를 입고 도시락까지 싸오시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루어진 시민대합창! 시민의 자율 참여문화를 새로이 싹 틔워낸, 진정으로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저뿐만이 아닌 모든 시민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소중함과 가치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이 있기까지 몸 바쳐 조국을 지켜내신 선열들에 대한 숭고함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 행정이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면 시민이 먼저 다가온다는 것과 사회통합이라는 것이 구호만이 아닌 실현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송영완

수원시 정책기획과장

70년 전 그날처럼
우리도 뜨겁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정책기획을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기획회의에 처음 참여하고 사업을 구체화하며 2015년 기념사업을 1년간 이끌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중앙차원에서 치르던 행사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보훈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의 빠른 공감으로 우리 시민의 독창적인 행사를 위해 「수원시광복70주년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순행사가 아닌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1년간 이끌어 온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독보적인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복70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서 하나하나의 행사가 다 감동이었습니다.

계층 간 갈등과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우리 수원에서 행한 광복70주년 기념행사를 되돌아보며 저는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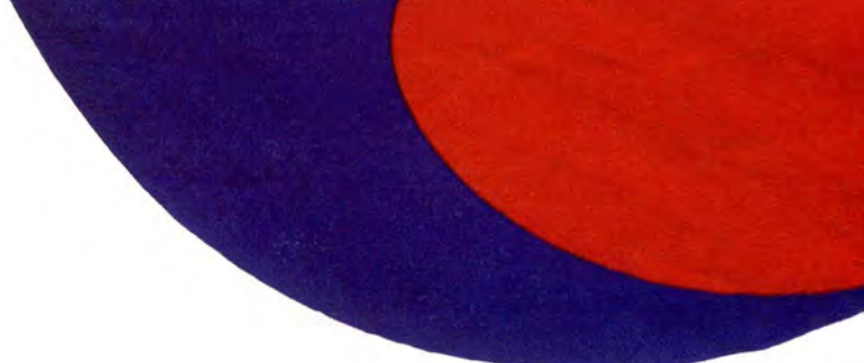
“70년 전 하나가 되어 외쳤던 그날의 함성처럼 우리 수원시민도 뜨겁게 하나가 되어 할 수 있다!” 우리의 자신감 회복과 우리지역 선열들의 뿌리를 일깨우며 정체성을 다시 깨닫는 한 해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 우리 수원시민은 역시 최고의 시민이었습니다.

2부

정대

70년



수원의
수레가
되라



1장

수원, 그날의 함성

1절 광복70주년 기념 특별강연

수원지역 여성 민족운동가

나혜석, 김항화, 이선경을 만나다

2절 3·1운동 재현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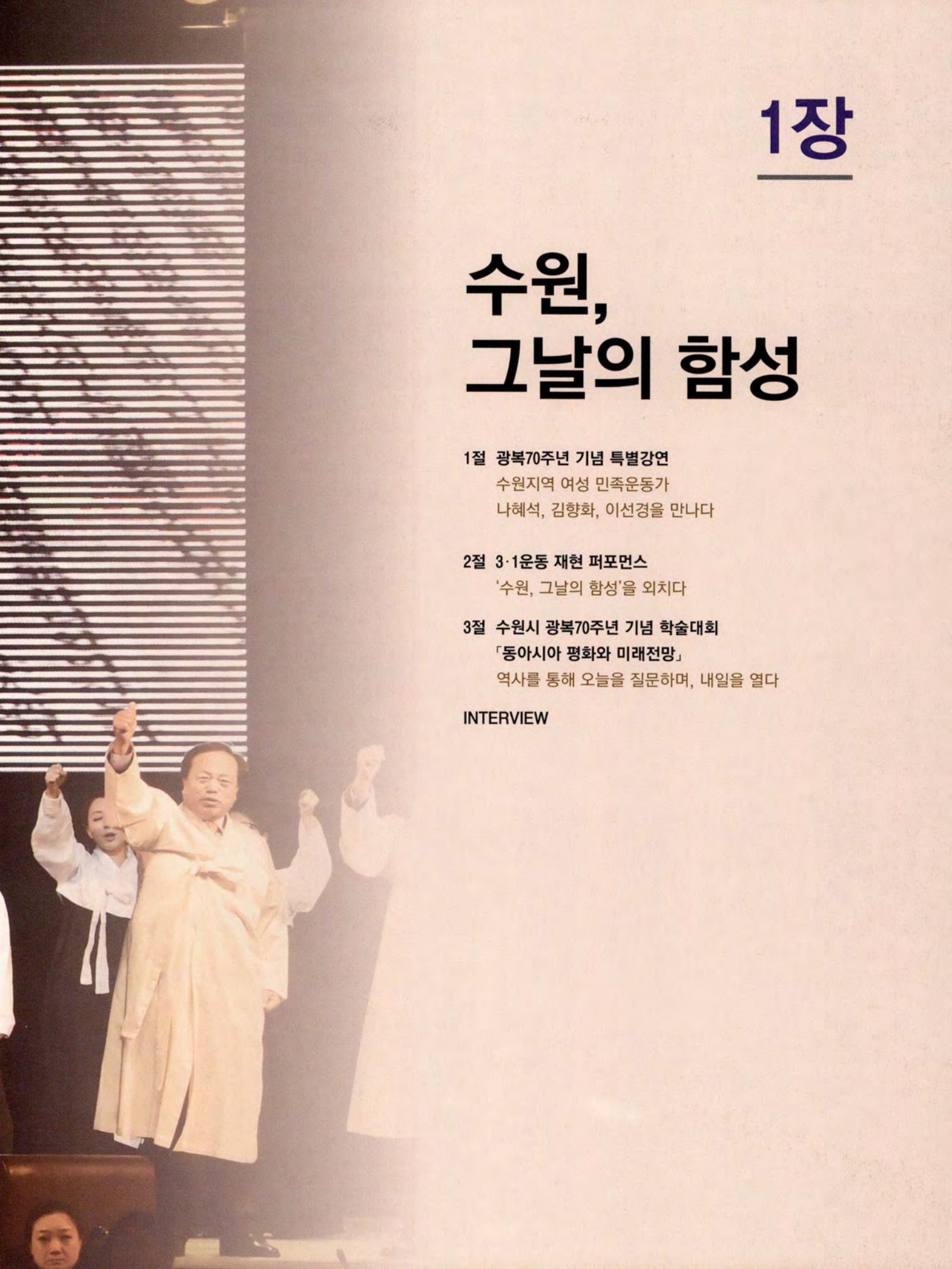
'수원, 그날의 함성'을 외치다

3절 수원시 광복70주년 기념 학술대회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전망」

역사를 통해 오늘을 질문하며, 내일을 열다

INTERVIEW





서도홍 | 21세



이금희 | 23세



손산홍 | 22세



신정희 | 22세



김영무 | 16세



이일점홍 | 16세



홍죽엽 | 18세



김금홍 | 17세



오산호주 | 20세



손유색 | 17세



이추월 | 20세



김연옥 | 18세



정가패 | 17세



박화연 | 19세



박연심 | 20세



황채옥 | 22세



김명월 | 19세



한연향 | 22세



정월색 | 23세



이산옥 | 19세



문농월 | 21세



박금란 | 18세



오채경 | 15세



김향란 | 18세



김명화 | 17세



소매홍 | 20세



박능파 | 17세



윤연화 | 19세



임산월 | 17세



최진옥 | 19세



박도화 | 23세



김채희 | 15세

3·1운동에 참여한 수원기생들(사진제공 수원박물관)

1절

광복70주년 기념 특별강연

수원지역 여성 민족운동가
나혜석, 김향화, 이선경을 만나다

광복70주년을 맞아 수원지역 독립운동사의 가장 중요했던 여성민족운동가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대중 강연을 개최했다. 수원의 여성독립운동과 여성인권을 부르짖은 '여성해방의 선구자 나혜석', '의로운 수원기생 김향화', '수원의 유관순 이선경'을 주제로 이들을 발굴하여 독립유공자 포상을 가능하게 했던 연구자들이 직접 강단에 올라 강연을 했다. 그리고 본 강연회는 같은 날 저녁 이어진 수원의 독립운동 재연 퍼포먼스 '수원, 그날의 함성'과 연계하여 수원 3·1운동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광복70주년을 기념했다.

일시 2015년 3월 28일(토) 16:00 ~ 17:30

장소 수원화성박물관 영상교육실

나혜석 3.1운동에서 역할 현실인식과

김영희(나혜석기념사업회) 관한나혜석기념사업회사모교수 나혜석기념사업회(원)

나혜석은 근대 최초 여성 화가로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1980년대 이후 연구 진전과 더불어 문학가·독립운동가·여성운동가로서 다양한 인생역정은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되는 계기를 맞았다. 시대를 초월한 인식이나 파격적인 생활태도는 '캐리우먼'이라는 찬사를 순식간에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혼을 당한 이후에는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으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 강고한 인습이 잔존한 시대상황은 그녀를 나락의 궁지로 내몰았다. 「이혼고백서」 발표와 '정조 유린에 대한 고소사건'은 더욱 인간사회로부터 소외시켰다.

나혜석에 대한 그동안 연구 결과로 민족의식 형성과 항일운동 행적 등은 비교적 자세하게 밝혀졌다. 유학시절 조선유학생학우회와 조선여자유학생친목회에서의 활동은 모순된 현실을 직시하는 밑거름이었다. 귀국 이후 3·1운동 참여와 지역사회 연계 도모, 조선학생대회 등 학생운동 후원, 여자야학과 여자미술학교 설립·운영 등 교육활동, 국외항일세력과 의열단에 대한 지원, 강연회와 언론을 통한 여성운동·문화계몽운동 참여 등은 유학시절 소중한 경험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모순된 현실에 대한 갈등과 변민은 스스로를 각성하는 원천이었다. 민족운동 참여나 지원은 현실인

식 심화와 더불어 새로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견지하는 요
인임에 틀림없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재다능한 활동은 이와 결코 무관하
지 않다.

나혜석은 3·1운동 발발 초창기 박인덕·신준려 등과 이화학당에서 모임
을 갖고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 개성과 평양
을 방문하여 이러한 뜻을 전하는 한편 동참을 권유했다. 소통에 의한 정보
교류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연대 모색은 여성들에 의하여 추진된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서울로 돌아온 직후 곧바로 체포·투옥되어 심문을 받
았다. 다행히 5개월만인 8월 5일에는 면소·방면되었다. 수원지역 여성의
3·1운동에서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는데 나혜석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
재이다.



나혜석

최초의 여성유화가 · 여성해방론자

(1896. 4. 28 ~ 1948. 12. 10)

수원면 신평리에서 태어나 삼일여학교를 졸업
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유화가이며, 근대 여
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선구자이다. 3·1운
동이 일어났을 때 서울에서 만세운동에 참가
하였다가 옥고를 치렀고, 이후 화가로서의 활
동과 함께 가부장적 질서에 반대하는 소설 및
다수의 글을 발표하였다.

의기(義妓) 김향화와 수원기생들의 '대한독립만세'

이동민(수원시청 학예연구사)

수원 기생들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압적 식민 통치와 경제적 착취관계에 강력한 저항으로 맞섰던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김향화를 중심으로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세운동에 앞장섰다. 수원 기생들의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9일 일어났다.

당시 화성행궁 봉수당을 사용했던 자혜의원으로 건강검진을 갔던 김향화와 30여명의 기생들은 자혜의원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자혜의원 앞에는 수원경찰서가 있어 일본 경찰과 수비대가 총칼을 차고 근무하고 있었으나, 김향화와 수원기생들은 일제의 총칼에 굴하지 않고 만세를 부르는 기개를 보여주었다. 당시 꽃다운 나이 스물셋의 기생 김향화는 기생들의 선두에 서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이들을 이끌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2개월여의 감금과 고문 끝에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검사분국으로 넘겨져 재판을 받고 징역 6개월에 처해져 옥고를 치렀다. 재판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김향화의 의로움을 지켜보았다.

김향화와 수원기생들의 3·1운동은 관기의 후예와 전통예능의 전수자로서 보여준 민족적 항쟁이었으며, 일제의 강압적인 기생제도와 식민통제에

대한 생존의 몸부림이었다. 오늘날 기생의 존재는 옛날이야기로 묻혀버렸다. 하지만 기생도 우리 민족의 일원이었으며, 이 여성들의 재능은 대중 예술이라는 장르로 계승되었고, 당시 식민지 권력에 대항하며 보여주었던 수원 기생들의 민족적 의로움은 오늘의 교훈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향화는 2009년 4월 국가보훈처로부터 대통령표창을 받고 독립유공자로 인정 받았다. 2015년 현재 김향화의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독립유공자 표창장과 훈장메달은 수원박물관 근대 인물 한 코너에 전시되어 그녀의 민족정신과 독립의 의지를 알리고 있다.



의로운 기생, 꽃중의 꽃
김향화

(1897. 7. 16 ~ 미상)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수원 기생들은 고종 황제가 돌아가심을 누구보다도 슬퍼하며 대문 앞에서 망곡례를 올렸다. 그리고 1919년 3월 29일 자혜의원(현 화성행궁 봉수당)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수원 기생 30여명을 이끌고 일제의 총칼에 항거하며 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어 징역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이선경 수원의 여성독립운동가

한남대학교(수원박물관 학예팀장)

3·1운동 직후 수원의 청년들에 의해 조직되었던 비밀결사 조직인 구국민단이 일제에게 발각되었다. 구국민단은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된 유가족들을 구하고, 독립운동을 몸소 실천하고자 뭉친 수원 청년들의 단체였다. 구국민단 사건으로 1921년 4월 12일 박선태와 이득수는 징역 2년을 언도 받았고, 이선경을 비롯한 여학생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았다. 이에 이선경은 구류 8개월 만에 석방되어 수원으로 내려왔지만 일제 경찰의 혹독한 고문으로 인하여 1921년 4월 21일 오전 8시 수원면 매산리 219번지에서 사망하였다. 구류 8개월 만에 석방되었으나 9일 만에 19살의 나이로 순국하였던 것이다.

이선경의 순국은 구국민단 단장 박선태와 같은 마을 산루리 출신인 이선경이 그와 함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여학생들을 이끌었던 것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산루리 출신의 김노적 등과의 관계를 이선경이 입다물고 연결고리를 부인한 것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해 임시정부의 간호부 양성계획과 연관된 측면이 일제에 의해 집중적으로 조사받았을 것이다. 즉 상해 임시정부와 연결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일제는 상해 임시정부의 연결고리와 지점을 집요하게 추궁하였을 것이고, 이에 이선경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유관순(1902. 3. 15~1920. 10. 12) 열사가 1920년 10월 순국하고 난 지 6개월만인 1921년 4월 21일 이선경 열사가 꽃다운 나이에 또 다시 순국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유관순 열사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지만, 수원이 낳은

이선경 열사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살아왔다. 유관순 열사가 일제의 감옥에서 순국하였고 이화학당 교사 미스 월터 선생이 시신을 받았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이선경 열사는 경기여고를 퇴학당한 상태였고 구류 8개월 만에 석방되어 나와 집에서 순국하였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해방 후 이화학당 차원에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현창사업이 지속되었던 것에 비해 수원지역에서 이선경 열사에 대한 현창사업이 없었던 때문이다. 이는 일제강점이 1945년까지 지속되었고, 함께 독립운동을 펼쳤던 인물들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더욱이 일본유학을 했던 언니 이현경이 사회주의 운동을 펼쳤고, 일제의 검거를 피해 1928년 남편 안광천과 중국으로 망명한 이후 돌아오지 않아 순국한 이선경을 조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수원지역은 3·1운동으로 일제에 의해 고통 받은 숭한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폭력적 진압 속에서 순국했던 엄혹한 역사적 사실과 이후 감옥에서 순국한 많은 사람들에 비해 집에서 죽음을 맞이한 소녀에 대하여 널리 현창할 수 없었던 우리의 근대사가 갖는 껍질함에 있다. 이제 뚜렷한 역사적 궤적을 보여주는 순국열사 이선경에 대하여 수원은 기억하고 그와 그 가족들의 뜨거운 조국애를 널리 현창해야 할 일이다. 경기도의 유관순으로 불리는 이선경은 수원의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라 할 수 있다.



이선경 수원의 유관순으로 순국한 소녀

(1902. 5. 25 ~ 1921. 4. 21)

수원면 산루리에서 태어나, 수원공립보통학교(현 신흥초등학교)를 졸업하고 3·1운동 당시 김세환의 밑에서 연락 임무를 담당하였다. 조선의 독립을 목표로 한 '구국민단'을 박선태 등과 결성하여 비밀리에 활동하다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혹독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19살의 나이에 순국하였다.

수원, 그날의 함성을 외치다

2절

3·1운동 재현 퍼포먼스

1919년 3월 그날에 있었던 수원의 만세운동을 재현함으로써 오늘의 우리 후손을 위해 일제에 맞서 싸운 애국선열을 기리고자 하였다. 2015년 3월, 행궁광장에서 펼쳐진 독립운동가 재연 퍼포먼스는 우리 수원에서 있었던 만세운동을 이해하고 지역의 독립운동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일시 2015년 3월 28일(토) 18:45 ~ 20:30

장소 수원화성행궁 광장 특설무대



수원지역은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 독립운동의 치열한 항쟁지였다. 1919년 3월의 하늘아래 수원화성의 방화 수류정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팔달산 서장대와 연무대, 화성행궁, 종로네거리, 수원역 일대에서 뜨겁게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으로 울려 퍼졌다. 1919년 3월 29일 독립만세의 함성을 뜨겁게 달구었던 김향화를 비롯한 수원 기생들의 의로움은 수원지역의 만세운동을 확장시켰다. 또한 수원지역의 지식인들과 젊은 청년학생들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비밀결사 조직인 '구국민단'을 결성하여 활동하다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 중 19살의 이선경은 모진 고문 속에 꽃다운 나이로 순국하였다. 우리는 수원의 유관순으로 이선경 열사를 기억한다. 이러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여류화가이자 여성해방가인 신여성 나혜석에게 이어져 가부장적 질서가 민족차별과 함께했던 시기에 '여성인권'의 외침으로 이어졌다.

퍼포먼스의 주요내용은 1919년 3월 수원지역 곳곳의 만세운동을 재현하고 수원시민의 기상을 되살려 그 날의 함성을 행궁광장에 모인 모든 시민이 함께 외쳐보는 것이었다. 우리 후손들이 누릴 자유를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제에 맞서 싸운 많은 애국선열들을 기리고자 했다. 그 중 수원지역 독립운동사의 대표적인 여성민족운동가들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수원의 유관순, 이선경 열사', 서른 세분의 기생들을 이끌고 수원경찰서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의로운 수원기생 김향화', 그리고 '신여성 나혜석' 등을 통해



행 사 명 수원 독립만세운동 재연 퍼포먼스 '수원 그날의 함성'
일 시 2015년 3월 28일(토) 18:45 ~ 20:30
장 소 수원화성행궁 광장 특설무대
참석인원 5,000여명(기관단체장, 시·도의원,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 등)
행사내용 시민만세퍼레이드/여성민족운동가 활동재연극/콘서트
출 연 진 수원시민참여단, 아트컴퍼니 예기, 수원시립합창단, 수원국악예술단,
 매산초전통연희단, 고은 시인, 노브레인 등

진달래꽃 보다 더 붉은 수원의 독립운동 역사를 바라보며,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해 보고자 했다.

수원의 독립운동사는 이날 50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화성행궁 광장에서 독립군가와 함께 뜨거운 '대한 독립만세'의 함성으로 울려 퍼졌다. 수원시의 역사적 자부심과 정체성,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된 공동체의 식이 형성되었고, 광복70주년을 기념하며 애국심이 고취되고, 미래의 희망을 찾아 볼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로 진행되었다.

3월 28일 진행된 '수원 그날의 함성'은 수원시 광복70주년 기념행사의 첫 대중행사였다. 수원의 3·1운동과 인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명의 수원 여성민족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아 시민공모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다.

아트컴퍼니 예기 대표 안영화의 총연출로 수원시립합창단을 비롯한 4개구 합창단과 매산초등학교 전통 연희단, 매향중학교 학생들과 삼일고등학교, 동원고등학교 등의 초·중·고·대학생, 그리고 시민공모를 통해 모집된 시민참여단 등 총 500여명이 출연하는 대규모 총체극의 형식으로 펼쳐졌다. 3월 28일 토요일 오후 7시 행궁광장에서 진행된 독립운동가 재연 퍼포먼스는 세명의 여성민족운동가들을 전문 배우들이 열연하였고, 공모를 통해 참가한 시민들이 함께 가슴으로 열연하였다.



수원 독립만세운동 재연 퍼포먼스 '수원 그날의 함성'

2015년 3월 28일(토)에 18시 45분에서 20시 30분까지 수원화성행궁 광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졌다. 5,000여명이 참석하였고, 공연은 시민만세퍼레이드, 여성민족운동가 활동재연극, 콘서트로 연출되었다. 출연진으로는 수원시민참여단 500여명, 아트컴퍼니 예기, 수원시립합창단, 수원국악예술단, 매산초전통연희단, 고은 시인, 노브레인 등이다.

1. 시민만세퍼레이드

수원 독립만세운동 재연 퍼포먼스 '수원 그날의 함성'의 공연은 시민참여단으로 이루어진 시민 200명과 학생 200명이 공방거리, 신평초교를 거쳐 종로사거리까지 시민퍼레이드를 펼치며 시작하였다. 태극기를 흔들고 입장하며 관람객들에게 신독립신문을 호외로 배포하고, 전체 플래시몹을 진행하였다.



2. 총체극

■ 개막

광복70주년을 기념하며 축하영상을 7분 가량 상영하고 총4막으로 펼쳐질 총체극을 소개함으로써 '수원, 그날의 함성'의 서막을 올렸다.

■ 제1막 망곡례

총체극 제1막 망곡례는 민족대표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극을 시작하였다. 수원시 시의원이 민족대표로 참여하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이어 고종황제가 승하하시자, 수원 기생들의 망곡례 장면으로 이어졌다.



■ 제2막 수원의 꽃

제2막 수원의 꽃은 수원의 여성독립운동가 이선경의 독립활동을 담았다. 항일운동의 요람이었던 수원교회의 교사로 활동하던 이선경과 수원 학생들이 비밀결사를 하는 내용이 펼쳐졌다.

■ 제3막 못다핀 꽃

제3막 못다핀 꽃은 수원의 여성독립운동가들의 항일활동과 정신을 극에 담아냈다. 여성대표들이 여자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세 여인이 옥중에서 일제에 항거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이어 여성독립운동가인 나혜석과 김향화가 석방이 되고, 이선경은 안타깝게도 순국하면서 태극기 장례 행렬로 3막을 내렸다.

■ 제4막 앞으로 행진곡

총체극 '수원 그날의 함성'의 마지막인 제4막 앞으로 행진곡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내었다. 시인 고은 선생님이 주제시 '3월의 노래'를 낭독하고, 시민 대표가 나와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수원시 염태영 시장이 말씀을 전하고 시민들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삼창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극에 참여한 전출연진이 나와 합창함으로써 총체극을 마쳤다.



3. 콘서트

수원화성행궁에서 펼쳐진 '수원 그날의 함성'은 수원시와 시민이 함께 이루어낸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극이었다. 슬픈 역사로 인해 가슴이 먹먹한 순간도 있었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했던 소중한 희생에 감사하며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결의를 하게 한 시간이었다. 1919년 3월의 함성을 이어받은 2015년 3월은 노브레인의 공연과 더불어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함성으로 수원의 밤하늘을 가득 채웠다.

역사를 통해 오늘을 질문하며, 내일을 열다

3절

수원시 광복70주년 기념 학술대회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전망」

수원시는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평화·인권·통일을 주제로 수원지역 민족운동사를 재조명하고, 사회통합과 미래지향적 수원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학술대회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전망」을 8월 12일(수)부터 14일(금) 14:00~18:00, 3일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3개 섹션으로 이루어진 학술대회는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전망」이라는 큰 주제 속에 역사를 살펴보고, 오늘을 생각해 보며, 미래의 주역인 젊은 청춘들에게 내일을 열어주고자 마련되었다.

일시 2015년 8월 12일(수)~14일(금)

장소 수원시청 대강당(별관 2층)

섹션 I 학술대회 1

‘민족운동사에서 수원의 인권을 보다’



첫날인 8월 12일(수) 1섹션은 ‘민족운동사에서 수원의 인권을 보다’라는 주제로 첫 발표는 이동근 수원시청 학예연구사가 「‘제암리 학살사건’을 통해 본 일제의 폭력성과 식민지 인권」을 발표했다. 1919년 4월 15일 제암리에서 일어난 일제의 학살만행을 통해 수원지역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무력적 대응이 식민통치의 기저인 폭력성에서 나왔음을 고찰하고 무너진 식민지 인권을 상기하였다. 두 번째로는 박철하 前 친일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이 「일제의 강제동원과 수원사람들」을 통해 일제강점기 전시동원체제 아래 징병과 징용, 중군위안부 등에 끌려가 인권을 무시당하고 살았던 수원사람들의 삶을 고찰했다. 이들 두 발표는 ‘빼앗긴 들’에서 ‘잃어버린 인권’이 얼마나 무참히 짓밟혔었는지를 살피면서 오늘의 역사분쟁 속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식민지 인권’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자 했다. 세 번째로 한동민 수원박물관 학예팀장이 「근대 수원지역의 변화와 교육구국운동」을 발표했는데 수원상권의 변화에 따라 설립된 수원상업강습소의 변화 과정과 화성학원의 설립과 변화를 살피면서 수원지역 교육구국운동의 흐름을 파악했다. 네 번째로는 김정수 선문대학교 교수가 「수원지역 민족운동과 대한성공회 수원교회」 발표를 이어가며, 그동안 1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하고도 주목받지 못했던 대한성공회 수원교구를 통해 수원지역의 개신교 수용과정과 3·1운동, 이후 민족운동을 정리하였다. 1섹션에서는 수원지역 민족운동사에서 식민지 인권을 생각해 보고, 학교와 종교기관의 민족운동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섹션II 학술대회 2 '수원에서 길을 묻다'



둘째날 8월 13일(목) 2섹션은 '수원에서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이종석 前 통일부장관이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전략」의 강연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과정은 냉전의 완전한 청산과 동아시아의 온전한 귀환이 실현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 속 한국의 진로를 모색해 보았다. 본격적인 발표에서는 박환 수원대학교 교수가 「역사전쟁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제언」을 통해 현재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 등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사운 이종학 선생의 자료를 근거로 사료규명을 통한 역사전쟁의 실체를 밝히고,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다시 살펴 보았다. 광복70주년을 맞아 역사전쟁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며 동양평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 얘기했다. 세 번째 발표는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의 「인권을 통해 본 시민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으로 헌법연구자의 입장에서 사람 중심의 인권을 존중하는 수원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는 이기호 한신대학교 교수가 「평화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동아시아 평화」를 발표했다.

섹션Ⅲ 명사초청 특강 '수원에서 길을 열다'



셋째날 8월 14일(금) 3섹션은 '수원에서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젊은 청춘들에게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길을 물었다. 먼저 일제강점기 광복군 제3지대원으로 활동하며 직접 조국 독립을 위해 몸 바쳐 싸웠던 김우전 독립지사가 광복군 활동 당시를 생생히 증언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고난과 행보, 그 속에서 창설된 광복군의 대장정과 독립을 위한 악전고투의 증언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광복70주년을 맞아 좋은 귀감이 되었다. 김우전 독립지사는 "우리 모두 거듭나서 화합 단결하여 겨레와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8천만 민족이 염원하는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 속히 성취하여 온 겨레가 공생 공영 무궁한 발전을 하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청년들에게 외쳤다. 두 번째로는 행정전문가로서 국무조정실장까지 지내고, 현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있는 김동연 총장이 「유쾌한 반란」이라는 주제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청춘들의 반란을 이끌어 내며 새로운 희망을 이끌어 냈다.

이렇듯 수원시는 광복7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들 가운데, 평화·인권·통일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통해 새로운 70년을 향한 매우 뜻깊은 메시지를 전하였다.





박 환

수원대 교수/학술편찬위원회 위원장

수원의 과거에서 영웅을 발견했습니다

수원지역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하여 여러 편의 논문을 쓴 것이 계기가 된 것인지 학술위원장으로서는 이번 광복70주년 기념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수원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중심으로 학술회의도 기획하였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와 별도로 광복70주년 행사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수원시에서 70주년 행사를 한다고 하니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잊혀졌던 이선경, 김향화, 나혜석 등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하여 주목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면수 선생의 동상을 세운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임면수 지사님을 발굴하고 논문을 썼는데 이번에 동상이 설립된 것입니다. 수원 출신으로 수원지역뿐만 아니라 만주지역에서도 항일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자신의 전 재산을 삼일 학교의 발전을 위해 기증하신 분입니다. 영웅이 없는 오늘을 돌아볼 때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 수원의 자람이 아닌가 합니다. 후손들의 감격의 눈물을 잊을 수 없네요.

앞으로 수원지역은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도시로써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평화와 인권, 민주를 추구하는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뜨거웠던 그해의 여름밤,
우리 수원은 감동이었습니다

박사승

수원시 정책팀장

지난 수원의 여름밤은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2015년 8월 15일 광복절, 그 밤을 10,500명이 넘는 수원 시민이 드넓은 수원 제1야외음악당을 가득 메우고 진정한 하나가 되어 애국가를 합창할 때는 전율과 더불어 눈시울까지 뜨거워지는 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가슴 벅참이었습니다.

2월 26일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출범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였습니다. 수원의 유관순 이선경, 의로운 수원기생 김향화, 여성인권의 선구자 나혜석 등 수원의 여성 민족 운동가들 조명한 학술 강연회, 수원의 독립 운동사를 재현한 '수원 그날의 함성',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 등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행사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간의 동원형식이 아닌 시민의 자율 참여문화를 새로이 싹 틔워낸, 진정으로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시민참여 최고조의 순간은 광복을 맞은 지 70년이 되는 그날, '7000인 시민대합창'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민 여러분께 광복의 의미와 참여 동기 부여를 통해 자율 참여를 이끌어 내기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이 순간순간 지나가며 시민들에 대한 고마움과 진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뤄낸 시민 대화합의 행사였던 '7000인 시민대합창'에서처럼 '우리 수원 시민과 국민 모두가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화해와 공동번영을 지향해 나간다면 사회통합은 물론 세계 선진 일류 국가로의 도약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125만 수원시민이 서 있고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이 세계의 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 후손들에게 번영된 미래를 물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경규

수원시 정책기획과

7000인 시민대합창,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날입니다

저는 수원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 실무담당자로서 수원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 '수원 그날의 함성' 공연, '7000인 시민대합창' 행사 등 지난 8개월간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부서장 이하 동료 직원들의 도움으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7000인 시민대합창' 행사가 크게 기억에 남는데요. 이 행사는 기획 단계부터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00명도 아닌 7,000명이 한자리에 모여 합창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7,000명을 넘어 10,000명 이상이 야외음악당에 모여서 합창을 하는 유사 이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굉장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것을 느낍니다. 과연 수원시민의 자발적 참여의식 없이 관 주도로 진행되었다면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행사를 통해 수원시민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으며 희망 가득한 수원의 미래를 그려 보게 됩니다.

또한 단순한 광복절 기념행사를 넘어 수원시민의 잠재 역량을 이끌어냈다는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과거를 잊은 채 미래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70년이란 세월은 모든 기억들이 바래지고 희미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복70주년이 되는 해는 다시 그때를 되돌아보고 가슴으로 기억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안 영화

예기 대표 | '수원, 그날의 함성' 대중총체극 총연출

수원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였습니다

이번 '수원, 그날의 함성'의 대본작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전체 행사의 총연출을 맡았다. 지역의 독립 운동가들을 재조명하는 이번 작업은 수원출신인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인생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전문예술인들과 수원의 여성 민족 운동가들을 기리는 작업도 매우 소중하였으나, 공연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시민참여단이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벅찼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참여단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다. 만세퍼포먼스와 독립군가 플래시몹, 3인의 여성 민족운동가(나혜석, 김항화, 이선경)에 대한 총체극에 이어 고은 시인님의 시 낭독까지 매 순간이 나의 가슴을 울컥하게 하였다.

이번 수원시민과 함께 한 '수원, 그날의 함성'이라는 공연은 지역사의 지정성이 시민화합을 통해 거대한 에너지로 폭발되면서 3·1운동 당시 이름 모를 많은 분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바쳐 싸우시던 모습과 연결되어 나의 마음은 뜨거움으로 가득 찼다.

개인적으로 지역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고,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바라보며 미래를 계획하는데 있어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지역의 역사를 활용한 공연콘텐츠개발을 알아봐주시고 연출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민관 합동으로 성공적인 공연을 할 수 있어 어느 때보다 뜻 깊은 2015년이었다.



미래 세대에 훌륭한 유산을 남기는
수원이 되길 기대합니다

김찬수

동원고 교사 | 학생인솔 및 행사참여

저는 광복70주년 기념 행사에서 동원고 1, 2학년 학생들을 지도하고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화성행궁광장에서 실시한 '수원독립운동사 재현 퍼포먼스 만세 퍼레이드'에 학생들 50명과 함께 하였고,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광복의 길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에 학생들 2팀을 지도하여 '광복은 나침반이다'라는 주제로 우리 학생들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8월 12일 실시한 '광복70주년기념 학술대회'에는 토론자로, '7000인 시민대합창'에는 동원고 학생 70여명과 함께 참가하여 광복70주년의 감격을 함께하였습니다.

저는 고등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광복70주년의 기쁨과 의미를 우리의 2세들에게 잘 전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에게 관련행사를 홍보하고 모집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기회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하고 역사의식이 성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사는 후손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배워 오늘날 자랑스럽고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복70주년은 큰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수원시민들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며 광복70주년을 돌아본 2015년은 매우 뜻 깊었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수원이 교육에 강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기는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광복70주년 기념행사는 저에게 '얼매'입니다

정은주

매향중학교 학생 | 수원, 그날의 함성 참여

매향중학교에 다니던 저는 역사 선생님의 제안으로 '수원 그날의 함성'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원 그날의 함성'에서 매향중학교 학생들과 무대에 직접 올라가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직접 무대에 올라가 많은 시민들과 함께 행사를 하게 돼서 매우 떨렸지만 이렇게 큰 자리에 오른 내 자신이 뿌듯했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광복70주년 행사는 저에게 '얼매'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준비 과정은 힘들었지만 힘들었던 과정이 보람차게 느껴지는 아름다운 결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광복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는 우리의 조상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얻은 것이 '광복'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광복을 했다고 하여 외부의 침략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걸 일깨워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도록 힘든 싸움을 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그들의 애국심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기념일에만 이런 행사를 여는 것이 아닌, 평소에도 이런 행사를 많이 하여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장

환희의 대합창, 수원을 울리다

1절 7000인 시민대합창

7천개의 목소리가 8월 여름밤을 수놓던 날

2절 7000인 시민대합창 기념조형물 제작

7000인의 목소리를 역사에 새기다

INTERVIEW



7천개의 목소리가 8월 여름밤을 수놓던 날

1절

7000인 시민대합창

수원시는 광복7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얻은 광복의 의미와 수원의 정체성을 찾고, 온 시민의 화합으로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 7000인 시민대합창을 개최했다.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 문화행사는 수원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돋보인 유례없는 행사였다.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찬란한 문화유산과 고귀한 정신적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이어가는 자랑스러운 후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시간이었다.

일시 2015년 8월 15일(토) 20:00~21:30

장소 수원 제1야외음악당



‘7000인 시민대합창’은 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범시민적 대합창으로 광복70주년을 맞아 가장 큰 문화행사로 기획되었다. 어린이, 학생,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종교단체 등을 망라한 시민 1만 5백여 명이 이날 행사에 참여하였다. 일체의 보상 없이 순수 자발적 참여로 전 계층이 함께 모여 사회 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수원시민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원의 자랑스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공연 당일 사전에 1만 5백여 명이 모여 리허설을 한 뒤 본 공연의 8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합창의 큰 울림을 만들었다. 수원시립교향악단의 김대진 지휘자의 지휘로 수원시립합창단, 수원시 소재 합창단, 종교단체 합창단 등도 함께했다. 1만 5백여 명이 함께



한 올림은 누구나 알고 있는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들인 '아빠의 청춘', '아침이슬', '아름다운 강산', '우리의 소원'이 열창되었고, 마지막은 한 마음 한 뜻의 '애국가'로 장엄한 마무리가 되었다. 대미의 불꽃쇼와 에드벌룬의 대형 태극기는 1만 5백여 명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본 공연은 8가지 주제의 내용으로 임형수 감독의 총 연출로 수원이라는 도시의 탄생부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의 고난의 모습, 다시 일어서는 복구와 재기의 시대, 민주화를 향한 끝없는 열망, 수원의 발전과 도약, 그리고 제2의 르네상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수원의 미래 모습을 다큐 영상과 함께, 퍼포먼스로 펼쳐보였다.

■ 수원 근현대사 공연

제1막 수원의 출발

첫 번째로 1789년 팔달산 아래 읍치가 이전하여 수원화성행궁이 만들어지고 1794년부터 시작되어 1796년 완성된 수원 화성의 건설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수원이라는 계획 도시가 처음 만들어지며 백성을 위한 도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1795년 윤2월 9일부터 윤2월 16일까지 8일간의 정조대왕의 행차는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백성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어 갔으며, 장용외영 등의 군사적 모습도 강하게 보여주면서 진정한 백성을 위한 군주로서의 모습과 새로운 도시 건설의 희망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수원에서 열어가고 있는 모습을 30년의 수준 높은 연주 실력을 자랑하는 수원시립교향악단이 베토벤 교향곡 9번인 '환희의 송가'를 연주했다.



수원 근현대사극 줄거리

제1막 수원의 출발_정조시대_사람중심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꿈

정조대왕이 수원화성 축성을 완공하고, 혜경궁홍씨의 회갑잔치를 위하여 화성과 행궁으로 원행을 하는 모습이 표현된다.

영상 : KBS 다큐멘터리 '의궤, 8일간의 축제'

음악 : 오케스트라 연주(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 환희의 송가)

제2막 수원의 고난 1_일제시대_유린당하는 꿈

수원 화성에 일본헌병이 주둔하고 경찰서와 수원군청이 일제에 의해 들어선다. 수원 화성의 종각과 행궁의 봉수당이 무너지고 수원화성이 일제에 의해 유린당한다. 이를 참지 못한 조선인은 일제의 폭력에 항거하다가 위기에 처하나 굴하지 않고 만세를 외친다.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일제에 끝까지 저항하여 독립을 쟁취한다.

영상 : 화성의 수난 장면

퍼포먼스 : 거대인형 + 스틸트연기

제2막 수원의 고난 1

두 번째는 수원의 고난과 역경을 보여주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총칼 앞에 나라를 빼앗겨 식민지라는 어두운 역사의 터널을 36년간 지나왔지만, 수원지역민들은 나라를 되찾고자 일제에 끝까지 저항하며 싸웠다. 수원은 3·1운동 당시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각종 청년단체와 비밀결사단체들의 활동이 이어지고, 격문 및 낙서 사건 등을 통해 조국독립을 위해 항쟁했던 민족해방운동의 성지이기도 하다.



제3막 수원의 고난 2_한국전쟁_훼손되는 꿈

비행기 폭격소리와 대포소리가 진동한다. 인공기로 치장한 인민군 무리가 등장한다. 이를 방어하는 국군. 하지만 국군은 후퇴하고 만다. 인민군을 상징하는 깃발이 장안문에 올라간다. 인민군들은 장안문을 자신들의 방위요새로 만들기 위해 총칼을 앞세워 수원시민을 강제노동시킨다. 전쟁 중에 장안문은 파괴되고 화성은 심하게 훼손된다. 그리고 인민군과 수원시민도 부상을 당한다. 그들은 다친 상처를 서로 어루만져 준다. 다시 등장하는 국군. 인민군과 국군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한다. 이때,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이 소리에 서로 대치를 풀고 손을

잡는다. 그리고 눈물을 흘린다. 전쟁이 끝난 아픔은 여기 저기 생겨난 피난민 촌에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영상 : 화성의 훼손 장면

퍼포먼스 : 현대무용

제3막 수원의 고난 2

광복70주년은 분단 70주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그리고 3년여의 전쟁기간을 통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은 멈췄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우리 한반도에 너무 큰 물적, 인적 피해를 가져왔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으며, 이산가족이라는 아픔을 간직하게 되었다. 이제 통일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아픔이 치유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은 공연이 이어졌다.

제4막 복구와 재기의 수원

“새벽중이 올랐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1970~80년대를 살아 온 세대들은 너무나도 귀에 익숙한 노랫말이다. 1970년대를 매일 같이 아침과 저녁에 농촌 마을의 확성기와 방송 매체(라디오 등)를 통해 흘러나왔던 당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 노래인 ‘새마을 노래’이다. 새마을 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기본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수원 근현대사극 줄거리

제4막 복구와 재기의 수원_1970년대_다시 꾸는 꿈

사람들은 새마을 운동 복장을 하고 훼손된 수원화성을 복구한다. 새마을 깃발이 올라가고 통일벼를 생산하며 열심히 농사를 짓는 희망에 찬 농부의 모습도 있고, 동시에 수원 화성 주변에는 삼성, 한일합섬, 선경화학, 금강 등의 공장과 빌딩들이 들어서고 경부고속도로와 지하철 1호선도 건설된다. 사람들은 점점 활기찬 모습으로 일을 한다.

음악: 합창(아빠의 청춘) + 오케스트라 연주
영상: 수원화성 복원과 수원 퍼포먼스 : 아크로바틱

제5막 수원의 민주화 열망_1980년대_소리치는 꿈

갑자기 군화소리와 함께 무대에 연기가 가득 찬다. 대학생들은 수원역에서 경찰들과 대치하며 ‘독재타도와 민주주의 쟁취’를 외치며 화염병을 투척하고 최루탄을 피해 정신없이 도망치기를 반복한다. 그러다 경찰에 잡혀 진압봉으로 두드려 맞고 만다. 하지만 진압봉에 굴하지 않고 결연히 일어나 서로 어깨동무하고 〈아침이슬〉을 부르며 전진한다.

음악: 대합창 아침이슬 영상: 민주화운동 벽화
퍼포먼스: 현대무용 + 연기

로 모든 국민들이 잘 살아보고자 노력했던 운동이었다. 수원에도 새마을지도자 연수원이 신설되어 운영되었고,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권농일 행사, 모심기 행사, 벼베기 행사, 새마을 행사 등이 열렸다. 또한 1970년대에는 '수원 화성'의 복원도 이루어졌다.

수원시립합창단이 고단한 삶속에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던 아빠들을 위한 '아빠의 청춘'을 불렀다.

제5막 수원의 민주화 열망

1980년대 수원지역의 민주화운동은 주로 학생들이 주도해 나갔다. 독재타도와 민주주의 쟁취를 외쳤던 모습을 5막에서 보여주었다. 그리고 전체 합창으로 저항 가요의 대명사인 아침이슬이 울려 퍼졌다.

제6막 수원의 발전과 도약

6막에서는 1990년대 수원의 발전상이 보여졌다. 선경이 SK로 변화하고 삼성이 세계적인 그룹으로 변모했다. 그리고 동수원 개발과 영통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졌고, 화성 행궁 복원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수원 화



제6막 수원의 발전과 도약_1990년대_약진하는 꿈

선경이 SK로 변화하고 삼성이 세계적인 그룹으로 변모한다. 그리고 동수원 개발과 영통 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화성행궁 복원 사업이 실시되고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 수원은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화성문화제 등 지역 축제가 활성화 되기 시작하고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발전과 도약을 하게 된다.

영상 : 수원의 발전장면
퍼포먼스 : 미디어 퍼포먼스

제7막 수원의 르네상스_2000년대_새로운 꿈을 위한 서막

'대한민국, 짹짹 짹'의 함성과 '오 필승 코리아'의 힘찬 노래가 들려온다. 2002 한일 월드컵의 성대하고 성공적인 개최로 수원 출신의 스타 박지성이 탄생한다. 수원에 지방 산업단지가 생겨나고 신도시가 개발되며 KT-Wiz라는 수원을 연고로 하는 신생 프로야구팀도 생겨난다. 수원의 발전 속도는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영상 : 수원의 도약장면
퍼포먼스 : 미디어 퍼포먼스

성이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된다. 수원은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화성문화제 등 지역 축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발전과 도약을 하게 되었다.

제7막 수원의 르네상스

2002년의 함성, '대한민국, 짹짹 짹짹'의 함성과 '오 필승 코리아'의 힘찬 노래가 들려왔다. 2002 한일 월드컵의 성대하고 성공적인 개최로 수원 출신의 스타 박지성이 탄생했다. 수원에 지방 산업단지가 생겨났고 광고 신도시가 탄생했다. 수원을 연고로 한 KT-Wiz 프로야구팀도 생기며 수원의 발전 속도는 급속히 이루어졌다. 이제 수원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광역화 도시급의 인구 125만 도시가 되었다. 도시를 움직이는 것은 도시의 구성원인 시민이다. 시민들이 하나의 힘으로 모일 때, 그리고 문화의 동질성을 느낄 때 도시경쟁력이 제고된다. 폴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 시민이고 시민공동체 문화복원 사업들이 도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수원이 만들어지고 있다.



수원 근현대사극 줄거리

제8막-1 수원의 미래_미래수원_다시 비상하는 꿈을 위하여

7막에서 이어지던 퍼포먼스를 잠시 멈추고 퍼포머가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고 생각에 잠긴다. 정조가 화성을 지을 때 꾸었던 꿈 -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물질과 정신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 -을 회상해 본다. 이때 어린 아이가 등장하여 새롭게 제시되는 이상향의 도시 모습을 영상에서 꺼낸다. 그리고 천천히 종이 접기를 해 새를 만든다. 아이는 새를 하늘에 높이 띄운다. 이때 수원시민의 얼굴 하나하나가 영상으로 나타난다. 그 얼굴들이 새롭게 제시되는 수

원의 이상향과 중첩한다. 아이는 새를 바라보며 손짓을 한다. 종이 새가 날개 짓하는 하늘에서 수천 송이의 꽃이 떨어진다.

영상 : 나는 종이비행기, 수원의 이상향, 수원시민의 얼굴(현장중계)

대합창 : 아름다운 세상 (어린이 솔로 + 어린이합창단)

퍼포먼스 : 비보잉 +플라잉 퍼포먼스

제8막-1 수원의 미래

8막은 수원의 미래로 수원 잠원초 6학년 이태진 어린이가 아름다운 세상을 불렀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이자 희망이다. 어린이합창단의 노래 후 플라잉 퍼포먼스가 공연되었다. 사람들은 하늘 위에 떠있는 공연단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수원의 미래를 상징하는 비상하는 꿈을 직접 하늘을 나는 공연으로 표현했다.

제8막-2 수원의 미래

2015년 8월 15일, 수원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하나의 물결을 일으켰다. 시민들의 평화통일의 염원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의 평화를 가져 올 것이다. 1만여 명의 시민대합창단이 수원시향의 연주에 맞춰 세 곡의 노래를 불렀다. '아름다운 강산', '우리의 소원', '애국가'까지 이어졌다. 모든 시민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열창하며 인권을 외치고, 평화를 노래하며, 통일을 염원했다.



제8막-2 수원의 미래 다시 비상하는 꿈을 위하여

울려 퍼지는 수원 시민의 합창 소리

영상 : 수원시민의 얼굴(현장중계)

음악 : 오케스트라 + 전체시민합창(아름다운 강산, 우리의 소원, 애국가)

■ 시대별 주제곡 7000인 시민대합창



광복70주년을 맞아 어두운 식민지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 희생 위에 오늘이 존재한다. 2015년 광복절 우리들의 행복이 ‘7000인 시민대합창’으로 울려 퍼졌다. 그 울림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었다. 앞으로도 계속 수원의 희망과 꿈이 실현되고 미래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역사의 한 장이 되었다.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시대이다.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면서 그 몫은 시민들에게 있다. 바로 그 시민들의 힘이 '7000인 시민대합창'에서 나타났다. 앞으로 수원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즉 사람이 중심이 되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더불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며 물질적 풍요뿐만 아닌 정신적 풍요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문도시, 문화도시, 생태도시, 역사도시가 될 것이다.

■ 피날레

우리는 식민지라는 어두운 터널을 뚫고 끊임없는 독립투쟁과 주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945년 8월 15일 감격의 해방을 맞았다. 하지만 광복은 오늘날 우리에게 분단이라는 아픔이 시작되기도 하였다. 이번 행사는 광복70주년, 분단 70주년을 생각해 보면서 민족과 조국을 위해 헌신하셨던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고, 지난 70년간 우리시민들이 흘렸던 땀방울과 핏방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앞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자 함이었다. 이젠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시민들이 주도해가는 시대이다. 이에 '7000인 시민대합창'은 인권을 외치고, 평화를 노래하며 통일을 염원하는 새로운 70년의 진정한 평화와 미래의 가치를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가고자 했던 뜻 깊은 행사였다.





7 천인의 목소리를 역사에 새기다

2절

7000인 시민대합창 기념조형물 제작

2015년 8월 15일 광복절에 개최한 '7000인 시민대합창'은 수원시민에게는 광복의 의미와 수원의 정체성을 깨닫는 계기였다. 무엇보다 10,500여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 날은 온 시민의 화합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수원의 저력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역사적인 그 시간을 기리고자 '7000인 시민대합창 기념조형물'을 제작하였다.

일시 2015년 12월10일(목) 10:30~11:20

장소 수원 제1야외음악당

8월 15일에 있었던 '7000인 시민대합창'은 수원시의 새로운 시민참여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의 싹을 틔운 날이다. 행사의 의미를 공감하고 가족단위로 광복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자연스러우면서도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1만 5백여 명이 모여 치러진 감동적인 행사였다. 시민 한 사람 한사람이 서로 공감하며 각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를 하나의 화음을 내면서 서로 화합하고 미래를 지향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8월 15일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있었던 '7000인 시민대합창'이었다. 어머니 가슴에 안겨서 참여한 첫머리가 어린 아이부터 90을 훌쩍 넘기신 어르신까지 뜨거운 열정으로 참여한 1만 5백여 명의 시민들을 기리기 위해 상징조형물 제막식을 인권의 날을 기념하며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가졌다. '7000인 시민대합창'은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모임단위로 도시락과 간식을 들고 삼삼오오 모였고, 진정한 시민참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민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새긴 상징조형물을 통해 새로운 70년을 향해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어 울려 퍼진 '7000인 시민대합창'을 기념하고,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수원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초석으로 삼고자 했다. 또한 그날의 감동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했다. 조형물은 광복70주년의 의미를 살려 태극의 문양을 가운데 넣었고, 위쪽으로 국화인 무궁화 꽃문양을 만들었다. 디자인 및 제작은 수원예총에서 진행했다.

광복70주년
새로운 70년을 향하여!

7000인 시민대합창 제막식

수원시는 광복 70주년의 해인 2015년을 맞이하여 평화·인권·통일을 주제로 1년간 70개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그 중 8월 15일 광복절에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7000인의 시민대합창제'를 개최했다. 순국선열들의 희생으로 얻어낸 광복의 의미와 수원의 정체성을 찾고 온 시민의 화합으로 미래를 지향하기 위한 대합창제는 시민으로 구성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수원시립교향악단' 김대진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진행되었다. 10,500여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 날 시대를 상징하는 노래로 선정된 '아침이슬', '아름다운 강산', '우리의 소원', '애국가'가 대합창으로 울려 퍼졌으며 벅찬 감동과 가슴속 끓어오르는 애국심으로 <새로운 70년>, <희망찬 수원>을 향하여 함께 한 시간을 기리고자 이 조형물을 만들었다.

2015년 12월 10일 수원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제작 수원예총



7000인 시민대합창 기념조형물







강 진 갑

경기대학교수/ 문화예술위원장

광복70주년 기념 7000인 시민대합창은 작은 시작이지만 큰 출발이다

광복70주년 행사의 주역은 수원시민이다. 특히 7천명의 시민대합창에 참여한 시민들이 중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것이 추진위원이고 수원시 공무원이다. 이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었기에 이 같은 행사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함께 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7000인 시민대합창'은 당시 수원문화재단 홍철욱 축제단장이 낸 아이디어다.

기획 단계에서 무리한 계획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추진 위원 의견이 모아져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8월 15일 KBS가 삼암경기장에서 연예인과 함께 8·15 기념 7만명 대합창제를 기획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 행사와 겹치면 수원 시민대합창제가 빛이 나지 않을 것 같다며, 8월 15일을 피해 8월 12일에 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시민 7천명이 자발적으로 모이면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행사인데 광복절에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채택되어 8월 15일하게 된 것이다. 8월 15일 저녁 7천명이 넘는 시민이 수원 야외음악당에 모여 '애국가'와 '아침 이슬', '아름다운 강산', '우리의 소원'을 노래한 모습은 아주 오래 기억될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한국문화사에서 7천명 이상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합창한 사례를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듣지 못했다. '7000인 시민대합창' 기획단계에서 이 행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2016년에는 7천1백명 합창제, 2017년에는 7천2백명 합창제를 열자는 의견이 많았다. 2016년 광복절에도 이 행사가 열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수원 시민을 상징하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음악으로 하나 되던 그날처럼
진심의 소통을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김 대 진

수원시향 상임지휘자 / 7000인 시민대합창 지휘

수원시, 예술단과 '7000인 시민대합창'을 기획하면서 그 시대를 연상시키는 대표적인 음악을 선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인원이 함께 부를 수 있을지였어요. 행사 당일 리허설을 하는데 7천명이 같이 합창을 하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놀라웠습니다. 한 지휘자가 7천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나에겐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음악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는 말은 때론 비현실적이고 공허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다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정치, 경제 그 어떤 분야도 할 수 없는 것을 음악이 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현장에서 지도하셨던 분들, 걸으러 드러나지 않았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수고가 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미 오시는 분들이 정신적인 준비가 되어 오시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죠.

나는 음악을 할 때 진심의 소리를 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날은 바로 그 진심의 소리를 만드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기계나 기술로도 흉내 낼 수 없는 마음의 소리, 7천명의 진심의 소리가 어떤 것인지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소통을 향한 노력은 혼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2015년 8월 그 날의 마음과 자세로 산다면 사회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7000인 시민대합창은 또 하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정 창 준

수원시립예술단 사무국장/ 7000인 시민대합창 지원

저는 수원시립합창단의 사무국장으로서 2015년 3월 28일 화성행궁 광장에서 있었던 기념음악회와 8월 15일의 '7000인 시민대합창'에 참여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에서 합창부분의 리드를 담당했는데, 일반 시민들, 수원시립합창단과 아마추어 합창단이 한 목소리를 내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했습니다. 많은 단체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 팀별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연습하는 과정이나 애국심으로 가득한 무대는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합창으로 하나가 되는, 또 하나의 합창 역사를 남긴 최고의 행사였습니다.

아마추어 합창단을 지도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합창단원들에게 연습과 리허설 과정들이 힘든 작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 중에 합창단원들이 감동하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들었습니다. 광복70주년 기념행사는 8월이면 시민들이 함께하는 광복절 기념행사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광복의 의미와 애국심을 후손들에게 교육하는 수원만의 축제로 자리 잡길 소망합니다.



한마음으로 나라사랑하는 국민이
아름다웠던 날이었습니다

이 관 호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
7000인 시민대합창 지원

수원시에서 '7000인 시민대합창'을 기획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독교계의 교회 찬양대 주축으로 1500명이 모여 함께 하였습니다. 수원 시민 10,000명 이상의 합창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한목소리로 합창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표현 방법이 달라도 한마음으로 나라사랑하는 국민이 아름다웠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신 복이라 생각합니다. 더욱 더 발전하여 세계에 큰 유익을 주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수천, 수만의 국민이 좋은 일로, 아름다운 일로, 축하하는 일로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 공간, 모습의 일들이 더더욱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김혜림

수원유스콰이어 지휘자 / 7000인 시민대합창

'7000인 시민대합창'에 수원을 대표하는 수원시립교양악단, 수원시립합창단과 함께 수원을 대표하는 청소년 합창단자격으로 수원유스콰이어가 참여했습니다. 수원유스콰이어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저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흔히 듣던 광복절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너무 귀한 기회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같이 참석했던 학부모님들도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맡은 역할인 수원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들, 즉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바로 그 주역들이 될 거라는 소망이 생겨 뿌듯했습니다. 광복절 행사에 직접 참여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인데 아이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게 돼 너무 기뻐했습니다. 합창을 연주하는 여러 종류의 무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의미 있는 무대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또한 큰 행복이었습니다. 음악이란 장르가, 그 중에서도 특히 합창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또 한 번 보여준 행사였습니다. 이처럼 음악으로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합창이 단발성이 아닌 계속 이어지는 귀한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했던 행사를 멋지게 치러내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석찬

월드프라이م 대표 / 행사 기획

애국은 가슴을 뛰게 했고
나는 역사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7000인 시민대합창’ 행사 때 전체 시스템(무대, 음향, 조명, 기타 시설물)과 스태프 운영을 맡았습니다. 일반 공연과는 달리 역사적 인물을 조명 한다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하면서 기대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7000명의 합창이 가능하겠는가하는 걱정이 있었지요. 하지만 행사 당일 삼삼오오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걱정은 사라지고, 수많은 시민들이 무더위에 흘날리는 태극기를 손에 들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애국은 세대를 불문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자신이 역사에 얼마나 무지 했는지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연출 장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애국가를 부르면 공연장 뒤편에서 대형 태극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연출해야 했는데, 리허설 때는 바람이 많이 불어 태극기를 제 위치에 띄우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많은 스텝들이 고생을 한 것을 알기에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태극기는 무사히 띄워졌고, 애국가와 함께 많은 시민들의 탄성이 어우러지던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명장면으로 내 사진첩의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3장

또 다른 역사, 수원시민이 만들어가다

1절 시민공모사업 : 8개의 발자국

2절 시민단체 자율사업 : 수원의 독립운동가
임면수 선생을 추모하다

INTERVIEW



8개의 발자국

시민공모사업

2015년 광복70주년을 맞아 그 의미와 정체성을 찾고 사회통합과 미래 지향적 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시민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하였다.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시민공모사업은 올바른 역사 인식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진정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진행되었다.

화해와 화합을 통해 밝은 미래를 지향하고 시민과 공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수원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총 8개의 사업이 선정되었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된 이번 시민공모사업은 수원시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자부심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수원시에서 추진한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본받을 만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01

춤추는 독립군가 (수원시민 플래시몹)

일제치하 당시 수원의 독립 운동가들의 활동을 재연한 퍼포먼스이다. 7000인 시민대합창을 수원시민과 함께 독립군가를 부르며 플래시몹을 재연함으로써 역사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 아트컴퍼니 예기가 주관하고 (재)수원문화재단이 후원하여 진행된 이 공모 사업은 2015년 8월 12일부터 13일, 8월 15일에 수원시청 대강당과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진행되었다.
- 일자별 진행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일 자	장 소	참여인원	관람객
2015. 8. 12.	수원시청	100명(스텝 10명, 시민 90명)	11,000명
2015. 8. 13.	수원시청	100명(스텝 10명, 시민 90명)	
2015. 8. 15.	수원 제1야외음악당	100명(스텝 10명, 시민 90명)	

담당부서_ 수원문화재단 문화사업부

02

7000인 시민대합창 기념촬영

2015년 광복70주년기념 사업인 '7000인 시민대합창'에 참여한 참여자들을 위해 즉석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원시의 역사와 시민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가 주관하고 (재)수원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 7000인 시민대합창 기념촬영은 2015년 8월 15일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이루어졌다.
- 9명의 사진작가가 참여하고 7000인 시민대합창에 참석한 인원 1,000여명을 사진 촬영하고 사진을 제공하였다.

담당부서_ 수원문화재단 문화사업부



03

평화통일 염원의 북을 울려라

광복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풍물패 300인이 길놀이, 합굿, 대북공연을 펼쳤다.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이 공연은 '7000인 시민대합창'에 함께 참여하고 진행함으로써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 2015년 8월 15일 올림픽 공원에서 수원 제1야외음악당까지 이어지는 공간에서 이어진 이 공연은 풍물굿패 삶터에서 주관하였으며 (재)수원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 총 23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300명의 인원이 공연을 펼쳤으며, 10,000명의 관람객이 함께 하였다.

담당부서_ 수원문화재단 문화사업부

04

선주민, 이주민 소통화합 프로젝트

사회통합과 미래 지향적 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시민아이디어”공모 사업 중 하나이다. 이주민과 선주민간 지역의 사회적 통합과 다문화융합 등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전통의상체험, 통합바자회, 한국·중국 전래놀이 등을 체험하고 중국한족 춤, 방송댄스, 통기타, 농악 및 엔젤댄스 등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 2015년 10월 25일에 진행된 ‘선주민, 이주민 소통화합 프로젝트’는 수원 제2야외음악당에서 수원희망교육시민포럼이 주관하고 (재)수원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 본 사업을 진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체험 : 19부스(전통의상체험, 통합바자회, 한국·중국 전래놀이 등)
 - 공연 : 9팀(중국한족 춤, 방송댄스, 통기타, 농악 및 엔젤댄스 등)
 - 관람객 : 1,000명

담당부서_ 수원문화재단 문화사업부

05

70년의 노래

2015년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시인 고은 선생님의 작품인 '70년의 노래'를 지역단체와 수원시민이 함께한 시극 공연으로 연극과 합창 등으로 구성되었다.

- 2015년 9월 20일 율천동 청개구리공원에서 진행된 이 시극 공연은 시민극단 율이 주관하고 (재)수원문화재단 후원하였다.
- 당일 참석한 관람객은 수원시민 등 500명이었으며, 함께 참여한 단체는 시민극단 율, 밤송이 합창단 등 5개 단체였다.

담당부서_ 수원문화재단 문화사업부

06

인형극으로 만나는 수원의 독립운동가

2015년 광복70주년을 맞아 수원시의 어린이들에게 인형극을 통해 수원의 독립 운동가를 알려주고 순국선열의 뜻을 깨닫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진행된 시민공모사업의 하나이다. 수원의 독립운동가 이선경, 이현경 자매의 이야기를 인형극으로 펼쳤으며 극단 달빛이 수원시의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공연하였다.

- 2015년 11월 10일에서 13일, 4일간 진행된 이 사업은 지동초등학교외 4개 초등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극단 달빛이 주관하고 (재)수원문화재단이 후원하였다.
- 인형극으로 만나는 수원의 독립운동가 공연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다.

일 자	장 소	참여인원	관람객
2015. 11. 10.	영통구 효동초등학교	9명	공연 횟수 1회 / 200명
2015. 11. 11.	팔달구 지동초등학교	9명	공연 횟수 1회 / 200명
2015. 11. 12.	장안구 정천초등학교	9명	공연 횟수 1회 / 200명
2015. 11. 13.	권선구 능실초등학교	9명	공연 횟수 1회 / 200명

담당부서_ 수원문화재단 문화사업부

07

수원지역 예술단체 합동공연 “수원의 함성”

광복70주년을 기념하며 진행한 수원의 독립 운동가들을 재조명하는 관내 예술단체의 합동공연이다.

- 수원지역 예술단체 합동공연 “수원의 함성”은 2015년 11월 18일, 12월 2일 2일간 삼일상업고등학교(11. 18.)와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12. 2.)에서 이루어졌다. 이 공연은 행궁동 금빛합창단이 주관하고 (재)수원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진행하였다.
- 수원지역 예술단체 합동공연 “수원의 함성”의 공연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공연 2회, 5개 단체 50명 참여(금빛봉사단, 극단성, 청소년·노숙인·실버극단)
 - 1,900명 관람

담당부서_ 수원문화재단 문화사업부

08

수원관문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

2015년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마지막 사업으로써 광복70주년을 기념하는 대형태극기 게양대를 수원 비상활주로변 소공원에 설치하고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한해의 긴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수원관문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 사업은 사)한국생활국악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재)수원문화재단 후원하였다.
- 수원관문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 사업을 진행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규격	수량	장소
25M	1개(소)	비상활주로변 소공원

담당부서_ 수원문화재단 문화사업부



수원의 독립운동가 임면수 선생을 추모하다

2절

시민단체 자율사업

광복70주년을 맞아 수원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발견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수원시민들의 인식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수원의 독립운동가인 필동 임면수 선생의 업적과 뜻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이 펼쳐졌다. 2015년 한 해 동안 필동 임면수 선생에 대해 교육하고 숭고한 정신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수원의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 기념 사업



2015년은 광복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을사늑약 110년이 되자,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 6.15남북공동선언 1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래서 평화와 인권, 그리고 통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간절하게 다가온다. 일제강점기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나라를 되찾고자 한 독립운동은 평화와 인권을 향한 위대한 투쟁이었다. 그러한 독립유공자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이 수원이다. 그 가운데 임면수(林勉洙, 1874~1930) 선생이 있다. 호는 필동인데, 한자로는 필동(必東) 또는 필동(弼東)이라고도 하였다. 임면수 선생은 대한제국기 삼일학교를 설립하고 국채보상운동 등의 수원지역 애국계몽운동을 이끌면서 독립을 향한 저항의 움직임을 지속하였으나, 결국 일제의 고문 후유증으로 수원에서 생을 마감하셨다.



필동 임면수 선생의 업적과 생애는 수원대의 박환 교수에 의해 발굴되면서
당시 수원지역의 독립운동은 어떻게 행해졌고, 우리의 역사의식은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지 연구되었다.

광복을 맞아 수원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발견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인식에 힘입어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고귀한 업적과 뜻을 추모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시민적 차원에서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선생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근대 수원100년을 대표하는 인물인
필동 임면수 선생의 모범적 삶을 기리고자 하였다.

필동 임면수 선생 기념사업은 수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계기가 되었고, 더불어 평화·인권·통일을 꿈꾸며
조국과 이웃을 생각하는 후손들을 위한 100년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필동 임면수 선생은

일제강점기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나라를 되찾고자 한 독립운동은 평화와 인권을 향한 위대한 투쟁이었다.

그러한 독립유공자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이 수원이다.

그 가운데 필동 임면수(林勉洙, 1874~1930) 선생이 있다.

근대 수원을 대표하는 교육자이자 독립 운동가이다.

임면수 선생은 수원에서 태어나 양잠학교와 화성학교에서 근대적 학문을 배우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한 애국계몽운동을 펼쳤다.

이에 삼일학교 설립자로 교감과 교장을 역임하며 수원의 젊은 인재들을 길러냈고, 1907년 수원의 국채보상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또한 서울 상동교회의 전덕기 목사와 이회영·이동휘·김구 선생 등과 신민회 결성에 관여하였다.

나라가 일제에 의해 망하자 1912년에 가족과 함께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투쟁을 계속하였다. 특히 신흥무관학교 후신인 양성(養成)중학교 교장으로 독립군을 양성하였고, 부민단 결사대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투쟁의 와중에 1921년 일제에 체포되어 평양감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받았다.

석방되어 고향 수원에 돌아왔으나 집 한 칸 없는 상황이었고, 고문의 후유증으로 1930년 사망하여 세류동 공동묘지에 묻혔다.

1964년 세류동이 개발되면서 선생의 묘는 년 삼일학교 교정으로

이장하였다가 다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면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임면수 선생 연보

1874. 6. 10. 수원군 수원면 북수리에서 출생
- 1903 ~ 1905 수원 양잠학교 졸업, 사립 화성학교 졸업
- 1903 ~ 1911 삼일학교설립주도. 이후 교감 및 대리교장 역임
집터와 과수원 터를 삼일여학교에 희사
- 1907 수원 국채보상운동 주도
- 1908 상동청년학원 및 신민회 활동
1912. 2. 나라가 망한 뒤 만주 서간도 환인현으로 망명(신민회 경기도 대표자격)
- 1915 환인 양성중학교(養成中學校) 교장으로 독립군 양성
- 1910년대 중반 부민단(扶民團) 결사대(決死隊) 대원으로 활동
- 1919 이후 통화현에서 해룡현으로 근거지 옮겨 항일투쟁 지속
망명 이후 임면수보다 임필동(林필동, 林彌東)으로 널리 알려짐
- 1919 장남 임우상 군자금 조달임무장 동사함
- 1921 체포, 평양감옥에 투옥됨. 심한 고문을 당함
- 1922 출옥 수원으로 귀향
1922. 8. 수원소작인상조회 참여
1923. 3. 민립대학 설립 발기인
1923. 5~12. 아담스기념관 건축공사 감독
1930. 11. 29(음력) 수원에서 순국, 세류동 공동묘지에 안장

현양사업

1964. 4. 25. 필동 임면수 선생 묘비 삼일학교에 건립(탄생 90주년)
- 1980 대통령표창
- 1990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국립 현충원 안장
2015. 2. 26.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선생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족식
2015. 8. 15.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선생 동상' 건립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 기념사업 활동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족식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경기르네상스포럼, 삼일학원, 수원문화원, 수원여성회,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의 시민단체가 모여 수원의 모범적인 독립 운동가를 발굴하기로 의견 모았다.

교육자로서 독립운동가로서 삶을 사셨던 필동 임면수 선생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2015년 2월 26일에 필동 임면수 선생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필두로 하여 한 해 동안 펼칠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동상제작

수원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임면수 선생의 뜻과 얼을 기리고자 선생의 동상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5년 3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된 이 사업은 여러 작가들이 출품한 작품을 공개 심사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김석희 조각가의 '숭고한 삶' 이 여타 작품에 비해 고층에 뛰어나고 표현력이 월등하며 임면수 선생의 애국적인 삶을 잘 표현되었다고 평가되어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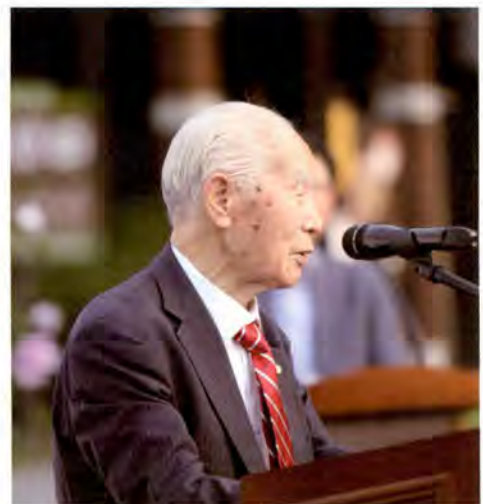


필동 임면수 선생 학술제

‘필동 임면수의 국내활동을 통해본 자강운동’, ‘만주지역에서의 필동 임면수의 민족운동’, ‘임면수 선생에 대한 추모활동’이라는 세 개의 제목으로 필동 임면수 선생 학술제를 개최했다. 2015년 7월 1일에 진행된 필동 임면수 선생 학술제는 토론을 통해 임면수 선생의 업적과 당시 시대상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토론에 이어 공연과 모금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2015년도 광복70주년 기념 광복의 길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광복은 독립, 평화, 통일, 인권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는 참으로 어렵고 벅찬 민족사적 과제이다. 이 민족사적 과제를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궁금했다. 그래서 광복 후의 민족사를 돌이켜보고 21세기 한국의 미래상을 그려보고자 프레젠테이션 경진 대회를 개최했다. 차세대 리더들이 그리는 향후 70년 뒤 한국의 미래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이 경진대회가 민족의 청사진을 전시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서류 심사과정을 거쳐 중·고등부분 14팀, 대학·일반 8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대학·일반은 '광복은 디딤돌이다'라는 제목으로 출전한 김성호, 심참술, 성윤희(경희 대학교) 팀이 최우수상을, 중·고등부분은 '광복은 나침반이다'라는 제목으로 출전한 정의창, 김동욱, 설동엽(동원고등학교)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 동상 제막식

약 6개월간 공개 공고 및 심사과정을 거쳐 당선되었던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 동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2015년 8월 15일, 88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된 동상 제막식은 여러 내빈을 모시고 축사와 축하공연이 진행되었다. 필동 임면수 선생 동상 제막식이 끝나고 제1야외음악당에서 수원 7천인 시민대합창으로 이어져 필동 임면수 선생을 비롯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분들의 헌신적인 삶을 기억하는 후손들의 바람을 표현하고자 했다.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 홍보 및 교육

2015년도 한 해 동안 수원의 다양한 광복70주년 기념행사 현장에 대부분 참가하여 필동 임면수 선생을 홍보하였다. 수원 곳곳에서 진행되는 광복70주년 기념행사에서 진행된 홍보활동은 수원시민들과 학생들에게 필동 임면수 선생의 행적과 정신을 알리고 교육하는 계기가 되었다.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



독립유공자를 많이 배출한 도시,
수원에서 더 많은 연구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한 준 택

경기르네상스포럼 상임이사 /
필동임면수선생 기념사업위원회

저는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처장 한준택입니다. 필동 임면수 선생 기념사업회를 조직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광복70주년을 맞아 특히 수원의 독립운동가를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기려 동상을 제막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중 하나라는 신념으로 필동 임면수 선생 기념사업위원회에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독립투사를 기억하지만 100년 전 이 땅 수원에서 어떤 분들이 시대의 아픔을 고민하고 실천했는가를 망각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70주년을 맞이하여 수원지역의 독립 운동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업적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필동 선생의 동상은 수원지역에서 세워진 독립운동 조형물로 최초라는 의미를 지니고 정부나 관의 도움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세워진 조형물이라는데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은 화성을 포함하여 독립유공자를 많이 배출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수원에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평가가 아직도 미흡합니다.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의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7000인 시민대합창은
의미와 실천이 동행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임형수

광복70주년기념 행사 '7000인 시민대합창' 총연출

지면을 빌어 함께 사업을 진행했던 수원시청관계자분들과 유관단체, 예술단체,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광복70주년 기념행사는 많았지만, 유명인의 참여 없이 순수하게 관과 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원 시민의 힘으로 행사를 치러낸 것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참고할 만한 지역의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만여 명이 넘는 수원시민이 함께 합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행사 당일 드레스 코드인 흰색 티셔츠를 한 분도 빠짐없이 입고 합창을 하는 모습은 감동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 후 질서 정연하게 귀가하는 모습과 쓰레기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이 그 거대한 시민 문화행사를 치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광복70주년을 맞아 우리는 또 다른 '광복'의 과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1945년 광복이 외세로부터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기회였다면, 광복70주년은 지금까지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딛고 더 발전적이고 성숙한 정치, 사회, 문화,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제를 부여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미와 실천은 동행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수원시와 수원시민의 광복70주년의 기념행사

'7000인 시민대합창'은 의미와 실천이 동행한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수원시가 앞으로도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지자체가 되어 타 지자체들의 모범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수원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수원시만의 경쟁력과 고유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
시민참여홍보위원회 위원장

광복 70년, 나라의 미래전략과
통일을 준비하는
또 다른 70년이 될 것입니다

수원 시민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참여하다보니 시민참여홍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을 함께 하면서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의 용기와 희생을 생각하며 오늘 이 시대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역사를 똑바로 알고 늘 되새기면서 창조적인 발전으로 승화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복70년을 기념하며 나라의 미래 전략과 통일을 준비하는 또 다른 70년을 준비해야겠지요.

광복70주년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라면 수원시를 대표하는 각계 각층 전문가 분들과 어울리며 차원 높은 주제를 다룬 순간 순간들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가 이렇게 자료를 발굴하고 후대에 물려 줄 행사를 잘 마무리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중앙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 역사를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일이 전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따뜻한 감동이었습니다

박 세 린

아트컴퍼니 예기 홍보팀장 / 행사 홍보

2014년에 재학 중에 조기 취업이 되어 아트컴퍼니 예기에 입사하였습니다. 운이 좋게도 뜻 깊은 광복70주년기념 수원의 독립만세운동 재연퍼포먼스 ‘수원 그날의 함성’과 ‘7000인 시민대합창’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수원 그날의 함성’ 행사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하는 시민, 학생, 공방 상인들의 모습을 재연하기 위하여 약 천 명의 수원 시민 분들을 모으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화성문화원에서 빌려온 민복을 입고 행사에 참여하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상을 관리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부심도 느끼시는 것을 보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더 큰 규모로 기획된 ‘7000인 시민대합창’에서 홍보팀장인 저는 온라인 홍보를 통해 수원시민들과 고감을 주고 받은 것이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함께’라는 것에 대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광복이 된지 70년이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만큼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소리를 내주는 시민 분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함께’라는 것에 대한 따뜻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처럼 역사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잊힐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분들의 아픔에 대해 우리가 감히 말 할 수는 없지만 수 없이 많은 분들의 희생과 외침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역사가 오히려 점점 더 잊혀져간다는 사실이 비통합니다. 수원시에서 광복70주년을 맞아 당시를 재연하고 기념할 수 있었던 덕분에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역사에 대해 관심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나

매향여자고등학교 | 7000인 시민대합창 참여

저는 학교에서 광복관련 합창봉사가 있다기에 '합창'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7000인 시민대합창'에 참가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라던가 특히 합창의 경험은 없었던 터라 조금 전문적인 합창을 기대하고 봉사 신청했던 것도 있었는데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른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다 같이 악보를 보며 합창을 하는데 광복을 맞이한 한국의 국민으로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원거주시민은 아니라서 처음엔 무관심했던 편에 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민이 아니라서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것도 아니고, 지난 광복시절을 보내오지 않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수원, 한국의 국민으로서 굉장히 감동적임을 느꼈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그 시대의 힘든 나날을 보냈다가나 독립운동을 하여 광복을 이뤄본 것은 아니었으나 이번 행사를 통해 조금 더 생동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광복70주년이 아닌 광복 자체가 우리에게 잊어서 안 될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복' 그 자체에는 우리나라의 해방도 있겠지만 그 해방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으니 그 희생을 기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가 독립 70년을 기억하던 순간들

수원시 단위사업

수원시는 매년 수원시민과 수원을 위해 각 부서마다 다양한 정책, 문화, 교육, 사회복지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각 사업이 늘 의미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2015년도는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더 부여하였다. 이에 지난 한 해 수원시가 이룬 사업성과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역사적 의미를 기록으로 남긴다.

01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구성 운영

담당부서_ 정책기획과

개요_ 2015년 광복70주년을 맞아 평화·인권·통일을 주제로 한 '광복70주년 기념사업'에 대하여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와 운영으로 사업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어 내고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였다.

-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는 시의원,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총 12명의 인원으로 구성·운영하였다.
- 총 3차의 논의 회의와 3차의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구조의 명칭·역할 결정, 소위원회 구성 운영 결정 등을 하였다.
-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의 12인은 아래와 같다.
김영규(수원시 안전기획조정실장), 황인성(한신대학교 초빙교수),
백종현(수원시의회 의원), 이재익(수원보훈지청 지청장),
오동석(아주대학교 교수), 강진갑(경기대학교 교수),
박환(수원대학교 교수), 황용원(수원YMCA 사무총장),
윤범모(가천대학교 교수), 이무근(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
김형목(독립기념관 연구원), 송영완(수원시 정책기획과장)

02

생존 독립운동지사 참여 제야타종

담당부서_ 정책기획과

개요_ 2015년 광복70주년을 맞아 우리지역과 연관되어 독립운동을 전개하신 생존하고 있는 지사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였다.

- 2015년 1월 1일(목) 00:30, 수원SK아트리움, 행궁광장, 여민각에서 수원시민이 참석하고 생존 독립운동 지사 2명,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유관기관, 자원봉사, 종교계, 다문화 가족 등 340여명을 초청하여 송년음악회, 제야콘서트, 제야타종, 떡국 나눔 행사 등을 진행하였다.
- 이영수, 오희옥 두 분의 생존 독립 운동지사를 모시고 제야타종식을 진행함으로써 실제 독립운동 사례 소개 및 나라사랑 중요성을 확산시킴으로써 나라사랑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그리하여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진우 수원시의회 의장이 함께 참여하여 제야타종 진행 및 행사에 참여한 시민에게 지사들의 독립활동 내용을 소개하여 생존 독립운동 지사들의 자긍심을 높였고, 2015년 광복70주년 새해를 맞는 시민에게 광복과 나라 사랑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03

생존 독립지사와 함께하는 2015 시무식

담당부서_ 정책기획과

개요 생존하고 있는 독립운동 지사들의 자긍심과 긍지를 높이고 광복70주년에 대한 공직자와 시민의 인식 확산은 물론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 2015년 1월 2일(금), 시청 대강당(별관 2층)에서 진행된 '생존 독립지사와 함께하는 2015 시무식'은 이영수, 오희옥 두분의 생존독립지사와 시민, 공직자(6급 이상)가 참석하였으며 신년사와 더불어 신년음악회를 통해 2015년 새해를 시작하였다.
- 염태영 수원시장은 2015년도 시무식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영수, 오희옥 지사의 독립운동 활동을 소개하여 참석한 독립운동지사들의 자긍심과 긍지를 높였으며, 시민과 공직자로 하여 광복70주년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사명을 느끼도록 하였다. 그리고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04

독립운동가 후손 및 광복회 수원시지회 초청 설명회

담당부서_ 정책기획과

개요 2015년(을미년), 광복70주년을 맞아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기념사업'을 생존 독립운동가 및 관련 단체에 설명 드리고 조언을 구하는 형식을 통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였다.

- 독립운동가 후손 및 광복회 수원시지회 초청 설명회는 2015년 1월 26일(월), 이화정(수원시청 뒤편)에서 개최되었고 수원시에서 시장, 안전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3인, 광복회 수원시지회 협의회에서 이영수(생존지사), 오희옥(생지사), 유종하, 양원근, 이덕형, 강창규, 임남규, 안용순(신병치료) 8인, 광복회원인 유재신, 김영렬 2인이 참석하였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로, 시장님 인사말 및 '광복70주년 기념사업'개요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 설명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 근현대사의 재조명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고 미래사회 지향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내실 있는 시민참여형, 시민통합형, 미래지향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05

독도의 역사적 진실 자료 전시회

담당부서_ 권선구 행정지원과

개요_ 독도 역사적 진실자료 순회전시를 개최함으로써 광복70주년에 대한 역사적 의미의 재조명과 수원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였다.

-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독도의 역사적 진실 자료 전시회는 권선구청 및 동 주민센터, 관내 20개 초·중·고등학교와 11개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 주민 접근성이 뛰어난 장소에 독도진실 자료 53점(판넬형 8, 액자형 45)을 비치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06

전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 전개

담당부서_ 행정지원과

개요_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며 모든 시민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실시하였다.

- 전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은 1월부터 연중 진행되었고 특히 광복절 등 주요 국경일에는 집중기간으로 운영하였다.
- 모범아파트단지, 모범마을을 선정하여 태극기 상시거리를 운영하였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확대 전개하였다. 각종 홍보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우수 추진 부서에 대해 시상하기도 했다.
- 특히 우만1동에서는 11개 단체연합회에서 태극기를 구매해 기증 운동을 실시하였다. 평동의 태극기 달기 모범아파트 중 청구2차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태극기를 구입하여 전 세대에 보급하고, 직접 태극기를 달아주어 나라사랑 실천의 본보기가 되었다. 국기달기 모범거리는 16.7km, 15개소에서 시행되었다.

07

수원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담당부서_ 정책기획과

개요 2015년 광복7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평화·인권·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근현대사에서의 수원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을 통해 새로운 미래의 좌표로 삼을 수 있는 8·15기념행사, 국내외 학술대회, 문화·예술행사, 출판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원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 백종헌 의원 등 12인(김진관, 장정희, 박순영, 양진하, 조명자, 조돈빈, 심상호, 염상훈, 명규환, 한명숙, 이철승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015-15수원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30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되었다.
- 조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위원회 기능 ,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 집행위원회 운영

08

제56회 수원포럼 사도세자와 정조 그리고 수원

담당부서_ 행정지원과

개요 역사는 현재를 바라보는 창이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만들어 준다는 말에 따라 수원시 공직자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의 일환으로 개최된 제56회 수원포럼은 한가람 역사연구소 소장인 이덕일 사학자를 모셔 <사도세자와 정조, 그리고 수원>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 제56회 수원포럼 <사도세자와 정조, 그리고 수원>은 2015년 2월 26일(목), 수원시청 대강당(별관 2층)에서 수원시 공무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의 참석으로 진행하였다.



09

수원시'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

담당부서_ 정책기획과

개요 2015년 광복7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평화·인권·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지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수원시'광복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은 2015년 2월 26일(목), 시청 중회의실(별관 2층)에서 개최되었다.
- 수원시'광복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을 통하여 추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수원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연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위촉직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였다. 각 위원장 및 간사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 공동위원장 황인성(한신대학교 교수)
 - 부위원장 임남규(광복회 수원시지회)
 - 부위원장 김혜숙(매향중학교교장)
 - 학술편찬위원회 위원장 박환(수원대학교 교수)
 -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강진갑(경기대학교 교수)
 - 시민참여홍보위원회 위원장 장성근(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10

수원의 독립 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 기념사업

담당부서_ 정책기획과

개요 수원에서 태어나서 1908년 수원의 국채보상운동 주도와 1911년 만주 서간도의 신흥무관학교 분교인 양성중학교 교장으로 독립군을 양성한 필동 임면수 선생의 업적을 기림은 물론, 지역의 통합과 정체성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이사업은 필동 임면수선생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순수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 필동 임면수선생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발족식을 시작으로 임면수 선생 학술제, 광복70주년 기념 광복의 길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독립운동가 임면수선생 동상 제작 설치를 함으로써 기념사업을 마무리하였다.



11

하나를 위한 모두 그리고 모두를 위한 하나

담당부서_ 정책기획과

개요_ 3·1절을 맞아 국권회복을 위한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정신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의식을 확산시키고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시민참여의 붐을 조성코자 하였다.

- 2015월 3월 1일(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 및 인근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수원시민 400여명이 참석하고 수원희망교육시민포럼이 주관하고 평화나비, 중부학부모폴리스, 나누리병원에서 함께 참여, 협조하여 주었다. 행사 내용은 기념의례를 통해 광복70주년의 의의를 설명하고 평화의 메시지 전달과 더불어 태극기, 피켓, 전단지 나눠주기 등의 캠페인을 벌였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제목으로 플래시몹을 펼쳤다. 기타 부대행사로 는 평화나무 소망적기, 평화영상메세지 촬영, 태극기 핸드프린팅 등이 함께 진행되었다.



12

일본군 위안부 관련 특별순회전시 '마르지 않는 소녀의 눈물'

담당부서_ 광교박물관

개요_ 광복70주년과 제96회 3·1절 및 수원평화비 설치 1주년을 기념하여 일본군'위안부'관련 특별 패널 순회전시를 개최하고, 시민들에게는 위안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 “마르지 않는 소녀의 눈물” 일본군 '위안부'관련 특별 순회전시는 2015월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원광교박물관, 올림픽공원, 수원화성박물관, 수원박물관, 호매실 도서관 등 5개소에 전시하였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개요, 나눔의 집 및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소개, 일본군 위안소 분포도, 피해자들의 인생과 증언, 나눔의 집 할머니들, 할머니들의 그림 이야기, 수원 평화비(평화의 소녀상) 등 38점 패널을 야외에 전시하였고 총 43,072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13

수원시민 인문·교양 아카데미 운영

담당부서_ 교육청소년과

개요_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2015년 수원시민 인문·교양 아카데미」를 통해 광복70주년과 관련된 지역 역사를 학습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 2015년 3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청소년문화센터와 장안구민회관에서 총 20회의 강연을 진행하였다. 수원시민 인문·교양 아카데미 제2회 강연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가 수원시민 350여 명을 대상으로 「광복 70년, 피어린 투쟁의 역사와 수원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하고, 수원시민 인문·교양 아카데미 제14회 강연은 장안구민회관 한누리아트홀에서 수원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명기 명지대학교 교수가 「격변기에 반추하는 병자호란의 역사적 교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14

광복70주년 나라꽃 무궁화 식목행사

담당부서_ 생태공원과

개요_ 광복70주년을 기념하여 보훈단체 및 시민과 함께 무궁화 동산을 조성함으로써 나라사랑 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 2015년 3월 25일, 무궁화 축제 개최지인 만석공원 일원에서 600명(수원시 100, 수원보훈지청 100, 시민 400)이 참석하여 무궁화 120주를 식재하고 비료 주기와 무궁화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다. 보훈단체 및 시민과 함께 나라꽃 무궁화 동산 조성으로 광복70주년 의미를 제고할 수 있었다.



15

수원 여성민족운동가 학술강연회 개최

담당부서_ 정책기획과

개요_ 일제 강점기 수원지역에서 활발하게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을 전개한 여성의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자랑스러운 수원여성민족운동가의 치열했던 삶과 정신을 온전히 시민에게 전달하여 자긍심 고취와 애郷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 2015년 3월 28일(토), 수원화성박물관 영상실에서 진행된 수원 여성민족운동가 학술강연회는 수원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일반시민, 학생 등 150명이 참석하였다.
- 학술강연의 주요 내용은 <여성인권의 선구자 나혜석>이란 주제로 독립기물관 김형목 선임연구원이 발표하고 <의로운 수원기생 김향화>의 주제로 수원시 문화예술과 이동근 학예연구사가, <수원의 유관순, 이선경>을 주제로 수원박물관 한동민 학예팀장이 하였다.



16

수원의 독립운동사 재연 퍼포먼스 “수원 그날의 함성”

담당부서_ 정책기획과

개요_ 수원시는 광복70년이 주는 역사적 의미와 무게에 걸맞게 온몸으로 조국을 사랑했던 자랑스러운 수원여성독립운동가 세분의 치열했던 삶과 정신을 온전히 재연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계기로 지역 정체성과 주체성, 나아가 조국과 민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시민축제인 수원시'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서막을 열었다.

- 2015. 3. 28(토)에 개최된 '수원, 그날의 함성'은 수원의 3·1운동과 인권을 주제로 하여 화성행궁 광장(특설무대)에서 수원시'광복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주최로 만세 퍼레이드와 시민참여 총체극으로 꾸며졌으며 777명이 출연하였다.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생존 독립지사, 시인 고은, 학생, 시민참여단(공모), 전문예술인, 시립합창단 및 4개구 여성합창단 등이 참여하였고 수원시, 수원시의회가 후원하였다.



17

테마와 해설이 있는 문화유적 답사

담당부서_ 수원박물관(운영팀)

개요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우리의 역사문화 현장에서 인문학을 통하여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우리고장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진행된 테마와 해설이 있는 문화유적답사는 수원, 화성, 오산 3개시에서 초·중·고 학생 및 가족이 참석하였고 8회 운영하였다. 테마, 주제를 갖고 지역 전문가 및 학예연구사가 해설함으로써 수원권 문화유적 이외의 지역까지 폭넓은 인문학 학습을 하였다.



18

광복70주년 기념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담당부서_ 정책기획과

개요 수원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의 흐름과 기조설정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2015년 4월 1일, 수원시청 별관 3층 회의실에서 황인성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박환 수원대 교수, 강진갑, 한준택, 유문종, 이성호, 김준혁, 송영완 시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정책팀장, 수원박물관 한동민 학예팀장 10명이 참석하고 토론했다.
- 수원시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흐름과 기조를 설정하고 기념사업의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시민교육을 통해 시민체감도를 고양하고, 돈 안 드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19

수원시 광복70주년 기념 전문가 초청 토론회

담당부서_ 정책기획과

개요_ 수원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실진단과 미래지향적 비전제시 등 부족한 부분을 보하고 기념사업 전체를 관통하는 담론을 구성 하고자 수원시장 주관으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 수원시 광복70주년 기념 전문가 초청 토론회는 2015년 4월 4일(토), 라마다호텔 2층 보드룸네에서 진행되었고 염태영 수원시장, 이종석 전)통일부장관, 채수일 한신대학교총장, 황인성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박환 수원대 교수,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발제), 조명래 단국대 교수, 이기호 한신대 교수, 박진도 (재)지역재단 이사장, 김선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송영완 수원시정책기획과장 11명이 토론에 참석하였다.
- 토론회는 기념사업 개요 설명, 토론회 기초발제, 현실진단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20

고향의봄길 명품 무궁화 가로수길 조성

담당부서_ 생태공원과

개요_ 광복70주년을 기념하여 시민과 함께 명품 무궁화 가로수길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주변에서 무궁화를 친근감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2015. 4. 8(수), 고향의봄길에서 진행된 고향의봄길 명품 무궁화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수원시, 시민단체 등 300명이 참석하고 무궁화 324주 식재, 비료주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시민과 함께 나라꽃 무궁화 가로수길을 조성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었다.



21

우표로 보는 대통령전 광복70주년 수원 전시회

담당부서_자치행정과

개요 광복70주년을 맞아 역사책에서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을 당시에 출시된 우표와 엽서 기타 유물을 통해 이해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변천사를 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2015년 4월에서 6월까지 진행된 우표로 보는 대통령전 광복70주년 수원 전시회는 수원선경도서관, 수원박물관, 서수원주민편익시설에서 제1대~제17대 대통령 취임기념 엽서, 대통령 기념우표, 해방 기념 엽서, 대한민국 방한 해외 대통령 우표, 새마을운동 전지우표, 남북적십자회담 기념 전화카드 등 160여 점이 전시되었다. 이 사업은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이사장 황인성)에서 주관하였다.



22

나라사랑 시낭송 대회 및 무궁화 식재 행사

담당부서_사회복지과

개요 광복70주년을 맞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전 세대가 하나 되어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나라사랑 시낭송 대회 및 무궁화 식재 행사는 수원시와 수원보훈지청이 진행하였다. 시낭송 대회는 '광복, 통일, 나라사랑'의 주제로 2015년 4월 9일 보훈교육연구원에서, 무궁화 식재 행사는 2015년 4월 13일, 현충탑에서 진행되었다.
- 광복70주년을 맞아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선열들의 독립정신과 호국정신을 기억하고 계승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23

민간단체 주관 문화예술사업

담당부서_ 문화예술과

개요 민간단체에서 주관한 문화예술사업 중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을 주제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 검토하였다. 추진단체는 물론 관람하는 시민들이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민간단체가 주관한 문화예술사업은 홍재미술대회, 민족예술제, 홍재백일장이 진행되었다. 홍재미술대회(2015. 4. 11.)는 정조의 업적 및 광복을 주제로 미술대회를 개최하였고 민족예술제(2015. 8. 28)는 공연, 미술전시 등 광복에 대한 소재를 포함하였으며 홍재백일장(2015. 4. 11)은 정조의 업적 및 광복을 주제로 백일장을 개최하였다.



24

2015 수원시 인권증진프로그램 공모사업

담당부서_ 감사관

개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증진 및 시민의 인권의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인권이 존중받는 휴먼시티 수원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 2015 수원시 인권증진프로그램 공모사업은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인권문화, 인권연구 등 인권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민간단체가 수원시민을 위한 자유 사업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 총 5개 인권단체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수원 YWCA : 학생 · 시민 대상 인권작품전시회 등 15회(4,680명 참여)
 - 인권교육 온다 : 주민대상 인권교육 및 관련 워크숍 19회(180명 참여)
 - 여성의 전화 : 시민대상 영화상영 4편, 캠페인 1회(200여명 참여)
 - 지역사회교육협의회 : 학생 · 학부모 · 교사 대상 인권교육 24회(432명 참여)
 - 지체장애인협회 : 장애인대상 인권강사 심화과정 교육 4회(150명 참여)
- 강의식 교육이 아닌 인권캠페인 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25

수원 바로알기 청소년 교실

담당부서_ 토지정보과

개요_ 내고장 수원을 알리는 기회를 통해 청소년 및 학부모들에게 참여문화와 소통행정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청소년들이 바라는 수원의 미래상 등 글쓰기를 통해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인문도시 수원 만들기에 기여하였다.

-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된 수원 바로알기 청소년 교실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원화성 해설강사 3명이 강의하였다. 30개교 122학급을 방문 교육하였고 참여하고 수료증을 교부받은 학생이 3,255명, 수원에 바라는 글쓰기, 삼행시, 약 9,000편의 사행시 짓기를 하였다. 또한 우수 글 6명을 선정하여 상장을 수여하였다.



26

광복70주년 기념 제16회 수원시 생활체육대축전

담당부서_ 체육진흥과

개요_ 제16회 수원시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통해 『사랑중심 더 큰 수원』만들기 및 “광복70주년” 의미를 되새기며, 125만 『시민이 화합하고 생활체육 동호인의 우의를 도모하는 생활체육한마당 축제의 장』으로 추진하였다.

- 2015년 4월 25일~26(일), 2일간 진행된 '광복70주년 기념 제16회 수원시생활체육대축전'은 수원체육관외 49개 보조경기장에서 진행되어 초청인사, 유관기관, 단체, 시민 등 20,000명이 참석하고 개회식, 축구 등 35개 종목별 경기진행, 생활체육 유공자 표창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수원시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35개 국민생활체육 수원시 종목별연합회가 주관하였다.



27

2015 수원문화포럼

담당부서_ 문화예술과

개요_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통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 문화포럼을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역사적 흐름을 개척한 지역의 발자취에 대한 포럼의 장으로 마련하였다.

-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2015 수원문화포럼은 '人(인) + 生(생) + 史(사)'의 주제로 총13강으로 구성되어 수원미술전시관에서 진행되었다. 1,300명이 참석한 2015 수원문화포럼은 미술협회 수원지부가 주관하였다.



28

수원연극축제 - “그날의 함성”

담당부서_ 문화예술과

개요_ 수원시 대표 공연예술축제인 2015 수원연극축제에 “그날의 함성”이라는 주제로 마당극 형식의 공연을 함으로써 수원의 여성민족운동가의 삶을 되돌아 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광복70주년을 통한 지역의 역사를 알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5 수원연극축제 연계행사인 수원생활연극축제에 광복70주년을 되돌아보는 마당극 형식의 공연을 포함하여 추진하였다.
- 2015년 5월 3일(일), 광고호수공원 마당극장에서 진행된 수원연극축제는 광복70주년 기념으로 수원의 여성민족 운동가인 김항화, 이선경, 나혜석의 삶과 인생 역정을 되돌아 보는 내용을 담아내었다.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 느끼는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광복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9

수원시 인권센터 개소·운영

담당부서_ 감사관

개요 2015년 5월 4일에 경기도 최초로 인권상담, 조사 등 시민의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 정책 추진을 담당할 「수원시 인권센터」를 개소하였다. 인권정책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인권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키 위해 시민인권보호관제를 도입하였다.

- 수원시청 별관 7층에 설치하여 센터장 1명(감사관), 시민인권보호관 2명으로 구성되어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민원접수·상담, 사건조사, 권고안을 작성하고 인권정책·제도개선, 인권교육, 인권단체와 협력,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 수원시 인권센터는 주요 인권침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썼다. 공무원 증 제도개선, 전국 최초로 공무원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 권고, 지방세 고지서 봉투 개선, 인권침해적 용어 개정 권고, 성희롱 상담창구 설치 등을 하였다.

30

제8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

담당부서_ 여성정책과

개요 다문화 공동체 사회 구현을 위해 외국인 주민을 포용하고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며 수원시민과 외국인 주민이 이웃으로 만나 소통하는 글로벌 『휴먼시티 수원』 완성을 위한 제8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다.

- 2015년 5월 10일(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진행된 제8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는 외국인 주민 및 수원시민, 자원봉사자 등 총 5,451명이 참석하였으며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31

수원포럼 (광복70주년 특집편)

담당부서_ 행정지원과

개요_ 광복70주년을 맞아 역사 속 위인들의 리더십을 통해 개인과 조직은 물론 국가와 민족적 차원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제 59회 수원포럼은 설민석 한국사 전문가를 모셔 <역사 속 인물을 통해 배워보는 21세기 리더십>이란 주제로 개최하였다.

- 수원포럼(광복70주년 특집편)은 2015년 5월 21일 (목), 수원시청 대강당(별관 2층)에서 개최되어 한국사 전문가인 설민석 강사가 '역사 속 인물을 통해 배워보는 21세기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하고 수원시 공무원, 희망 시민이 참석하였다.



32

광복70주년 기념 코리안팝스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담당부서_ 정책기획과

개요_ 광복70주년을 맞아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 가족 등 수원시민을 초청하여 평화, 인권, 통일에 대한 염원을 공유하고, 음악으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어 미래 수원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광복70주년 기념 코리안팝스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는 2015년 5월 22일(금)에 경기도문화의전당(행복한대극장)에서 코리안팝스오케스트라(지휘 : 이경구), 바리톤 김동규 등의 연주로 진행되었고 300명의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 가정을 초청하였으며 OBS가 주최, 주관하였다.



33

광복70주년, 역사를 알다

제9회

팔달 가족사랑 도전 골든벨

담당부서_ 팔달구 가정복지과

개요 2015년광복7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의 정체성 확보 및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가족화합의 장 「나라사랑 도전! 골든벨」행사를 통해 가족공동체 형성은 물론 지역의 근현대사 재조명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통합 및 미래지향적인 사람중심 더 큰 수원 완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제9회 팔달 가족사랑 도전 골든벨은 2015년 5월 30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꿈의 체육관)에서 열렸으며 수원시 거주 가족, 연인, 친구 등 2~5명이 팀으로 구성되어 95개팀 250여명이 참여하였다. 국가(독립)유공자 및 후손 가족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광복70주년을 맞은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한 이번 행사는 팔달구어린이집연합회(회장 : 김남순, 최금숙)가 주관하였다.



34

나라사랑 전국 철인 3종 경기 대회 개최

담당부서_ 사회복지과

개요 광복70주년을 맞아, 보훈과 스포츠를 융합한 나눔과 배려가 있는 사회를 위해 통합스포츠행사를 추진하였다.

- 철인3종경기와 보훈을 융합하여, 철인·고령(장애)유공자·장애우·시민이 함께하는 감동과 통합의 스포츠 행사로 자리매김하였고 수원보훈지청 뿐 아니라, 경찰청, 소방서, 용인시, 기업체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전 방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문제, 교통통제 등 운영상의 난관을 극복하였다. 또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직접 참여하여 성금을 전달하는 등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의 보훈문화를 창달하였다.



35

청소년 역사교육 (동학에서 광복까지)

담당부서_ 문화예술과

개요 미래꿈나무들에게 근대 우리민족의 숭고한 역사의식과 수원지역에서의 광복활동,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가치를 재조명하였다.

- '청소년 역사교육(동학에서 광복까지)'는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 초등학교, 경기효인성진흥원 교육장에서 인문학물고를 학당을 운영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사와 효행교육을 하였다. 광복 및 동학운동 등의 역사교육으로 민족자긍심을 고취하고 정조대왕의 효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효행교육 내용을 담은 이번 사업은 경기효인성진흥원이 주관하였다.
- 동학운동과 광복운동 등의 원인과 과정,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 등 교육으로 청소년의 애국심을 고양하며, 조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효원의 도시 수원"에서 정조대왕의 충효행사상과 정신을 통한 인성교육을 확산하는 효과가 있었다.



36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시민참여 설명회 전개

담당부서_ 정책기획과

개요 광복70주년을 맞아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기념사업'에 대하여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종교단체, 각 급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였다.

- 2015년 6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시민참여 설명회'는 종교단체, 각 급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송영완 수원시 정책기획과장 및 박사승 정책팀장을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설명회의 내용은 광복7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추진목적 및 배경과 광복70주년 기념사업 관련 각종 행사의 적극적 참여 당부 등을 담았다.
- 기독교총연합회 임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 학교 담당교사, 아마추어 시민 합창단원, 불교연합회 주지스님 모임, 시민사회단체, 수원시의회 설명회, 유관기관,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장,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장애인 교육 기관 등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가졌다.

37

권선구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조성

담당부서_ 권선구 행정지원과

개요_ 대한민국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조성을 통해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국기 선양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였다.

- 2015년 6월 5일부터 12월 31일, 6개월간 고향의 봄길 1.1km(행정타운사거리~과선교 연장선 시작지점)와 구청사, 근린광장에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를 조성하였다. 가로등 현수기(태극기 + 시 브랜드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배너기 75조(旗150개)를 설치하였다.



38

광복 제70주년 기념 제60회 현충일 추념식

담당부서_ 사회복지과

개요_ 광복 제70주년 기념 제60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훈가족에 대한 뜻 깊은 예우로 보훈 정신을 고취하였다.

- 2015년 6월 6일(토), 수원시 현충탑에서 광복 제70주년 기념 제60회 현충일 추념식을 가졌다.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경기도의회위원장, 수원시의회의장, 국회의원, 시의원, 시·도 보훈단체장, 보훈가족 및 일반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하고 사회복지과가 행사를 주관하였다.
- 광복 제70주년을 맞이하여 제60회 현충일 추념식이 순국선열 및 유가족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해 경건히 추진되었으며 보훈가족과 참여 내빈들에게 광복 제7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로 개최되었다.



39

나혜석바로알기 학술대회

담당부서_ 문화예술과

개요 수원지역 출신 여류화가이자 문학가인 나혜석의 직·간접적 독립운동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로 당시의 시대적 사상과 가치를 연구 자료로 기록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 '나혜석바로알기 학술대회'는 2015. 6. 27.(토), 수원박물관 (1층 다목적실)에서 '사건으로 본 나혜석'이라는 주제아래 50명이 참석하고 나혜석 학회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 이번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학술지로 발간되어 국내외 근대 전공 대학원생, 신진 근대연구자들에게 그 동안의 나혜석에 대한 연구성과물을 기록 보존함으로써 나혜석의 소설가와 화가, 독립운동가로서의 사상과 남다른 가치관을 재조명할 수 있었다.



40

학생 대상 평화통일교육 추진

담당부서_ 자치행정과

개요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이해 수원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평화 통일 의식 함양을 위한 찾아가는 통일 교육을 실시하였다.

-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된 '학생 대상 평화통일교육'은 수원시 관내 중학생 (137학급), 4,200명을 대상으로 '통일 코리아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통일의 필요성, 통일과 나의 직업·꿈을 연계한 통일교육을 하였다. 학급별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2시간씩 진행한 이번 교육은 경기평화통일센터에서 주최하였다.
- 학교 교사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으며, 학생들의 설문지에서도 평화통일에 대한 소중함과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좋은 수업이었다는 평이었다. 수원시 전체 중학생(약 4만명)의 10%이상이 평화통일교육을 수료함으로써 학생들의 평화통일 의식 향상에 기여하였다.

41

대형 손도장 및 바람개비 태극기 제작 설치

담당부서_ 권선구 행정지원과

개요_ 권선구 · 수원시민, 나아가 보훈가족과 함께 대형 손도장 태극기 및 바람개비 태극기를 제작 · 게양하여 광복 70년의 기쁨과 안중근 의사의 고귀한 정신을 공유하고, 호국 보훈의 숭고한 가치 계승에 기여하였다.

- 2015년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시민 870여명이 참석하여 함께 손도장으로 대형 태극기를 제작하고 2015년 7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청 내 한마음광장, 고향의 봄길, 경수대로 2(KT, 양궁카페), 덕영대로 1(세류중 담장), 호매실로 2 (호매실장애인복지회관, 보훈회관), 권선로 1(동림말 사거리) 등 관내의 주요 대로변에 시민이 함께 제작한 대형태극기를 게양하였다.



42

광복 제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음악회

담당부서_ 사회복지과

개요_ 광복 제70주년을 맞이하여 7월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기념하며 보훈가족과 시민, 청소년, 군장병이 함께하는 음악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전몰군경과 호국영령들의 용기와 희생에 감사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개최하였다.

- 광복 제70주년을 맞이하여 정전협정 62주년을 기념하고 유엔군 참전 의 날을 맞아 한 · 미 호국보훈 나라사랑음악회를 개최하였다. 2015년 7월 24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진행된 이 음악회는 수원시, 수원보훈지청이 주최하고 제3군사령부, 51보병사단, 미8군 군악대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원시장, 수원보훈지청장, 51보병사단, 시 · 도 보훈단체장, 시민, 청소년, 군장병 등 1,500여명이 참석하였다. 군장병 및 보훈가족, 시민이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국가유공자에게 감사하는 기회가 되었다.

43

광복70주년 기념 한 여름 밤 「달빛 영화 산책」

담당부서_ 장안구 행정지원과

개요_ 광복70주년을 맞아 『한여름 밤 달빛 영화 산책』 상영 영화를 광복과 관련 있는 영화를 선정하여 상영함으로써 여름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과 주민들에게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과 화합의 문화 공간을 조성하였다.

-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8까지 진행한 『한여름 밤 달빛 영화 산책』은 만석공원 등 7개소에서 영화를 상영하였고 약 2,300여명이 관람하였다.



44

광복70주년, 태극기 사랑 더하기 운동

담당부서_ 영통구 행정지원과

개요_ 역사적인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여 전 시민이 광복의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고자 하였다.

- '광복70주년, 태극기 사랑 더하기 운동'은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영통구청 및 영통구 각 동 주민센터에서 참여하였다. 운동의 내용으로는 민원실 직원 태극기 티셔츠 근무복 착용, 차량용 태극기 스티커 부착, 70주년 70개 태극기 화분, 태극기 가로수 조성, 태극기 달기 홍보용 동영상 제작, 대형건물 등 외벽에 대형태극기 게시를 유도하였다.



45

테마가 있는 인문학 강좌

담당부서_ 교육청소년과

개요_ 시민의 접근 및 참여도가 높은 『테마가 있는 인문학 강좌』 운영 시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들의 미래지향적 시민의식 형성 및 시민들 주도로 광복의 의미를 계승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 2015년 8월부터 11월까지 강사가 평생학습 강좌를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일제 강점기 수원지역사 및 광복에 관련된 강의를 하였다. 「수원의 독립운동」, 「수원인이 만든 조국해방, 수원인이 만드는 한반도의 미래」, 「수원인이 만든 조국해방, 수원인이 만드는 한반도의 미래」, 「광복70주년과 민족의 평화」의 주제로 김준혁 강사와 염상균 강사가 강의하였다. 수강생들은 이 강의를 통해 더욱 깊이 공부하기를 원한다는 의견과 특히 수원의 광복에 대하여 알게됨으로써 애항심이 더욱 고취된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46

전국 무궁화 수원 축제

담당부서_ 생태공원과

개요_ 광복70주년을 기념하여 나라사랑을 주제로 전국 무궁화 수원축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애국심 고취하였다.

- '전국 무궁화 수원 축제'는 2015년 8월 7일부터 8월 9일 3일간 만석공원(장안구 송죽동)에서 산림청과 수원시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전체 전시기간동안 12만명이 방문하였으며 무궁화 전시와 체험행사, 심포지엄, 콘테스트 등이 펼쳐졌다. 분화전시는 502점, 전시 및 체험부스는 30개소를 운영하였다. 무궁화 관련 단체, 전문가,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 준비로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었다.



47

광복70주년 기념 학술대회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전망」

담당부서_ 정책기획과

학술대회 1. 민족운동사에서 수원의 인권을 보다

개요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평화·인권·통일을 주제로 수원지역 민족 운동사를 재조명하고, 사회통합과 미래지향적 수원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술대회1. 민족운동사에서 수원의 인권을 보다

학술대회2. 수원에서 길을 묻다

학술대회3. 수원에서 길을 열다

- 광복70주년 기념 학술대회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전망」의 첫 번째 대회인 '민족운동사에서 수원의 인권을 보다'는 2015년 8월 12일(수)에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되어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고 1부 식민지 수원의 현실과 인권, 2부 수원의 민족운동과 교육·종교기관의 내용을 다루었다. 이 학술대회는 수원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수원시, 수원시의회, 수원교육지원청/수원보훈지청 등에서 후원하였다.

학술대회 2. 수원에서 길을 묻다

- 광복70주년 기념 학술대회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전망」의 두 번째 대회인 '수원에서 길을 묻다'는 2015년 8월 13일(목)에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되어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고 기조강연(통일전략), 동아시아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의 내용을 다루었다.

학술대회 3. 수원에서 길을 열다

- 광복70주년 기념 학술대회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전망」의 세 번째 대회인 '수원에서 길을 열다'는 2015년 8월 14일(금)에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되어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명사초청 강연 및 참석자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고 제1강연은 광복군 출신의 김우전 지사의 '광복군의 육성증언을 통해 본 독립운동사', 제2강연은 김동연 아주대 총장의 '인재육성과 미래비전'의 강연으로 이루어졌다.

48

광복70주년 기념 현충탑 참배

담당부서_ 행정지원과

개요_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넋을 위로하기 위한 현충탑을 참배했다.

- 2015년 8월 15일 현충탑(인계동 예술공원)에서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의장,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광복70주년 기념 현충탑 참배를 하였다.



49

광복70주년 기념 시립예술단 공연

담당부서_ 문화예술과

개요_ 광복70주년을 맞아 평화 · 인권 · 통일을 주제로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시민으로 구성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수원시립교향악단 김대진 예술감독 지휘로 '7000인 시민대합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 광복70주년 기념 시립예술단 공연은 2015년 8월 15일,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고자 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공연을 추진하였다. 수원시민 7000인과 대합창공연을 하여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50

인권영화 상연회

담당부서_ 감사관

개요_ 한국사회에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화라는 매체를 통하여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 인권영화 상연회는 2015년 8월부터 10월 까지 진행되었으며 '잔인한 나의 흠,' '앵그리맨', '괴롭히는 여자', '헌팅그라운드' 4편의 영화를 상영하고 152명이 참여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지역사회 내의 이슈로 만들어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전환하고, 영화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 반여성폭력 캠페인 진행을 통해 관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51

광복70주년 기념 상징조형물 설치

담당부서_ 정책기획과

개요_ 지역 정체성과 주체성, 나아가 조국과 민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시민축제인 수원시'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7000인 시민대합창의 시민 자율 참여를 기리고 이를 원동력으로 수원 시민의 자발적 참여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광복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진행한 사업으로 상징물은 민간단체에서 디자인 등을 제작 설치하고 자율참여 시민의 실명을 표기한 조형물의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2015년 9월 11일부터 12월 9일 약 3개월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12월 10일에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7000인 시민대합창 상징조형물 제막식'을 통해 공개하였다.



52

광복7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담당부서_ 수원박물관

개요 일제강점기 수원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독립운동을 재조명하고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건 수원의 독립운동가들을 통해 광복70주년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고, 위기 속에서 빛난 수원사람들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기획전을 개최하였다.

- 광복7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은 2015년 9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 수원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대한제국 군복, 조선미인보감, 김세환, 김노적 등 독립운동가 관련 100여점의 유물을 전시하였다. 무엇보다 특별기획전 개최 소식을 통해 수원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김세환의 후손이 전시회를 찾아와 구술채록 및 자료 조사가 진행되었다.



53

광복7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담당부서_ 수원박물관

개요 광복 70년을 맞이하여 식민조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던 수원지역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는 수원지역 역사문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지역사에 대한 학술 연구를 심화시키는 한편 '인문도시 수원' 완성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광복7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은 광복70주년 기념 <새롭게 발굴하는 수원의 독립운동가들>이라는 주제 아래 2015년 9월 17일(목), 수원화성박물관 영상교육실에서 개최되었다. 독립유공자, 학계인사, 수원시민 등 약 90여 명이 참석하고 수원구국민단 박선태의 민족운동과 그 항배(박환, 수원대), 수원의 기독교 수용과 이하영의 독립운동(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대 수원지역 천도교와 홍종각의 민족운동 (성주현, 청암대), 조선총독암살 미수사건과 조안득의 꿈(조성운, 동국대)의 내용을 다루었다.

54

수원화성문화제

담당부서_관광과

개요 광복70주년을 맞아 수원화성문화제를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하여 수원화성문화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2015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펼쳐진 수원화성문화제는 화성행궁, 행궁광장, 연무대(창룡문) 등 수원화성 일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에서 주관하였다. 축제의 핵심가치를 '정조대왕'에서 '백성'으로 전환한 놀이·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재구성, 방문객들이 언제라도 즐길 수 있도록 반복적 운영체계로 진행, 행궁광장을 활용한 광장문화 를 창조하였다.



55

광복70주년 기념 제7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담당부서_사회복지과

개요 광복70주년을 맞아 생존 애국지사를 모시고 순국선열에 대한 기념식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과 시민에게 애국·애족 정신을 확산하도록 하였다.

- 2015년 11월 17일(수),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진행된 광복70주년 기념 제7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은 광복회 주요인사, 시민, 학생 등 450명 가량이 참석하였으며, 의식행사 및 독립군가 합창, 헌시 낭송, 어머니전상서 공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수원보훈지청과 광복회경기도지부에서 주최, 주관하였다. 경기도 관내 거주 생존 애국지사(이영수, 이태순, 오희옥, 김영근)의 참석으로 지역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순국선열 기념식이었다.



56

인권 공감 토크 콘서트

담당부서_ 감사관

개요 「세계인권선언 67주년」을 기념하여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정신을 이해하고 수원시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 인권 공감 토크 콘서트는 2015년 12월 10일, 대강당(별관 2층)에서 수원 YWCA의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인권단체, 일반시민, 공직자,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 등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인권공감 토크콘서트 ‘인·사·동’(인권을 사랑하는 우리동네), 인권문화공연, 제2기 수원시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연(강지원 변호사), 인권생생토크, 세계인권선언문 낭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민단체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관협력 공모사업 추진으로 시민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행정과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실현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보편적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57

제6회 국제학술세미나 및 전통문화교류 공연

담당부서_ 정책기획과

개요 2015년 광복70주년을 맞아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지배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쟁취한 것을 축하하고 이를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각 나라의 독립운동의 역사와 그 과정을 비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제6회 국제학술세미나 및 전통문화교류공연은 ‘광복70주년 “아시아”아픔을 넘어’라는 주제로 2015년 12월 1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사)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에서 주최, 주관하였다. 11개국(네팔, 미얀마,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필리핀 등)이 참석하여 국제학술세미나를 진행하였고 근대 제국주의 체제에서 동아시아 각 국가의 독립투쟁 과정과 민족적·문화적 특성 공유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중요무형문화제 제98호 경기도당굿 이수자 등 8명이 축하공연을 하였다.

58

재미있는 학생 평화통일 캠프

담당부서_자치행정과

개요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이하여 학생들의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고 통일체험과 교육을 할 수 있는 평화통일 캠프를 운영하였다. 관내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한 이 캠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었다.

- 평화통일캠프 프로그램은 2015년 9월에 기획되어, 2015년 10월에서 11월 2개월의 기간 동안 수원지역의 중·고등학교에 홍보하고 신청접수를 받았다. 2015년 12월 19일(토)에서 20일(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된 이 캠프는 마니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수원시 관내 중·고등학생 36명이 참석하였다. 경기평화통일센터에서 주최한 평화통일 캠프의 교육내용은 월드카페, 통일도미노 게임, 통일전망대, 통일꿀든벨 등으로 구성되었다.
- 이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이 어렵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던 청소년들이 게임과 현장 체험을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59

광복70주년 기념 백서 제작

담당부서_정책기획과

개요 광복7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평화·인권·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지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진행된 광복70주년 기념 백서 제작 작업은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전반을 역사적 기록에 남기고자 하였다. 백서에 담은 주요내용은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배경 및 목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이야기 등이다.



3부

독자의
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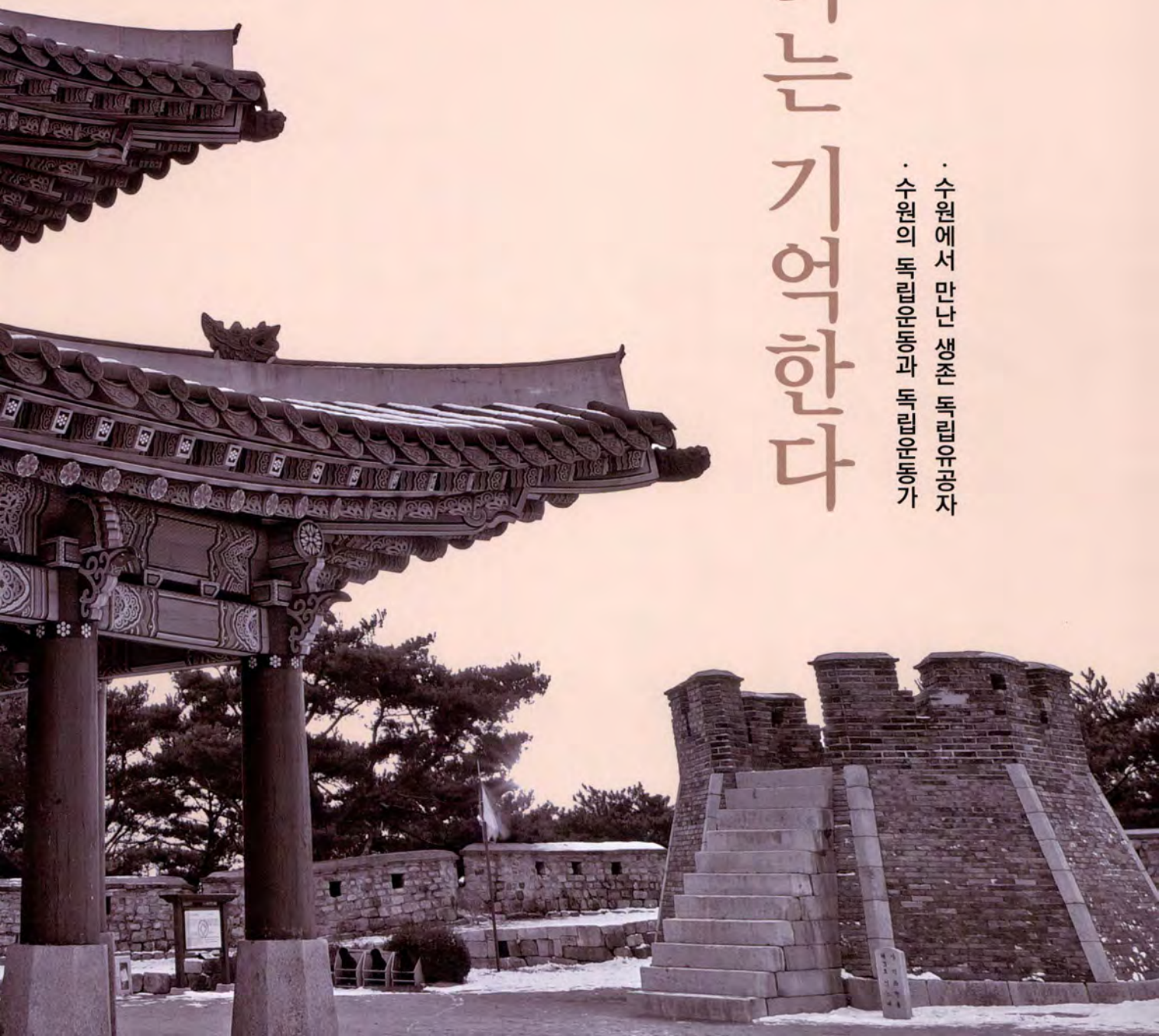
다
가
로

가
리
리



1절
광복
70년, 우리는 기억한다

· 수원에서 만난 생존 독립운동가
· 수원의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가



1. 수원지역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조선후기 봉건 사회의 모순 속에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다. 농민들은 봉건제와 외세침략에 반대하며 항쟁하였다. 이후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거족적 민족항쟁인 의병투쟁이 일어났다. 수원의 의병투쟁은 홍원식, 홍일초 등의 의병부대와 남양만 일대의 수적세력과 농민군, 활빈당의 적극적 항쟁으로 나타났다. 일제의 식민지배에 수원지역의 주민들은 끝까지 저항하였다. 1910년대 민족해방운동의 절정인 3·1운동은 조직적이면서 공격적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3·1운동 이후 젊은 청년유지들을 중심으로 계몽운동도 활발하였다. 또한 젊은 지식청년들의 청년운동과 사회운동도 확대되었다. 그리고 지역 주민 대부분이 소작농이었던 현실 속에 생존권 사수를 위한 소작쟁의 등 농민과 노동자들의 투쟁도 지속되었다.



1) 수원지역의 3·1운동

수원지역의 3·1운동은 3월 1일 수원면 화홍문 방화수류정의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많은 천도교도와 기독교도, 유학자들, 그리고 농민·학생·상인들과 기생들까지 수원의 모든 민중들이 참여하여 독립의 의지를 불태웠다. 수원지역의 3·1운동은 산발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도 있었으나, 사전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격렬한 투쟁양상을 보여주었다. 그 과정에서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파괴하고, 갇은 악행을 일삼았던 일본순사들도 처단했다. 수원지역의 3·1운동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독립운동이자 민족해방운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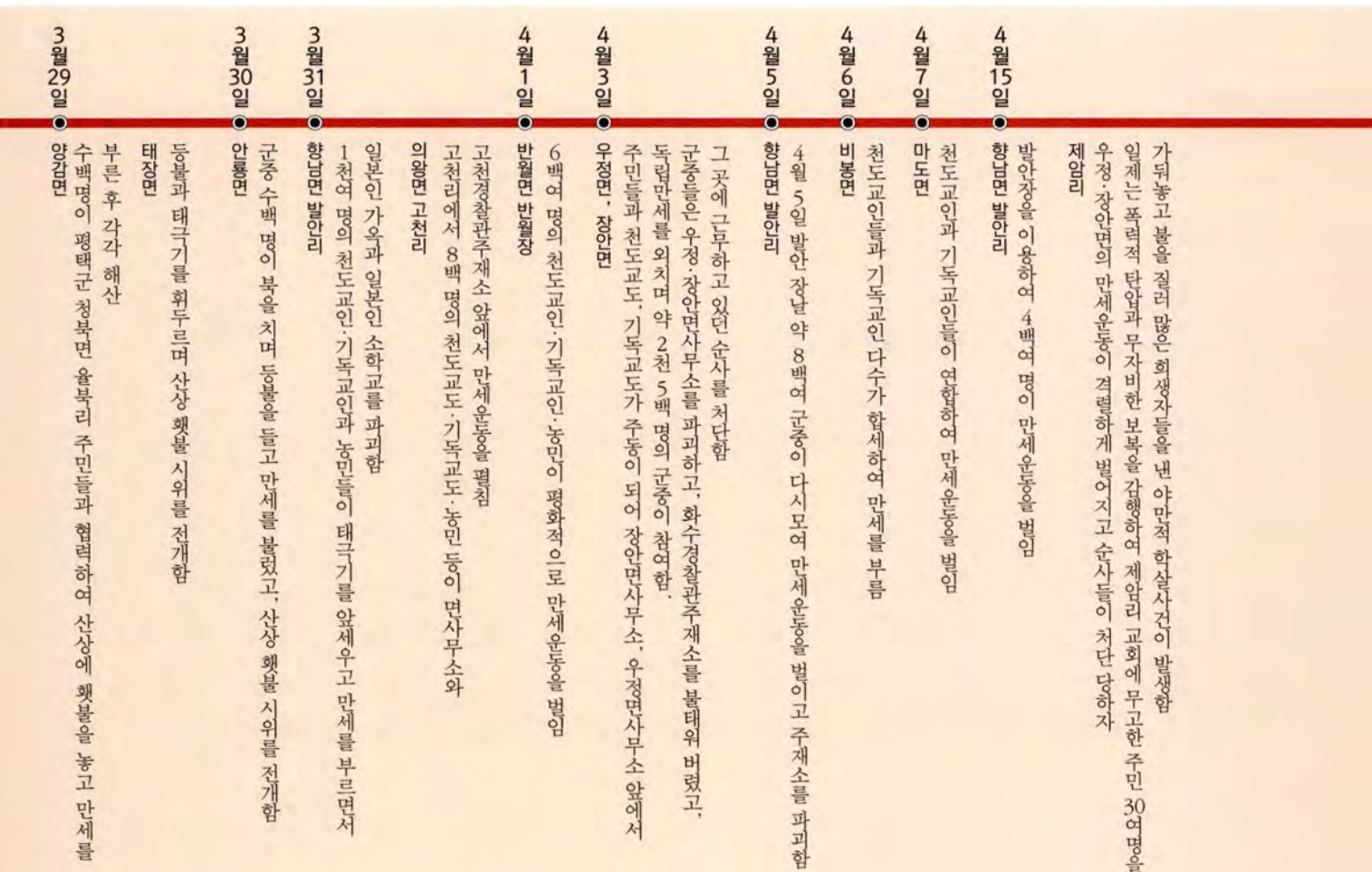
수원지역 3·1운동 일시

3월 1일	3월 16일	3월 21일	3월 23일	3월 25일	3월 26일	3월 28일	3월 29일
수원면 화홍문 방화수류정 부근	수원면	동탄면 오산리	수원면 수원외부근처	수원면	송산면 사강리	송산면 사강리	수원면
별임, 서울의 3·1운동과 더불어 최초로 시작된 만세운동 김세환·김노적 등의 지식인과 젊은 학생들의 주도로 수백명이 모여 만세운동을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이 벌어졌으며, 팔달산 서장대와 동문 안 연무대에	철시투쟁을 벌여 체포되었던 사람들이 풀려남 일본 경찰과 소방대, 헌병대와 충돌, 주동자가 체포되자 석방을 요구하며 수백명이 모여 만세를 부르면서 시가지 종로를 통과하던 중 군중들은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이 벌어졌으며, 팔달산 서장대와 동문 안 연무대에	연락하고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평화적으로 만세를 부름 오산리 천도교인 박두병·김재천·김진성 등이 인근 마을과 기독교인들과	증심이 되어 7백여 명이 만세운동을 일으킴 수원역과 서호부근은 일본인과 지주들이 많이 살던 곳으로 소작농 등이	가옥을 파괴하며 만세를 부름 오산에서 보통학교 졸업생들과 천도교도들이 금융조합과 일본인, 중국인 장날을 이용하여 청년학생들의 주도로 학생과 노동자 등이 만세를 부름	가옥을 파괴하며 만세를 부름 오산에서 보통학교 졸업생들과 천도교도들이 금융조합과 일본인, 중국인 장날을 이용하여 청년학생들의 주도로 학생과 노동자 등이 만세를 부름	부르고 순사 1명을 처단함 오후 2시경 송산면사무소 뒷산 및 부근에서 1천여 명의 군중이 모여 만세를 부르고 순사 1명을 처단함 오후 2시경 송산면사무소 뒷산 및 부근에서 1천여 명의 군중이 모여 만세를	부르면서 일본인 상점에 투석하여 창유리를 파괴함 만세운동을 벌였고, 야간에는 상인과 노동자 등이 합세하여 곳곳에서 만세를 김향화의 주도 아래 기생 30여 명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던 중 자혜의원 앞에서

2) 수원지역의 독립운동

구국민단

이종상, 임순남, 최문순, 이선경, 박선태 등의 젊은 학생들이 일본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위하여 1920년 6월 20일 '구국민단'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박선태는 회장, 이득수는 부회장이 되고, 수원에 거주하고 있던 김석호, 김노적, 윤귀섭, 김병갑, 이희경, 신용준 등이 동지가 되었다. 이들은 '한일합병에 반대하여 조선을 일본제국 통치하에서 이탈케 하여 독립국가를 조직할 것'과 '독립운동을 하다가 입감되어 있는 사람의 유족을 구조할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신간회 수원지회

신간회는 민족통일전선 운동 단체로 창립되었다. 신간회 수원지회도 수원지역의 유지층과 종교계 인사들, 사회주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1927년 10월 17일 조직되었다. 신간회 수원지회는 대중운동의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익증진을 위한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더구나 지역사회의 현안과 민족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일제의 끊임없는 탄압 속에 1931년 산간회 해소안이 가결되면서 해체되었다.

수원청년동맹

사회주의 청년단체인 수원청년동맹은 성호면의 공석정과 양감면의 박승극이 주도하여 1929년 6월 9일 결성되었다. 수원청년동맹은 오산청년동맹과 반도청년회의 연합으로 탄생했다. 집행위원장에 박승극이 선출되었고 조직이 편성되었다. 수원청년동맹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청년 대중의 의식적 교양과 훈련의 철저를 기하면서 1934년 해산되기까지 성호지부, 수원지부, 양감지부를 운영했다.

소작쟁의

1920년대 수원지역의 소작쟁의는 주로 일본인 대지주들의 농장에서 나타났다. 농감들의 횡포와 소작권 이동, 소작료의 인상 등이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했다. 소작농들은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였다. 또한 일제의 지주중심의 농업정책은 193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계급적 차별과 모순을 격화시켜 끊임없는 소작농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수원고농사건

1930년대에도 수원고등농림학교의 비밀결사운동은 계속되었다. 학생들은 졸업생 김종수를 중심으로 수원지역에서 상록수 운동과 독서회 활동을 전개하며, 전국 각지의 수원고등농림학교 졸업생들과 연계하여 농민 중심의 문맹퇴치운동과 항일의식 고취에 전념하였다. 그러던 중 1935년 7월 졸업생 이용필이 김천고보맹휴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된 뒤 비밀결사가 탄로나 김종수, 이용필, 최흥기, 김광태, 김준강, 김재곤, 유재환 등 7명이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후에도 1939년 다시 졸업생 김중면이 함남 갑산농학교에서 독서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임봉호, 박도병 등과 체포되었다. 수원고등농림학교의 비밀결사운동은 우리말과 국사와 전통을 공부하여 항일독립정신을 함양하고 민족문화를 계승할 목적으로 독서회(한글연구회)를 조직하는 등 활발한 독립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들은 농민봉기를 전개하여 민족의 자유와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였다.

수원소년동맹 격문사건

수원지역의 청년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절정에 달하던 시기 수원청년동맹 산하의 수원 소년동맹의 맹원이었던 홍종근(洪鍾根, 당시 18세)과 김장성(金長成, 당시 18세)이 일으킨 사건이다. 이들은 1930년 10월 12일이 화성학원의 운동회가 개최되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을 예상하고, 종이에 '무산대중(無産大衆)에게 격(檄)함, 노동자·농민은 일치단결하자, 전민족적 대중투쟁을 권기(捲起)하자, 자본가의 착취에 대해 최후까지 반항하자, 조선총독부 폭압정치를 타도하자, 무산자·노동자·농민 만세' 등의 내용을 쓴 16매의 문서를 만들어 수원면 북수리에서 수원면 읍내에 이르는 10여 곳의 장소에 붙여 독립의 의지를 불태웠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 항일문서 사건

1939년 10월에는 사회주의 청년 최용범, 차준철, 김길준, 맹승재, 강성문, 홍순철, 용현식 등이 '수원예술호연구락부(水原藝術互研俱樂部)'를 결성하였다. 이들 청년들은 '총독정치는 내선일체를 통치의 근본방침이라고 표방하지만 단순한 구실일 뿐 결국 식민지적 기만정책에 불과하며, 현재 일본인의 차별적 냉대를 물리치고 조선인에게 진정한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해 조선에서 일본제국의 속박으로부터 이탈하여 독립하고, 그 위에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는 공산사회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민족차별과 조국독립,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다 결국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나석균 낙서사건

1941년 4월 29일 나홍석의 아들이자 여류 문인 나혜석의 조카였던 나석균이 낙서사건을 일으켰다. 팔달산 정상의 등산로에 1894년 7월 청일전쟁 당시 수원성내에서 자결한 일본군 대대장 고시마사츠나(古志正綱) 대대장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과 장안문 계단위의 남문 등에 크레용으로 '미나미(南次郎)를 주살하라, 황국신민이란 무엇인가? 죽음으로 미나미를 타살하자, 우리들은 대한국민이다, 대한만세 타도일본 대한만세 독립청년군, 우리 대한국민은 일치단결하여 대한독립을 이루자.' 등의 내용을 적어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며 일제의 식민지배와 황국신민화 정책을 규탄하였다.

3) 수원지역의 독립운동가

김세환

(1888. 11. 18 ~ 1945. 9. 16)



독립장

수원지역 대표적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

수원면 남수리에서 태어나, “조국의 독립을 성취하는데 이바지하려면 먼저 새로운 학문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삼일여학교(지금의 매향중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힘썼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48인의 한명으로 수원지역의 3·1운동을 독려하고, 3월 13일 서울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약 1년 동안의 옥고를 치렀다. 이후 수원에서 교육 및 사회활동에 앞장섰다.



최초의 여성유화가, 여성해방론자

수원면 신평리에서 태어나 삼일여학교를 졸업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유화가이며, 근대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선구자이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서울에서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옥고를 치렀고, 이후 화가로서의 활동과 함께 가부장적 질서에 반대하는 소설 및 다수의 글을 발표하였다.

나혜석

(1896. 4. 28 ~ 1948. 12. 10)

이선경

(1902. 5. 25 ~ 1921. 4. 21)



애국장

'수원의 유관순'으로 순국한 소녀

수원면 산루리에서 태어나, 수원공립보통학교(현 신평초등학교)를 졸업하고 3·1운동 당시 김세환의 밑에서 연락 임무를 담당하였다. 조선의 독립을 목표로 한 '구국민단'을 박선태 등과 결성하여 비밀리에 활동하다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혹독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19살의 나이에 순국하였다.

대통령표창

의로운 기생, 꽃중의 꽃



김향화

(1897. 7. 16 ~ 미상)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수원기생들은 고종황제가 돌아가심을 누구보다도 슬퍼하며 대한문 앞에서 망곡례를 올렸다. 그리고 1919년 3월 29일 자혜의원(현 화성행궁 봉수당)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수원기생 30여명을 이끌며 일제의 총칼에 항거하며 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어 징역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김노적

(1895. 5. 12 ~ 1963. 6. 1)



수원 3·1운동의 핵심

수원면 산루리에서 태어나 수원상업강습소를 졸업하고, 김세환의 제자로서 박선태, 이선경 등과 함께 수원 3·1운동을 주도하였다. 3월 1일 방화수류정 아래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일본 경찰에 붙잡혀 옥고를 치르고 고문에 의해 왼손이 으스러지는 부상을 당하였다. 이후 수원 화성학원 교원으로 교육 및 사회활동을 하다가 중국으로 가서 광복군의 행정 및 연락업무를 담당하다 해방 후 고향 수원으로 돌아왔다.

애족장

수원소년동맹의 화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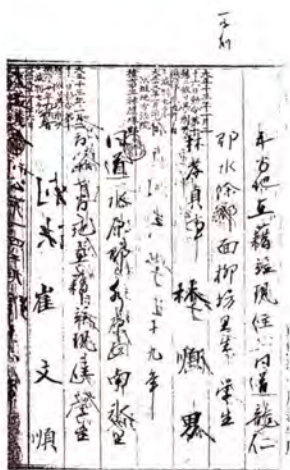
수원면 산루리에서 태어나 수원지역의 청년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절정에 달하던 시기 수원청년동맹 산하의 수원소년동맹의 맹원이었던 홍종근(18세)과 1930년 10월 12일이 화성학원의 운동회가 개최되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을 예상하고 민족적 대중투쟁을 선도하는 격문을 살포하며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다 체포되었다.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만기출옥을 20여일 앞두고 가출옥 된 뒤 1개월만에 순국하였다.

김장성

(1913. 2. 7 ~ 1932. 3. 9)

박선태

(1901 ~ 1938)



애족장

구국민단의 선봉

수원면 산루리 출신으로 휘문학교에 재학 중이던 1919년 9월 독립 운동을 위해 중국 상해로 가려다가 삼일학교 교사 이종상을 만나 국내에서 항일투쟁을 펴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1920년 6월 20일 비밀결사 구국민단을 조직하여 단장으로서 활동을 주도하였다. 이후 혈복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독립운동 방침을 협의하는 등 활동하다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어 징역2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애족장

신민회 독립운동기지 경기도 대표



임면수

(1874. 6. 13 ~ 1930. 11. 29)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근대교육가이자 독립운동가로 삼일학교 설립자이며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였다. 이후 중국 만주로 건너가 유하현 삼원보 독립운동 기지의 경기도 대표로 활동하며 개척사업과 신흥무관학교 개설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통화현 합니하에 설립된 민족학교 양성중학교 교장으로 활동하며 독립군 양성에 기여하였다. 1910년대 중반에는 부민단의 결사대에 소속되어 활동하였으며, 3·1운동 이후 통화현에서 해룡현으로 근거지를 옮겨 항일투쟁을 전개하다 체포 투옥되었다.

홍종철 이명 홍순철

(1920. 3. 26 ~ 1989. 7. 22)



애족장

수원예술호연구락부 사건 주도

수원면 인계리에서 태어나 1939년 10월 사회주의 청년 최용범, 차준철, 김길준, 맹승재, 강성문, 용헌식 등과 '수원예술호연구락부(水原藝術互研俱樂部)'를 결성하였다. 이들 청년들은 국내 및 만주, 동경의 독립운동가와 연계하여 식민통치 체제의 비판, 민족차별과 조국독립,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 등을 위해 활동하다 결국 체포되어 징역2년의 옥고를 치렀다.

애국장

“왜왕 3년”을 외친 유학자



남양군 팔탄면 가재리에서 태어나, 농촌을 순회하며 한학을 교육하는데 열중하였으며,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여 한문서당을 운영하였다. ‘일본은 3년을 못가서 망한다’는 뜻에서 ‘왜왕(倭王) 3년’이라는 구호를 외쳤으며, 3월말 발안장터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순국하였다.

이정근

(1856. 2. 10 ~ 1919. 4. 5)

백낙렬

(1865. 12. 20 ~ 1937. 1. 4)



건국포장

우정·장안면의 만세운동을 이끈 천도교 지도자

남양군 장안면 수촌리에서 태어나 남양지역의 천도교 책임자로서 3·1운동을 사전에 계획하였다. 1919년 4월 3일 천도교 세력과 기독교 세력, 유교적 토착 세력, 천주교 세력 등이 함께한 만세운동을 이끌며, 지역주민 2천 5백 명과 함께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파괴하고 순사 가와바다를 처단하였다.



애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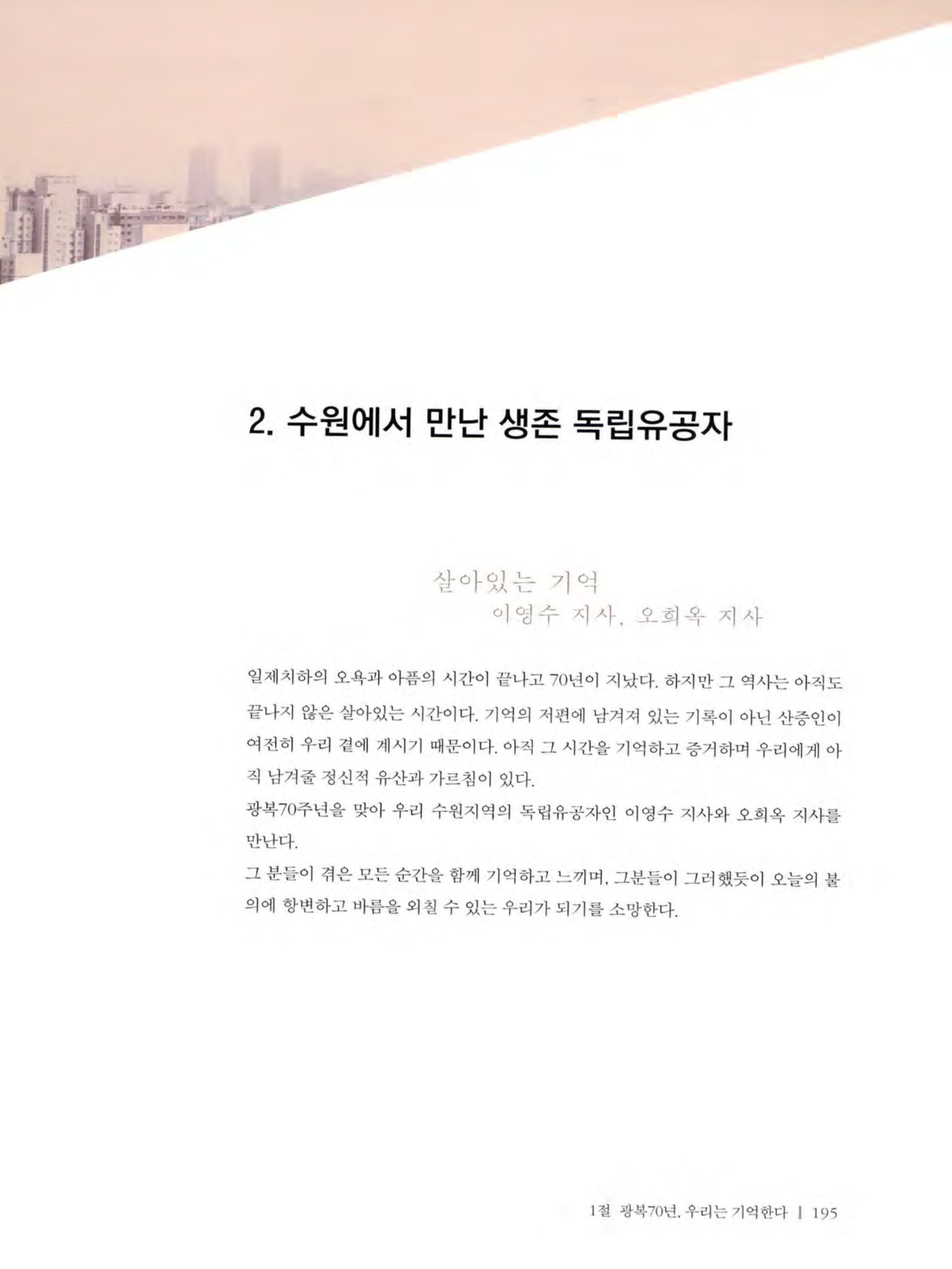
제암리 학살로 순국한 고결한 희생

남양군 팔탄면 고주리에서 태어났으며, 우정·장안면의 3·1운동을 주도한 백낙렬과 함께 뜻을 같이하여 선봉장 역할을 하였으나 일제의 잔인한 보복 만행인 '제암리 학살 사건'으로 가족들과 함께 순국하였다.

김흥렬

(미상 ~ 1919. 4. 15)





2. 수원에서 만난 생존 독립유공자

살아있는 기억

이영수 지사, 오희옥 지사

일제치하의 오욕과 아픔의 시간이 끝나고 70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살아있는 시간이다. 기억의 저편에 남겨져 있는 기록이 아닌 산증인이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직 그 시간을 기억하고 증거하며 우리에게 아직 남겨줄 정신적 유산과 가르침이 있다.

광복70주년을 맞아 우리 수원지역의 독립유공자인 이영수 지사와 오희옥 지사를 만난다.

그 분들이 겪은 모든 순간을 함께 기억하고 느끼며, 그분들이 그러했듯이 오늘의 불의에 항변하고 바름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영수

李英守



조국을 잃은 자의 어린 시절은 서러움만 남는다.

어린 이영수는 어린 적부터 아버지가 쌀가마니와 탄약 등을 지고 옮기는 모습을 자주 봤다. 어른이 되어서야 아버지가 지고 다니던 쌀과 탄약이 독립투사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아버지 이사집도 경북 고령에서 3·1운동을 주도하다 일본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해 장애까지 입은 독립지사였던 것이다.

이영수, 12살의 나이에는 만주의 마을 한가운데서 일본군이 한국인 독립 운동가를 형틀에 묶어둔 채 물고문하는 것을 목격하며 자랐고, 일본군에게 끌려가던 한국인 위안부를 지켜보며 조국을 잃은 설움에 몸서리쳤다.

젊은 청춘, 조국을 위해 바치다

나라를 잃은 서러움에 매일 울분을 토하던 이영수는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중국 충칭[重慶]에서 조직된 항일 군대인 광복군 전방지구 특파원으로 임명되어 선전 공작에 몰두하였다. 1943년 7월 일본 경찰의 지명 수배를 피하여 안후이성[安徽省] 부양(阜陽)으로 가서 제3지대에 입대하였다. 무작정 광복군 제3지대 본부를 찾아가 “일본군과 싸우다 일본군 형무소에서 사형당하겠다”며 입대를 요청한 것이다. 이곳에서 그는 탈출한 학병들을 포섭하는데 힘써 광복군 제3지대의 초모 인원이 300명을 헤아렸다. 그는 또 군자금 마련하기 위한 모금활동에도 앞장섰다.

그 때의 독립운동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한다.

“독립 운동가들이 당시 중국에 많이 살았다. 한국에 있으면 잡혀서 목숨을 잃으니, 독립운동을 하러 중국에 피신한 것이다. 군자금을 얻으러 다닐 땐, 밀가루 한 줌으로 하루를 살았다.”

그리고 김학규(金學圭)의 지령에 의해 유격 특파원 교육을 받은 후 후베이성[湖北省]을 중심으로 한 5전구(五戰區) 사령부 관할지로 특파되어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1944년 10월에는 송덕수 동지로부터 군자금 1만 원, 권총 1정, 사진기 1대를 기부 받아 초모위원회에 기증하였다.

활동 도중 일본군에게 붙잡힌 동료들은 비참하게 죽어갔다. 특히 친했던 동료가 일본군의 회유를 거부했다가 결국 목이 베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던 날 이영수는 목 놓아 울었다.

- **광복군(光復軍)** 1940년 중국 중경(重慶)에서 창설되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대로서 공식명칭은 ‘한국광복군’이다. 총사령관에 지청천(池青天), 참모장에 이범석(李範奭) 장군이 임명되었고, 총사령부 산하 4개 지대로 편성하였다. 광복군은 병력 모집을 위해 5개의 징모분처(徵募分處)를 설치하여 일본군 점령지역에 있는 한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모공작(招募工作)을 전개하였다. 광복군은 중국 측이 창설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광복군의 활동을 규제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번의 조직 개편 등을 이루어 국내진공작전을 계획하였는데,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계획은 무산되었다. 해방 후 미군정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광복군에 대해서도 무장해제를 요구하여 임시정부 요인들과 무장을 해제한 채 개인자격으로 국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귀국한 광복군의 일부는 대한민국 국군에 참여하여 활동하기도 했다.

기적적인 삶, 그리고 해방

1944년 12월에는 일본군 소속으로 있었던 경력을 활용하여 일본군 내 한국인 병사의 초모 공작 사명을 받고 임무를 수행 중 1945년 5월 일본 헌병에게 붙잡혔다. 한국으로 압송 도중에 구방지역(溝邦子驛)에서 탈출에 성공하여, 금주성(錦州省) 전장대(田莊台)에 피신하여 있다가 해방을 맞았다.

그는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해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중국군에게 들었다”며 “동료들을 일싸안고 만세를 외쳤다”고 회상했다.

1945년 8월 16일 광복군 제1지구 제1대대 부대대장으로 교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고, 11월 30일 귀국하였다.

오늘을 있게 한 역사를 기억하라

그렇게 뜨겁던 스무 살의 청년은 사라지고 이제 아흔이 넘은 어르신만이 남았다.

이영수, 그가 보낸 청춘은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르다. 너무 달라서 어느 순간부터 회고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시간, 그 시대는 우리의 발판이며 뿌리이다. 오늘을 있게 한 근원이다.

이영수 지사는 “생존 독립지사들이 요즘 나이가 들어 매년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들 독립지사가 했던 일을 기억하고 후세에 전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 그 시절의 그들은 우리를 지켰고 이 땅 대한민국을 지켜내었다.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준 그 수많은 희생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자.

| 참고자료 |

- <http://news.donga.com/rei/3/all/20130813/56988381/1>
동아일보 수원=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안중근의사 의거 100돌... 독립운동가 뜻 '가슴에' (2010.2.4일자 수원일보)
- 한국항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dataType=01&contents_id=GC02900940



독립운동가 이영수는

1924년 12월 29일, 경북 고령군(高靈郡) 운수면(雲水面) 대평리(大坪里)에서 태어나 1944년 10월 광복군(光復軍) 제3지대에 입대하여 활동하였다. 처음 일본군에 징병되어 일본군 군속으로 있었던 까닭으로 일본군 내의 한국인 병사들을 독립군으로 모집하는 임무를 띠고 중국 안휘성(安徽省) 부양(阜陽)에서 활동하였다. 1945년 5월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한국으로 압송되던 중 구방자역(溝邦子驛)에서 탈출하였다. 이후 중국 금주성(錦州省) 전장태(田莊台)에서 피신하여 생활하다가 광복을 맞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수원에서 만난 생존 독립유공자

오희옥

吳姬玉

대한민국, 오늘날 이 땅의 자유는 누군가의 고귀한 희생을 터로 하고 있다. 일제로 인해 나라를 잃었던 그 때, 아직 어린애의 티도 벗지 못한 14살의 소녀가 독립운동의 전선에 있었다. 바로 오희옥 지사가 그이다. 역사책 속의 글이 아닌 아직 우리 옆에 함께 있는 산증인 오희옥 지사를 만나 그녀가 겪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전해 들었다.

3대가 한 독립운동,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국권회복의 일념으로 의병항쟁 활동을 한 경기 용인 의병장 출신 할아버지 오인수, 서로군정서 별동대장과 경비대장으로 활동, 독립장을 받은 아버지 오광선, 한국혁명여성동맹을 결성하여 맹활동을 해 애족장을 받은 어머니 정현숙,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광복군 참령으로 복무한 형부 신송식과 함께 한국광복진선 청년공작대와 한국광복군 제3지대 대원으로 활동, 애족장을 받은 언니 오희영이 오희옥의 가족이다.

“3대가 독립운동을 했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됐다”

1939년 4월, 열네 살의 나이에 중국 광둥 유주 등지의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 입대하여 군사훈련을 받으며 광복군으로 활동하였다. 어렸던 그녀의 역할은 젊은 청년들과 함께 가도 선전, 중국 사람들에게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선전활동, 군사금 모금 등의 정보수집과 더불어 편지 전달의 긴밀한 역할을 맡았다.

14살 독립운동가, 아버지의 투옥을 지켜보다

오희옥, 그녀가 활동했던 중국 유주 등지는 여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일본군으로부터 안전했지만, 비밀리에 전방으로 가서 편지를 전달할 땐 늘 조마조마한 가슴으로 움직여야했다. 그러다 간혹 편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돌아올 때면 “그 때가 제일 속상했다”고 회고한다.

그 당시 일본군은 전진만 했기 때문에 후방에는 일본인의 주둔이 적어 덜 위험했지만, 늘 학생복을 입고 위장한 모습으로 편지를 전달하러 다녔다.

“우리 아버지도 김구 선생께서 비밀공작, 왜놈의 높은 놈들이 오면 암살하라고 시켰어요. 남경에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북경에 갔었는데 그 일이 실패해 일본 앞잡이들에게 들켜서 아버지가 투옥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일 전쟁 때 헤어져 10년 후, 해방이 되어서 겨우 아버지를 만났는데 매우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지요.”

기록에 남지 못한 여성독립운동가, 그리고 마지막 소원은 통일

1945년, 드디어 연합군의 지원과 도움으로 일본은 투항했고 우리는 독립을 맞았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직접 물리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중국에 광복군이 생기기 전에는 중국군에 들어가 일본군과 맞서 싸운 사람들도 많았고, 광복군 결성 후 우리 군의 조직과 전력도 더욱 단단해져 독립을 위한 만반의 전쟁 준비를 했던 때였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쉬움은 크고 또 일본이 투항하여 광복을 맞은 것은 기뻐다.

그리고 여성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그녀이기에 일제강점기 당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 아주 많았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남겼다.

그리고 한국의 광복을 위해 어린 시절을 바쳤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한 오히려 지사의 마지막 소원은 오직 한가지다.

“이제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이웃 일본이 알보지 못하도록 분단된 남북이 하루 빨리 통일되어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도 항상 강한 정신으로 통일한국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자료 |

부산 여성뉴스(2015년 8월 28일) <http://blog.naver.com/bswoman/220464505455>

오광선(吳光鮮, 생몰년 미상) 경기도 용인 출신으로 낙양군관학교(洛陽軍官學校) 교관, 독립군(獨立軍) 제1대대장, 동북항일한중연합군(東北抗日韓中聯合軍) 독립군 대대장으로 활동하다 1942년 북경(北京)에서 일본경찰에게 체포되어 3년의 옥고를 치르고, 1945년 광복군 국내지대 사령관을 역임하였다. 1962년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려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1926년경부터 국내외 민족독립운동 전선에서 독립운동단체를 통일하려는 민족 유일당(民族唯一黨) 운동이 일어났다. 만주에 있던 독립운동단체들도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와 김좌진(金佐鎭) 중심의 한족총연합회(韓族總聯合會)가 만들어졌고, 김좌진이 암살되자 홍진과 지청천(池靑天) 등이 이 연합회를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으로 개편하였다. 한국독립당은 산하로 한국독립당군을 결성해 총사령에 지청천, 부사령에 황학수(黃學秀)를 임명하여 동북만주를 중심으로 활약하다 1933년경 중국 본토로 옮겼으며, 이후 한국혁명당(韓國革命黨)과 통합하여 신한독립당(新韓獨立黨)이 되었다.



독립운동가 오희옥은

1926년 5월 7일, 경기도 용인군(龍仁郡) 달삼면(達三面) 죽릉리(竹陵里)에서 태어났다. 낙양군관학교(洛陽軍官學校) 교관과 독립군 대대장, 광복군 국내지대 사령관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오광선(吳光鮮)의 차녀이다. 1939년 4월 중국 유주(柳州)에서 한국광복진선(韓國光復陣線) 청년공작대(靑年工作隊)가 창설되자 입대하였다. 이후 일본군의 정보수집, 일본군 내의 한국인 병사들에 대한 독립군 모집, 연극과 무용 등을 통한 위안 활동을 하였다. 한국광복진선 청년공작대가 1941년 1월 1일 광복군 제5지대로 편입될 때까지 활동하였다. 1944년에는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의 당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90년 정부에서는 그녀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2절
광복
70년,
그래도
살아가다

· 독립운동가 후손의 삶



1. 독립운동가 후손의 삶

우리의 얼룩진 역사가 아직도 닦지 못한 눈물처럼 현재에 남아 있다. 그때 그 시절,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던진 생이지만, 그의 아들은 그의 손자는 그래도 조국이 기억해 주기 바란다.

아버지가, 또는 아버지의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힘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원망이 되기도 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생을 빚지게 했으나 후세에 희망과 미래를 남겨준 그 분들의 삶을 그 후손의 이야기를 통해 돌아보고자 한다.

염석주

인정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염석주

할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라는 손자의 이야기, 염영일

김노적

손자들의 정신적 지주 독립운동가 김노적

홍종철

독립운동가 홍종철의 딸 홍명숙의 아픈 현대사

인정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염석주

할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라는 손자의 이야기, 염영일

염석주의 생애와 활동

염석주(廉錫柱)는 1895년 9월 26일 울전리 366번지 파주염씨 염재섭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곳 울전동에는 파주염씨들이 대대로 터를 잡고 살던 곳으로, 『파주염씨세보』에 의하면 1775년에 사망한 염신검의 묘역을 조성한 이후부터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부친인 염재섭(廉在燮)은 소금과 비단 도비꾼으로 부(富)를 축적하였다고 하는데, 이미 조부인 염영진(廉永振, 1840~1895)대에 무반직인 훈련원첨정(訓練院僉正)과 가선대부 및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의 직첩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확충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버지 대를 거쳐 염석주 대에는 30정보(약 9만평)가 넘는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로 성장했다.

염석주는 1910년경 삼일학교를 입학해 1915년 졸업을 했다고 하는데, 다소 늦은 나이인 21세에 졸업한 셈이다. 1912년에 18살이 되던 해 용영제와 결혼을 했다. 당시는 결혼을 하고도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듬해 장녀 염태윤이 태어났다. 삼일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삼일학교 경영이 어려울 때마다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동아일보에는 기록하고 있다. 이후 염석주는 1928년부터 신간회 부회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1937년 천곡강습소 졸업기념 사진(홍석창 제공) 뒷줄 왼쪽 세번째

1927년 초창기부터 참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신입회원이 부회장으로 선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다면 초창기부터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신간회는 당시 수원지역 유지들뿐만 아니라 수원청년동맹과 각종 사회운동에 관여하고 있던 젊은 청년들이 합세하여 지역과 사회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갔다.

신간회 활동을 기점으로 염석주는 일제의 감시대상 인물카드에 등록되었다. 일제는 1929년 동아일보에 수록된 신간회대표의 기념사진을 잘라 감시대상 카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이러한 인물카드를 통해 신간회 참여인사들을 고등과 요시찰인(高等課 要視察人)으로 보고 그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다. 당시 신간회 참여인물들은 대체로 대중운동과 항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염석주의 활동도 일제의 감시 대상에 오른 것이다.

이후 염석주는 1930년 4월 10일에 인근 10여호 20여명을 모아 수덕농민단을 조직하여 밤 아홉시 반 봉천행 열차를 타고 만주로 출발을 했다. 이들의 목적지는 봉천성 회덕현 서오가자였다고 한다. 그는 1930년부터 1944년 만주에서 귀국할 때까지 조선에서 농지를 빼앗기고 살기 어려워진 빈민들을 모아 추공농장(秋公農場)을 건설하여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추공농장은 1차 실패 후, 경험을 살려 2차로 오산시 충하진으로 옮겨 운영했다고 한다. 추공농장이 있던 오산시 충하진은 김창환 장군의 독립군 활동 근거지로 독립군 부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관련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다.

염석주는 만주에서의 활동 중간 중간에 조선으로 돌아와 최용신의 샘골 천곡강습소 운영에 협조하였고, 그녀가 죽었을 때는 딸을 장사지내듯이 애뜻하게 장례를 치러주기도 했다.

1944년 만주에서 돌아와 동대문 경찰서에서 체포되었는데, 18일간의 모진 고문과 발진티부스로 인하여 서대문 적십자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이때 추공농장에서 함께했던 주인열과 딸 염태숙, 그리고 부인인 신간난 여사가 임종을 지켜봤다고 한다.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인물 중에 밀고자가 있어 염석주의 활동을 일제에 알렸고, 요시찰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던 터라, 귀국과 동시에 잡혀 고문을 당한 것이라고 가족과 지인들은 전한다.

손자 염영일의 할아버지 행적 찾기

염영일은 염석주의 둘째아들 윤택의 아들이다. 살면서 할아버지의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고 성장을 했다. 1945년에 태어났고, 전쟁을 겪으면서 어려운 고비를 겪다보니 살기에 바빴다. 염영일이 처음 할아버지 염석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98년이다. 이때는 대한민국을 혼돈에 빠뜨렸던 IMF 구제금융시기였다. 이때 염영일도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고, 일을 그만둔 시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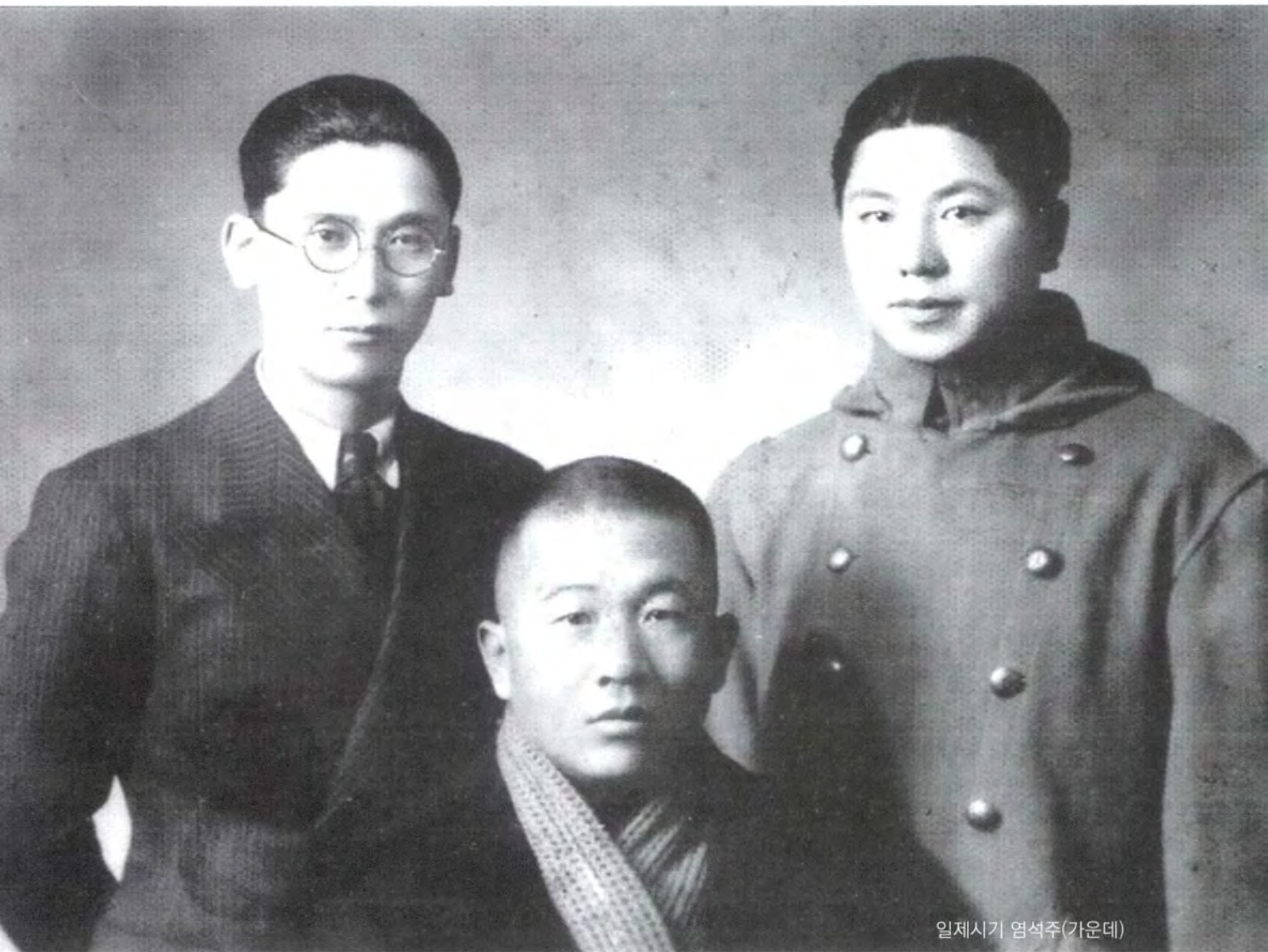
처음부터 조부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군포 삼성골프장 내에 조부의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땅을 찾기 위해 자료를 찾고 대기업 삼성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료를 첨부하다가 알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조부의 독립운동 흔적 찾기에 돌입했다.

염석주의 행적과 독립운동 기록 찾기는 상당히 늦게 진행되었다. 염석주는 1944년에 해방 전에 사망을 했고, 큰 아들 건택과 염영일의 아버지 윤택, 우택 등이 월북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손들은 연좌제로 인해 눈치를 보며 살았고, 자연스럽게 집안 내에서도 동네에서도 염석주와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는 쉬쉬하며 이야기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염영일은 아버지 소식을 고모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큰 고모 염태윤의 남편인 엄점득은 1964년 동경올림픽 당시 올림픽부위원장을 지냈는데, 그분을 통해서 부친의 사진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염영일의 관심도 처음에는 할아버지 염석주의 땅을 찾는 과정에서 비롯되었지만, 자료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이나 빈농을 위한 조부의 노력들을 알게 되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된 것이다.

1998년 이후에 가족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자료 찾기에 나섰고, 이후에는 최용신 기념사업회 김우경 관장과 안산의 은빛동지와 함께 조부의 행적을 추적해갔다. 가족 내에서는 염석주의 세 번째 부인인 신간난 여사와 큰 고모 염태윤을 통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신간난 여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한편으로 만주 추공농장이 있었던 곳에 가서 농장 이민자들과 후손들을 찾아 인터뷰를 진



일제시기 엄석주(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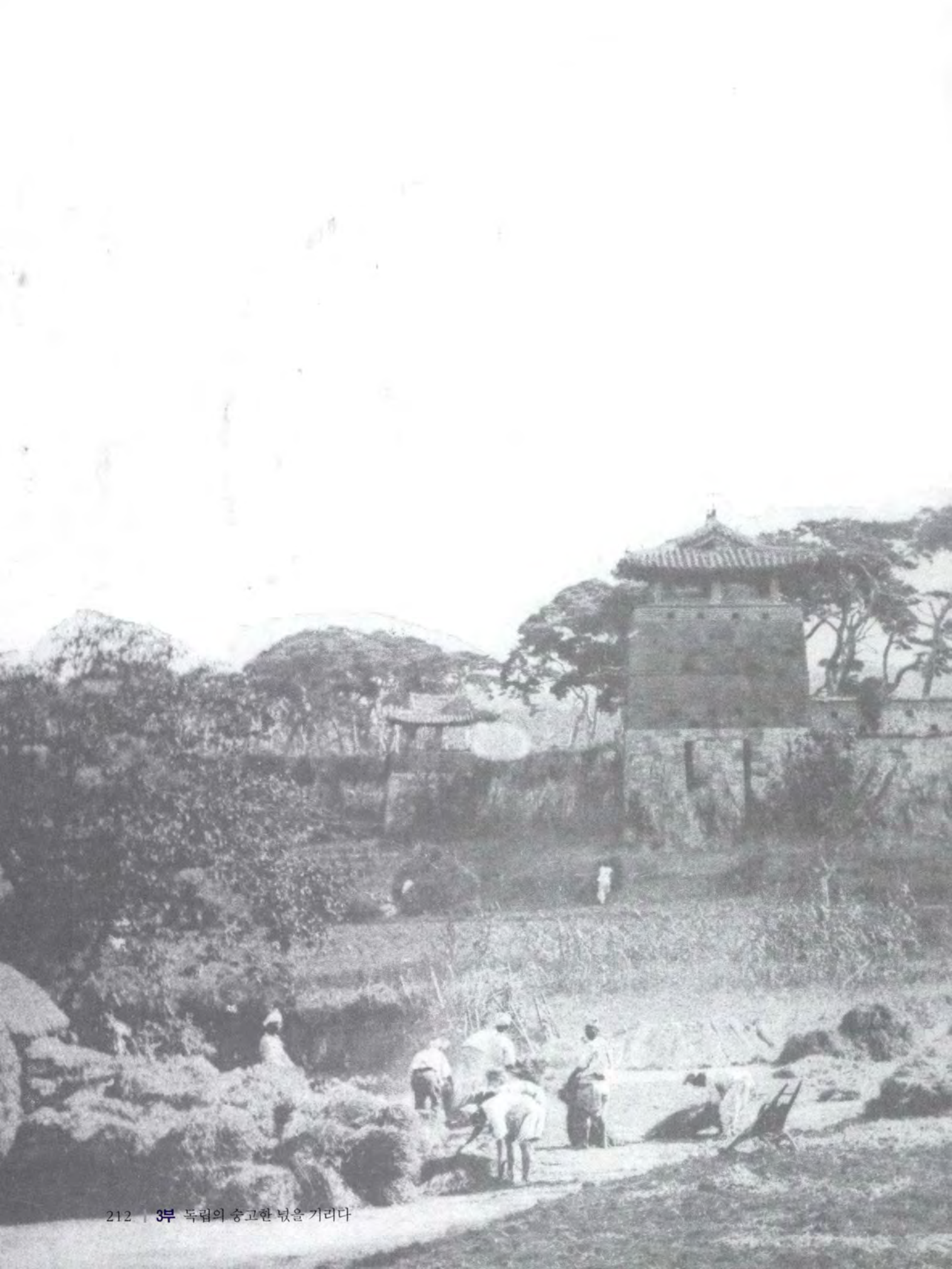
행하면서 자료를 모았다. 또한 반월 일대를 뒤져서 관련된 인물들을 찾아 다녔고, 특히 염석주의 누나의 아들인 주의득을 찾아 생전 활동을 인터뷰 했으며, 염씨 일가 중에 추공농장에서 함께 했던 염규택을 찾아가 자세한 행적을 찾을 수 있었다. 수년간 은빛등지등과 함께 했으나, 의견차도 있어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여태 관심 가져주는 이 없는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해준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한다.

조부의 명예를 되찾고 싶은 마음에, 국가보훈처에 그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했지만, 활동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여태 유공자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4차에 걸쳐서 신청서를 냈지만, 답변을 늘 똑같이 포기한 상태이다.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은 마음뿐

염영일은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친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목숨과 재산을 다 내놓고 독립운동을 했던 조부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고 한다. 조부는 30정보 이상의 대지주 임에도 불구하고 빈농을 위해 만주에 농장을 건설하였고, 삼일학교 유지를 위해 거금을 회사했으며, 신간회 활동으로 일제의 요시찰 대상에 올랐다가 결국은 일제의 집요한 추적 끝에 잡혀 고문으로 사망한 분이기 때문이다. 아쉬울 것 없는 삶을 버리고 조국을 위해 헌신했는데, 아들들의 월북으로 이야기조차 꺼낼 수 없었고, 자료가 없고 구술증거만 있어서 오랫동안 외면 받아온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수원박물관에서 진행된 『수원, 수원사람들의 독립운동』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한다. 일제의 감시자 대상카드에서 할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가족과 지인을 데리고 여러 차례 전시를 보러 왔다. 여태 관심 없었던 아이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한다. 3·1절이나 8.15 광복절이 되면 한 번도 본적도 없는 분이지만, 할아버지의 독립운동이 자랑스럽다고 한다. 본인 대에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기록을 찾아 명예를 회복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아들들의 월북으로 후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할아버지의 이름조차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진한 서운함이 남아 있다. 이제라도 그 분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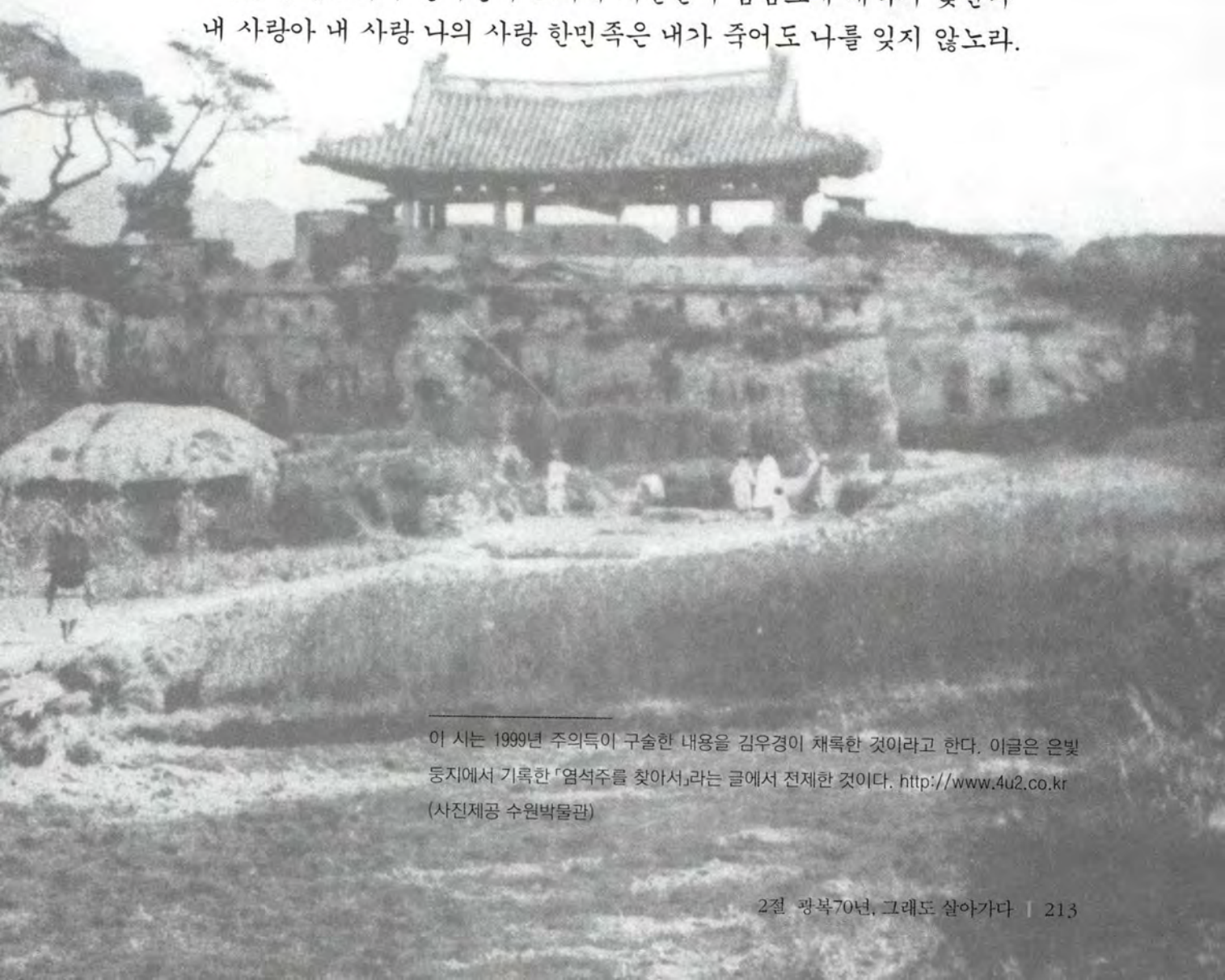
구국의 노래

염석주

한달 두달 일인 구박받으니 더욱 밝게 살아 대한독립 만세 잘 살아가리
내 사랑아 내 사랑 나의 사랑 한민족은 내가 비록 죽어도 나를 잊지 않노라

의복 음식 넉넉하고 고대광실 좋아도 나라없는 내몸은 눈물 뿐이라
내 사랑아 내 사랑 나의 사랑 한민족은 내가 비록 죽어도 나를 잊지 않노라

때는 삼월초하루 만세만세 소리에 대한천지 십삼도에 태극기 빛난다
내 사랑아 내 사랑 나의 사랑 한민족은 내가 죽어도 나를 잊지 않노라.



이 시는 1999년 주의득이 구술한 내용을 김우경이 채록한 것이라고 한다. 이 글은 은빛
동지에서 기록한 「염석주를 찾아서」라는 글에서 전제한 것이다. <http://www.4u2.co.kr>
(사진제공 수원박물관)



손자들의 정신적 지주 독립운동가 **김노적**

가족이 기억하는 할아버지 김노적

할아버지 김노적은 1895년 일제시기 조선이 위기에 처한 시대에 경주김씨 계림군과 김용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원래 이름은 김진이었는데, 김노적으로 개명한 것이다. 노적은 아명이었다고 한다. 형님이 한분 계셨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조카들에게 살길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하면서 집을 자주 비우셨고 객지생활을 오래하시다 보니 집안 내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일찍부터 신학문을 배우고 독립운동을 했기에 집안에서는 이를 경계하여 호적을 봤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확인하기는 어렵다. 큰 손자가 태어난 1963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제로 뵈는 적이 없고, 사진으로만 뵈는 모습은 모자를 쓰시고 차이나 칼라 셔츠를 입으신 멋진 모습이었다.

할머니는 충청도 관찰사 집안의 딸이었는데, 대대로 천주교 집안이었다고 한다. 이후 집안 가세가 기울면서 성공회의 도움을 받아서 영어공부를 했고, 여기서 두 분이 만나셨다고 한다. 1919년 이후 할아버지는 성공회의 도움으로 독립운동을 지속할 수가 있었다. 평양이나

만주를 오갈 때 수사복을 입고 다니면 검열을 피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할머니의 종교적 신념과 개화한 신여성으로서의 적극적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당시 독립운동이 종교계의 지원을 받아 가능했기 때문에 성공회에서도 적극 후원했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어린 여자아이를 양녀로 데려다 키웠다. 친딸처럼 키워 시집보냈다. 사실 부친 김덕형도 거의 집에 안계시다 보니, 양녀를 들인 자세한 내막을 듣지 못 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막내딸은 부인 사망이후 돌봐줄 사람이 없어 고아원에 보내야만 했다. 아버지가 결혼하고 고아원에서 막내여동생을 데려오면서 온 가족이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결혼하고 고아원에서 막내여동생을 데려오면서 온 가족이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한다.

해방 이후 김구 선생이 할아버지를 찾아와 경기도지역을 맡아 달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는 설마하고 흘려들었는데, 책에서 보고 사실이었음을 알았다고 한다.

6.25전쟁이 났을 때 할아버지는 몸이 성치 않아 피난을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팔달로 집에 있을 때 인민군으로부터 위협을 당했다. 그런데 인민군 책임자가 할아버지의 제자였기 때문에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적도 있다고 한다. 전쟁 중에 평생 동반자였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워낙 몸이 약하기도 했고 가난한 살림에 고생을 많이 해서 이질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이때가 한참 전쟁 중인 1952년이였다.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주변의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이후에는 지원이 끊겼고, 어린 아들들이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고 한다. 지원이 끊긴 것은 전쟁 중에 모두가 어려워져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년은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작은 아버지의 어린 기억에 할아버지는 흉측한 모습이었다고 기억한다. 할아버지는 고문 후유증으로 등창이 심해서 누워서 주무시지 못했다고 한다. 벽에 이불을 쌓아 놓고 기대앉은 앞에 놓인 은 책상에 의지해서 한손을 쓰지 못하니 한손으로 서책을 읽으셨다. 언제부터 그런 생활을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등에 기댄 이불을 바닥 삼아 그렇게 생활하셨다고 하니, 고통은 짐작하기 어렵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에 헌신한 공을 기려 주변 지인들과 제자들이 옛 화성학원 관사를 하나 주선했다고 하고, 그곳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생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돌아가신 이후에도 돈이 없어서 묘 자리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수원시가 이의동 공동묘지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어 할아버지를 모실 수 있



있던 것이다. 해서 '1045' 묘지 번호를 받아 안장되실 수 있었다. 이후 이곳에 수원박물관이 들어서게 되어 충주에 묘역을 마련하여 이장했다.

흩어진 가족의 역사

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늘 집을 비웠다고 한다. 만주로 평양으로 돌아다니다 보니 집안을 돌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아들 대에도 그 역사가 반복되었다. 할아버지는 인계동 일대에 땅도 많았고 신교육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부유했었지만, 독립운동 과정에서 많



김노적_1935년 삼일학교 재직시절 단체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은 재산을 소진했고, 아들들은 가난을 유산으로 대물림 받았다.

아버지 김덕형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실질적 가장이 돼서 동생들도 건사해야 했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공무원이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공부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해 대학을 진학했고 바라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아버지는 수원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를 했다. 학교 설립자인 홍씨 집안이 아버지 김노적과 잘 아는 사이였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후 공부를 더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마지막에는 강원대 교수를 역임했다.

아버지 역시 할아버지처럼 20여 년간 외지로 다니다 보니 살갑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우직한 분이셨고, 옳은 길을 가시는 분이었기에 존경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가족의 역사는 제대로 전승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에게 전달해줘야 하는 자연스러운 역사가 단절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본관만 알뿐 가족의 이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다고 한다. 또한 어릴 적에는 다락방에 할아버지 유품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잦은 이사와 집 개축으로 인해 다 없어지고 기억에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고비 때마다 생각나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독립운동은 어릴 적 광복회나 삼일동지회 등에서 매년 삼일절이나 광복절에 상장이나 선물을 보내셨기에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이라고 한다. 사실 할아버지의 뜻도 있었다고 하는데, 독립운동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 내세우지 말라고 하셨다고 한다. 숨어서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아는 일인데 내세우지 말라는 유지를 남기셨다고 한다. 그렇기에 광복회 등에서도 할아버지의 공로를 헤아려 매년 상장이나 선물을 보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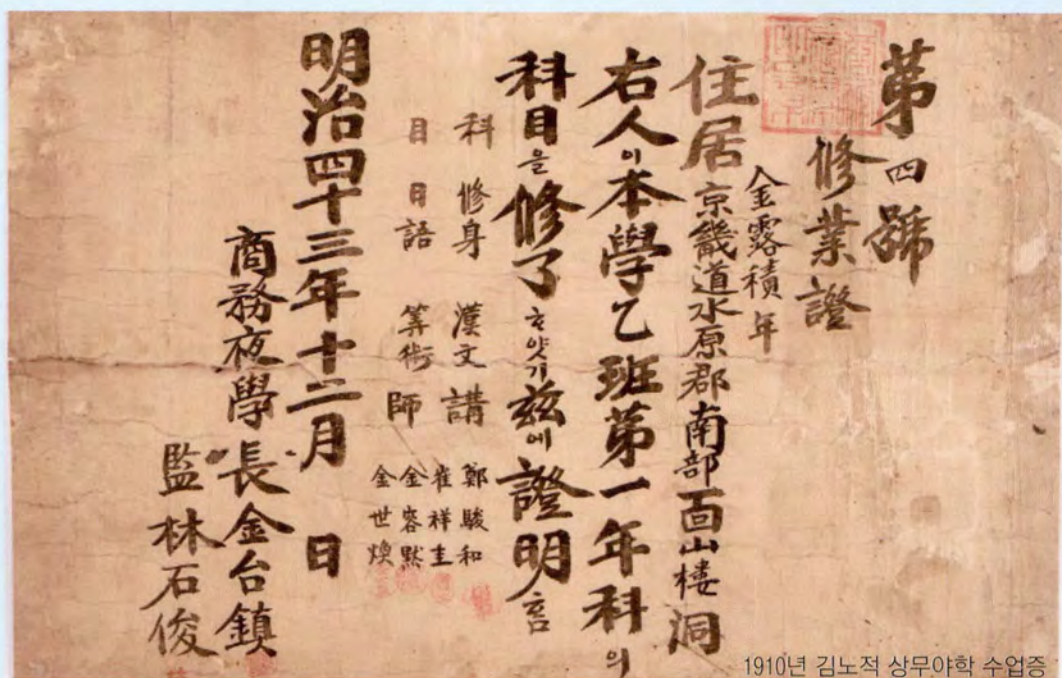
하지만 모두 다 알지만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었다. 아버지가 40세쯤에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했었다. 김노적의 행적이 분명한데도 자료의 부족으로 유공자가 되지 못했다. 이때 포상 신청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한 아버지는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도 국가에서 서운한 것이, 할아버지의 독립운동이 명확하지 않았다면 수원시나 광복회에서 표창이나 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기 때문이다.

일제의 36년 통치기간의 2배나 되는 70년 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것이 못내 서운하다고 한다. 이제는 시간이 흘러 더 이상 자료를 찾을 수도 없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꾸 외면당하니 아쉽기만 하다. 사실 아버지 김덕형은 치매를 앓고 계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고 싶다.

최근 수원시에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재조명 사업이 진행되면서 책을 발간하고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할아버지의 독립운동을 의미 있게 다뤄줘서 자부심도 느끼



김노적 일제시기 소년단원



1910년 김노적 상무야학 수업증

게 된다고 한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아들 삼형제에게 정신적 지주였다. 그분들은 수원을 떠나지 말고 지키라고 하셨다. 손자들은 살면서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살아오신 이 땅에 그리고 수원에 누가 되지 않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평생 지조를 지키고 살아오셨다는 것이 존경스러울 따름이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정신과 의지를 계승하고 싶다고 손자들은 말한다.

독립운동가 김노적의 생애와 활동

김노적은 1895년 5월 12일 수원군 수원면 산루리 332번지에서 김용보와 김용선 사이에서 2남으로 출생하였다. 김노적은 1910년 상무야학(商務夜學)을 졸업하였다. 이는 1908년 수원상업회의소 야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12년 수원상업강습소 초등과에 입학하여 1914년 3월 졸업하고, 다시 1914년 4월 고등과에 입학, 1917년 3월 25일 졸업했다. 수원상업강습소는 1922년 이후 화성학원(華城學院)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지금의 수원중고등학교가 되었다.

김노적의 본과 재학 당시 '수원상업강습소'의 소장 겸 소감은 김세환(金世煥) 선생이었다. 상업강습소 졸업 이후 2년간 한문을 수업하고, 1919년 중앙고보 2학년으로 편입했다. 이 해는 3·1운동이 일어난 해였고, 김노적은 민족대표 48인으로 지칭되는 수원의 김세환 선생 지도 아래 수원지역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날 햇불시위를 주도했다는 김노적은 심한 고문과 구타를 당했는데, 머리를 총 개머리판으로 맞아 머리 한쪽이 함몰될 정도였고, 갈비뼈가 부러져 평생 늑막염에 시달렸다. 심한 고문으로 상처 입은 김노적을 성공회 신부들이 극진히 보살피 준 인연으로 영국 성공회에 가입하였다. 이에 1920년 7월 11일 결성된 수원 진명구락부가 창립되었을 때 도서부장을 맡았다. 그해 박선태·이득수·이선경 등의 구국민단, 혈복단 활동이 발각되었으나 동지들의 보안으로 체포는 면했다. 하지만 중앙고보에서 퇴학처분을 받아 배재고보로 전학, 4학년으로 편입하여 1922년 배재고보 제6회 졸업생이 되었다.

졸업 후 화성학원 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교를 그만두고 중국 남경(南京)으로 가서 건

업대학(建業大學) 고등학부 문과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듬해 1924년 귀국하였다. 이에 삼일학교와 화성학원을 교사를 오랫동안 역임했다. 김노적은 교사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운동에도 적극 관여하였는데, 1925년 배재고보 동기인 홍사혁 등과 수원 구제회(救濟會)를 조직하여 무의탁 노인들을 도왔고, 동시에 조선소년군 수원 제8대 대장으로 수원의 소년운동을 지도하기도 했다. 1927년 이후 신간회 창립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수원지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수원지역 사회운동을 이끌었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심해지자 삼일학교를 그만두고, 중국으로 망명, 중경으로 옮긴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귀국하였다.

해방 후 성안 장안동에 살 때 김구·조소앙·엄항섭 선생 등이 찾아와서 경기도당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을 했다. 1963년 자택에서 10년간의 투병생활을 끝으로 사망하여 뒷고개 공동묘지에 묻혔다. 1969년 수원의 삼일동지회에서 독립운동의 공로를 표창하였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이다.



김노적 가족과의 단란한 한때(부인, 이모, 첫째들 김덕형)
사진제공 손자 김현학

나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 **홍종철**입니다

독립운동가 홍종철의 딸 홍명숙의 아픈 현대사

고단했던 홍명숙의 삶

홍명숙은 6.25전쟁이 끝난 1955년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집은 가난했고, 연무동 우물가 부근 단칸방에서 할머니와 소아마비가 있는 2살 터울의 언니와 함께 살았다. 엄마는 젓먹이 시절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시는 날이 손꼽을 정도여서 거의 본 일이 없다. 홍명숙은 빨래나 각종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친할머니가 돌봐주셨지만 집안 살림은 어렵기만 했다. 홍명숙은 영화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저녁에는 껌이나 아이스크림, 겨울에는 옷을 팔아 생계를 꾸려나갔다. 집 옆에 있는 옛 공장이나 남문 양키상점에서 물건을 받아 종로에서 남문 영동시장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아 생계를 이어갔다. 간혹 다방에 물건을 팔러 들어가면 정비 일을 하던 사촌오빠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런 때는 얼굴이라도 마주칠까봐 몰래 숨어서 다니곤 했다. 남문일대를 돌아다니다 보면 밥 때를 넘겨 허기지면 장안동에 있는 가락국수집에서 국수를 사먹기도 했다. 그때는 가락국수가 참 맛있었다고 한다. 홍명숙의 껌팔이는 통금 시간인 12시가 가까워서야 끝났다. 통행금지 전에 돌아오기 위해 어두한 창룡문을 지나와야 했는데도,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이다. 어린 나이에 밤도 사람도 무섭지 않았다.

어렵게 살다보니 국민학교를 다 마치지 못했다. 14~16살 경 언니를 인계동 방에 두고는 둘째 큰집이 있는 서울로 가서 사촌언니와 함께 원효로에 있는 요꼬[편물] 공장에 취직을 했다. 그러다 다시 수원으로 내려와서는 10전투 비행단 식당에 취직을 했는데, 아버지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서울로 도망을 갔다. 했다. 수원역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봉고차로 사람들을 서울역 이근 인력시장에 내려놓으면, 거기서 식당으로 가거나 요꼬 공장으로 가거나 했다. 아버지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때는 열심히 살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행운은 쉽게 오지 않았다. 어느 날 언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돈 벌면 함께 살자고 굳게 약속을 하는데 말이다. 장애가 있는 언니가 어떻게 팔달산에 갔는지 알 수 없지만, 길을 잃고 헤매다가 흉악한 무리에게 잔인한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가족이라고는 언니 밖에 없는데, 그렇게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줄 몰랐다. 홍명숙은 22살에 결혼을 했다. 시댁은 개성피난민인데, 처음에는 결혼을 반대했었다. 피난 시절 잠시 수원에서 머물렀는데, 수원사람들이 깽쟁이라서 싫다고 한 것이다.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러 갔다가 부모님이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본인도 출생신고가 되지도 않았음을 알게 됐다. 영화국민학교는 입학서류나 절차 없이도 입학이 가능했기 때문에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음을 몰랐다. 아버지 홍종철과 어머니 김필순은 남남이었던 것이다. 어찌해서 서류를 꾸며서 외가가 있는 광주에서 부모님의 혼인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홍명숙의 불행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던 기억이 있어,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유전적으로 해가 미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평생 앓고 살아야 했다. 그녀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힘겹게 낳았고, 아들 다섯 중에 둘을 의료사고로 잃는 불행을 겪었다. 남은 아들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 주었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잘 살고 있다.

그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아픈 기억을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 남양주 도농동에 조그마한 빌라를 구입할 수 있었다. 집이 재개발 지역에 편입되면서 문제가 생겨 5년 이상의 소송으로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있는 상태이다.

홍명숙의 삶은 6.25전쟁 직후 가장 힘든 시기를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서 견뎌내야 했고, 70년대 서울로 올라가 식당 등에서 주방 일을 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으며, 결혼 후에는 의료사고로 자식을 잃었고, 도시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소시민이 겪어야 하는 좌절감과 패배를 온전히 겪어야 하는 전형적인 소시민의 그것이었다.

아버지 홍종철의 독립운동과 딸의 원망

어릴 적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소리를 외삼촌이나 집안 어른들한테 전해 들었다. 하지만 홍명숙은 막연하지만 아버지의 독립운동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당시에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도 있었고, 2년간 감옥생활로 친척들도 혹여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부담스러워 하는 걸 느꼈다고 한다.



1956년-수원사진대관

아버지 홍종철은 1941년 수원예술호연구락부 사건으로 2년간 투옥됐다고 하는데, 2009년 3·1절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해주기전까지는 자세하게 몰랐던 사실이다. 이 사건은 예술을 사랑하는 8명의 20대 청년들이 모여서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조선의 독립의 열망을 키워나가던 중, 항일 문서를 소지하고 있던 최용범이 잡히면서 나머지 멤버들 검거된 사건이었다. 당시 홍종철은 여동생과 함께 수원극장에 근무를 하면서 이들과 함께 했었다.

아버지에게는 사형제와 여동생 한명이 있었는데, 인계동에 사는 큰 형은 일찍 돌아가셨고, 둘째 형님은 남대문에서 생선 장사를 했고, 막내 동생은 매교동에 살았는데 병어리였고 어렵게 살았다. 아버지는 딱히 직업이 없었던 것 같고 쌀장사를 하기도 했고, 둘째형님의 생선 장사를 돕기도 했다고 한다.

외삼촌에게 들은 바로는 해방 이후에는 김구 선생님을 따라 다니셨다고 하는데, 영화에 나오는 모자를 쓰고 지프차를 타고 다닌 적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자세한 것을 알길 없는 홍명숙은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린 자매를 맡길 때가 없으면, 광주 오폐 외갓집이나 큰 집에 맡기곤 했다. 그렇게 맡겨지면 열흘이고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립운동은 가족을 어렵게 한 원인에 지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식을 돌보지도 않았고, 가족들에게 맡기고 나면 얼굴도 비추지 않는 나쁜 사람이었다. 초등학교도 채 마치지 못한 홍명숙에게 아버지는 원망의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독립운동가 아버지를 용서하다.

홍명숙은 자식은 꼬리를 자르고 산다고 말한다. 부모는 아무리 본인이 힘들어도 자식을 버리지 못하지만, 자식은 자신을 위해 부모를 외면하기도 하고 꼬리를 자를 수 있다고 했다. 자신도 아버지를 외면했다고 했다. 학교라도 졸업시켰으면, 가정을 돌봤으면 지금보다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다.

세월이 지나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용서를 했다. 평생을 미워하고 살았지만 돌아가신 뒤로는 그리움과 아버지에게 못해 드린 일만 기억이 났다고 한다. 가장 후회되는 일은 아이들과 못 만나게 한 것과 따뜻한 밥 한 끼 해드리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첫 아이가 서너 살 되던 해 막내 작은 아버지 댁에 간일이 있었다.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아버지가 찾아왔다. 손자를 한번 안아보고 싶어 하셨는데, 매몰차게 거절을 했다. 아버지도 평생 떠돌면서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을 텐데 손자를 안아보지도 못하게 한 게 가장 후회된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돌아가셨을 때이다. 1980년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기차를 타고 수원에 내려왔다. 아버지는 작은 방에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뼈쩍 마른 상태로 돌아가셨다. 자식이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따뜻한 밥 한 끼 손수 지어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리고는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오지 못하는 곳으로 달았던 일들을 지금은 후회를 한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뺨뺨 마른 상태로 돌아가신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여년이 흘러 2009년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셨다. 생전 꿈에 나타나지도 않으셨던 분인데 처음이었다고 한다. 깨끗한 차림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이 반가웠다고 한다. 그 후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그걸 꿈에 알려주려 나타나셨던 것 같다. 아버지 사진을 찾기 위해 매산동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찾았다. 아버지의 작은 사진을 찾아들고는 서럽게 울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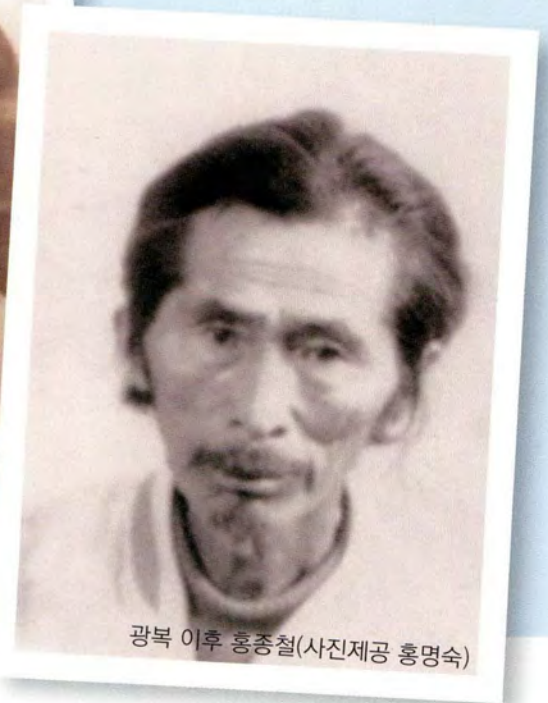
홍명숙에게 아버지의 독립운동은 고단한 삶의 원인이었다. 집안에 추억할만한 변변한 사

진 한 장이 없었고, 아버지와의 즐거운 추억조차 없었다. 어머니의 죽음, 언니의 죽음 그리고 어려운 삶이 모두 아버지 탓이었다. 남들은 독립운동은 나라를 위한 일이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모진 세월을 몸으로 견뎌낸 홍명숙에게는 그저 남의 말로만 들렸다. 아버지의 삶을 알지도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지금은 아버지를 용서한다. 홍명숙은 매년 아버지 기일에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드린다.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다들 존경스럽다고 하는데, 후손들은 가산을 탕진한 아버지요, 가족을 돌보지 않은 아버지 들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후손들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삶을 산 경우도 꽤 있었다. 대한민국 독립 70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후손들이 있다. 지금이라도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독립 70주년을 맞이하여 할 일이 아닐까 한다.



1941년경 홍종철



광복 이후 홍종철(사진제공 홍명숙)

3절

광복
70년,

역사의
흔적

· 수원의 독립운동과 사적지



1. 수원 3·1운동의 최초 발생지 동북각루

수원시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유산은 1796년 완공된 '수원 화성'이다. 1789년 읍치이전을 시작으로 화성행궁이 만들어지고, 조선 후기의 역량이 총 집결되어 최고의 계획도시 '화성'이 탄생했다. 화성은 역사적 변화 속에서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 지역 젊은 청년들의 새로운 시대로의 고민이 녹아있던 장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역 유지와 농민, 상인, 노동자, 학생, 기생 등 누구나 할 것 없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우리 민족 최대의 민족해방운동이었던 3·1운동의 역사적인 상징적 공간이다.

세계문화유산이자 사적 제3호로 지정된 화성은 전체 길이 5,744m이다. 중요 시설로는 4개의 성문과 5개의 암문, 2개의 수문, 2개의 은구, 2개의 장대, 2개의 노대, 3개의 공심돈, 4개의 각루, 5개의 대포를 설치한 포루, 5개의 포루, 1개의 봉돈, 8개의 치, 3개의 포사, 용도 등이 있다.

수원지역의 만세운동은 동북각루(방화수류정, 일명 용두각) 아래에서 시작되었다. 1919년 3월 1일 저녁 수백 명이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은 지식인, 청년 학생, 상인, 농민 등 수원면의 화성 성 내외에 거주하던 지역민들이었다. 이날의 시위는 김세환을 중심으로 한 김노적, 박선태, 임

순남, 최문순, 이종상, 김석호, 김병갑, 이희경, 신용준, 이선경 등의 기독교도와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다. 동북각루 아래에서 수원지역 3·1운동의 횃불을 높이 치켜들었던 젊은 청년들은 3·1운동 이후 조국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종상, 임순남, 최문순, 이선경, 박선태 등은 일본의 굴레를 벗어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1920년 6월 20일 '구국민단'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활동하기도 했다.

동북각루는 용연(龍淵)의 위에 있으며 1794년(정조 18) 9월 4일 공사를 시작하여 10월 7일에 상량하고 10월 19일 완성하였다. 편액(扁額)은 꽃을 찾고 버드나무를 따라 노닌다는 뜻의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이라 하였다. 용두위에 위치하고 있어 용두각(龍頭閣)이라고도 한다.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의 구획이 복잡한 듯 하지만 정자 안쪽에 국왕과 근신들의 자리를 배치하고, 일반신료들은 남쪽으로 길게 만든 공간에 상을 놓고 마주앉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평상시에는 유락의 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용연이란 연못을 파고 연못 가운데에는 작은 섬을 만들어 화목을 심어 동북각루와 어우러지게 꾸몄다. 용연은 광교산에서 수원천으로 흐르는 물의 유속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했다.



일제강점기 방화수류정과 용연



해맞이를 위해 화성장대에 모인 시민들

2. 민중의 함성이 울려퍼진 곳 서장대, 동장대

1919년 3월 16일 장날을 이용하여 팔달산 서장대와 동문 안 연무대에 수백 명이 모여 만세를 부르며 시가지 종로를 통과하였다. 그러던 중 시위 군중들은 일본 경찰과 소방대, 헌병에 의해 강제 해산을 당했고, 주동자가 붙잡혀 갔다. 그러자 시내에서는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장의 가게 문을 닫고 철시투쟁을 벌여나갔다. 이후에도 장날 학생과 노동자들이 시장에서 만세를 불렀고 시내 곳곳에서는 산발적인 만세운동이 지속되었다.

장대(將臺)는 장수가 높은 곳에 올라서서 전투를 지휘하는 곳이다. 화성에는 서장대와 동장대가 설치되어 있다. 서장대는 팔달산의 정상에 있다. 1794년(정조 18) 1월 원행시에 정조대왕은 팔달산에 올라 사방을 두루 살핀 다음 “이곳은 산꼭대기의 가장 높은 곳을 골라잡았으니 먼 곳을 살피기에 편리하다. 기세가 웅



서장대

장하고 탁 트였으니 하늘과 땅이 만들어낸 장대라고 이를 만하다.”고 하였다. 장대가 완성되고 정조 어필의 ‘화성장대(華城將臺)’라는 편액을 걸었다. 그리고 1795년(정조 19) 원행시에 정조대왕은 서장대에 올라 친히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동장대는 화성의 동북쪽에 있다. 서장대와 함께 화성 동쪽방면의 군사지휘소이자 군사훈련장이다. 편액은 연무대(鍊武臺)라고 하였다. 동장대는 선암산의 일맥이 매향동을 안고 굽이쳐 도는 가운데 등성이가 험하게 높이 솟아오른 고지대에 세워졌다. 장대에 올라가 보면 화성의 동쪽을 띠처럼 둘러 성안을 굽어볼 수 있어 전망이 좋아 대장이 먼저 점거할 만한 위치임을 알 수 있다.



동장대

3. 수원기생들의 만세운동지 화성행궁

오늘날 문화재로 수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1789년 읍치이전으로 건설된 화성행궁이다. 화성행궁은 임금이 행차하셨을 때 머무르시던 공간이자, 평상시에는 화성유수부의 관아 건물이었다. 그러나 나라를 잃고 식민지라는 틀 속에서 조선적인 것, 전통의 목살아래 화성행궁은 하나 둘 파괴되며 수난을 겪게 되었다.

수원기생 김향화(金香花, 金杏花)를 중심으로 30여명의 기생들은 1919년 3월 29일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세운동에 앞장섰다. 당시 화성행궁 봉수당은 일제의 식민지 수혜를 강조하며 자혜의원이 들어서 있었다. 일제의 식민지배 아래에서 기생들도 영업허가와 관리를 경시청으로부터 통제 받고 있었다. 식민 통제의 일환이었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던 김향화와 30여명의 수원기생들은 당당하게 '대한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자혜의원 앞 북군영 건물에는 수원경찰서가 들어서 일본 경찰과 수비대



1910년대 화성행궁에 설치된 수원자혜의원

가 총칼을 차고 근무하고 있었으나, 김향화와 수원기생들은 일제의 총칼에 굴하지 않고 만세를 부르는 기개를 보여주었다.

화성행궁은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현릉원을 참배하기 위해 행차하여 머물던 대표적인 행궁이었다. 정조대왕은 재위기간 동안 13차례에 걸친 능행을 정기적으로 행하였다. 이때마다 화성행궁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거행하였다. 그리고 노년에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와 함께 이곳에서 살고자 했다. 따라서 화성행궁은 조선시대에 건립된 수많은 행궁 중 최고의 행궁으로 정치·군사·행정적 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일제강점기 수원경찰서(화성행궁 북군영)

4. 소작농들의 만세운동지 수원역과 서호

서호(西湖, 祝萬堤)는 화성 축성과 함께 정조 임금이 새로운 농법을 실험하고자 만들었던 곳이다. 일제는 이러한 농업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식민지농업정책 기구인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을 1906년에 서호 옆에 세웠다. 일제는 권업모범장을 설치하여 곡물 종자를 강제로 바꾸며, 생산과정에 직접 개입하였다. 권업모범장의 농업 생산과정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일본인 지주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제 농업정책의 충실한 수행자였던 일본인 지주들은 1906년부터 권업모범장 주변에 농장을 설치하여 대규모 소작경영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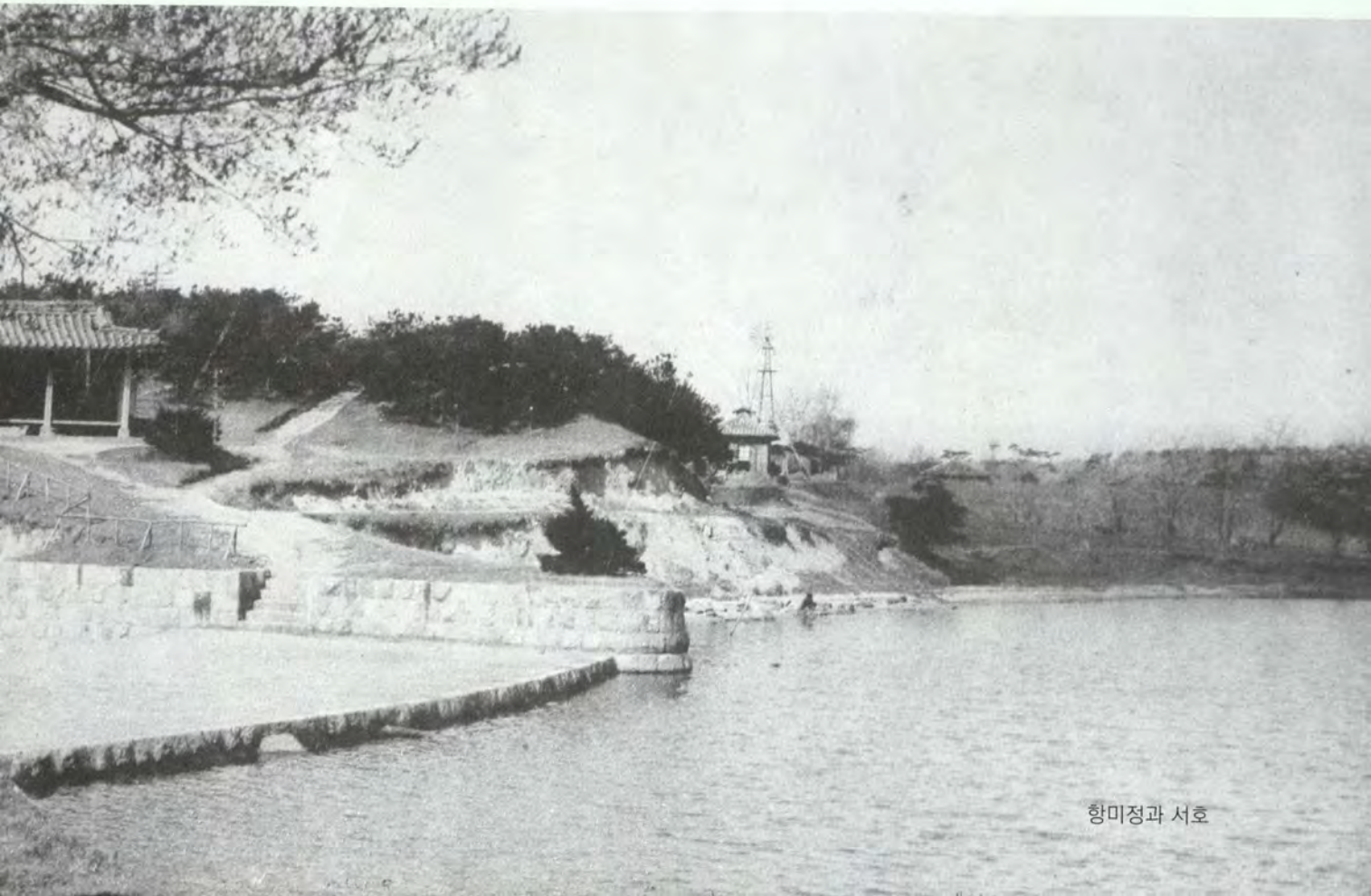
3·1운동 당시 수원지역의 소작농들은 만세를 부르며 이러한 노동력 착취와 생존권에 대한 투쟁을 벌였다. 1919년 3월 23일 수원역 부근의 서호에서는 700명이 시위를 벌이다가 일본 경찰과 헌병대 및 소방대의 제



지를 받고 해산했다.

경부선은 수원을 통과하는 중요한 노선이다. 1901년 9월 21일 서울 영등포에서, 같은 해 9월 21일 부산 초량에서 일본자본의 회사인 경부철도주식회사에 의해 기공되었다. 공사가 시작 된지 4년 후인 1904년 12월 27일 완공되었고, 1905년 1월 1일 개통되었다.

축만제(서호)는 화성의 서쪽 여기산 아래 축조한 저수지로 축만제둔(祝萬堤屯)의 관개시설로 만들어졌다. 1799년(정조 23) 정조대왕은 내탕금 3만 냡을 들여 축만제를 만들게 하고 수문 2곳을 갖추었다. 축만제는 천년만년 만석의 생산을 축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화성 서쪽에 있어 일명 서호로 불리고 있으며 저수지 한복판에는 인공섬을 만들어 화목을 심고 가꾸어 해질녘 서호에 비치는 낙조로 유명하다.



향미정과 서호

5. 민족운동가의 요람 삼일여학교*

삼일여학교는 수원을 상징하는 근대교육기관이었다. 수원지역에 기독교 신앙이 전래되면서 신문화 운동의 차원에서 1902년 설립되었다. 1900년 4월 10일 수원에 북감리교회가 설립되었다. 즉 종로교회인데, 삼일여학교는 종로교회의 '매일학교'로 시작되었다. 종로교회 부설학교 형태로 매일학교가 1902년 4월 이전에 15명으로 남자 매일학교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삼일학당의 시작이었다.

삼일여학당은 1902년 6월 미국 북감리교 여선교회 스크랜트 선교사에 의하여 3명으로 개교하였다. 삼일여학당은 사립학교령에 의하여 1908년 4월 28일 사립삼일여학교로 학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때 삼일여학교 교사 김메레의 교육에 대한 열성은 지역사회의 자랑거리이기도 했다. 김메레는 1904년부터 1916년까지 13년간 근속한 교사로 삼일여학교 초창기를 일구었던 산증인이었다. 삼일학교는 1909년 고등과 제1회 졸업생 20명을 배출하였고, 삼일여학교는 1910년 3월 23일 제1회 졸업생으로 나혜석·박충애·차우르다·홍보배 등 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삼일여학교 역사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1913년 김세환 선생이 삼일여학교 학감으로 부임하였던 점이다. 김세환은 학교를 자주 비우는 밀러 교장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삼일여학교는 1913년 교장 밀러의 노력으로 매향동 110번지에 근대식 건물을 짓고 이전하였다. 1920년 11월 교육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1926년 5월 보통학교로 인가되어 6년제 학교가 되었다. 이에 대한 기념식이 5월 21일 진행되었고, 새 건물 건축을 시작하였다. 학교 앞 수원천에 다리를 주민들과 학교에서 모금하여 새롭게 놓아 '삼일교'로 명명하였다. 이후 1930년 신입생은 40명이었고, 재적생은 114명으로 전체 학생수가 169명으로 늘었다.

1941년 5월 삼일여자보통학교에서 수원여자매향학교로 이름을 바꾸었고 해방을 맞이하였다. 지금은 남녀 공학으로 매향중학교가 되어있다.

*삼일여학교는 현재 매향중학교이다.



1950년대 수원천과 매항학교

6. 민족정신의 산실 종로교회

수원 시내의 본격적인 개신교 유입은 스웨어러(W. Swearer, 서원보, 1871~1916)의 1899년 보고서에서 알 수 있다. 그 보고에 따르면, 미북감리회 스크랜턴(Scranton) 선교사가 서울 이남 선교정책의 일환으로 수원에 선교기지를 세우고자 계획하고 서울에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 몇 가정을 수원으로 이주시켜 신앙공동체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곧 수원에 제일 처음 세워진 개신교 교회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수원종로교회의 출발점이다.

곧이어 1901년에는 미북감리회 서울 선교부에서 이명숙 전도사를 파송시켜서 북문 안에 13칸짜리 초가를 구입 개축하여 가족을 이주시켜 정착하여 수원시내에서 선교를 시작하였다. 그는 인접한 땅과 작은 집을 구입하여 숙소를 겸한 교회당을 이듬해인 1902년에 신축하였으며, 그곳에서 남자 매일학교를 함께 시작하였다. 곧이어 스크랜턴 대부인(Marry F. Scranton)이 매일여학교를 세워 여성교육에도 힘을 쏟게 되었다.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자 1908년에는 수원교회를 중심으로 '수원지방'이 조직되었다. 1912년에는 수원 지역 뿐만 아니라 제천, 음성을 포함하는 충북지역과 여주, 이천 등의 경기 동부, 그리고 남양, 안산 등 경기 서부를 관할하는 큰 선교 지방이 되었다. 개신교의 수원지방의 중심이 된 수원교회는 교세확장에 따라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였다. 1913년에 미국 백각부인(Mrs. Althera Babcocks Teither)이 자기 모친을 위하여 기념예배당을 지으라고 미화 150불(300원)의 기금을 기초로 종로에 함석지붕의 예배당 40평을 건축하여 '수원종로교회'라 불렀다. 이때 지은 교회의 위치가 지금의 복수동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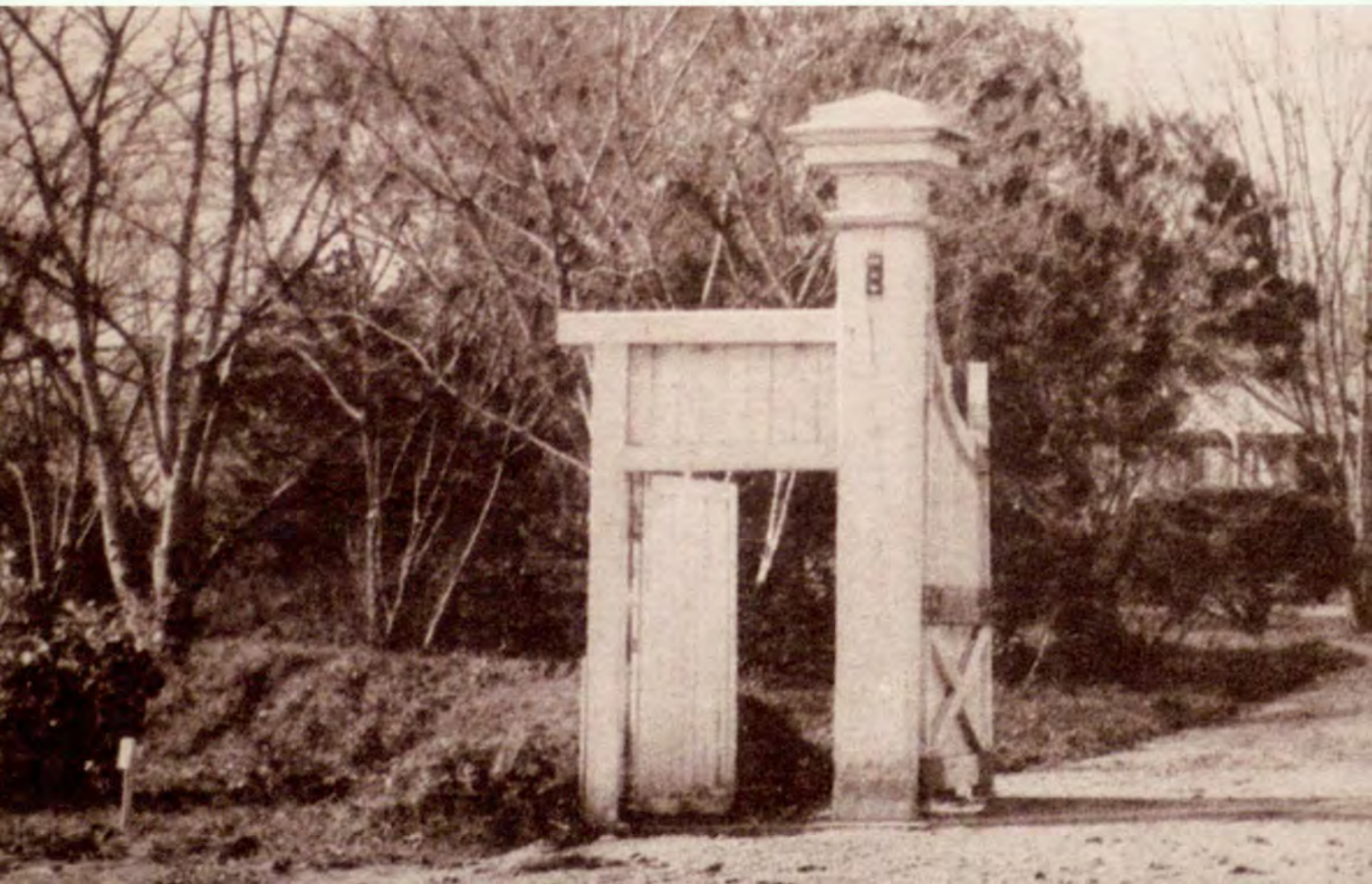
3·1운동에 참여한 김세환을 비롯한 신도들로 인하여 종로교회는 명실상부 민족정신의 발흥지였다. 때문에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계속 성장하여 1932년에는 2층 연와조 60여 평의 건물로 개축하였다. 현재의 종로교회 모습은 1969년 10월에 연와조 2층 379평으로 개축된 것이다.



7. 식민농업지배와 식민교육에 대한 저항 수원고등농림학교

수원은 농촌진흥청과 함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농업연구 도시 수원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건물만 남아버린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되었고, 농촌진흥청도 2014년 전주로 떠나 버렸다. 하지만 농업연구의 정통성은 정조대왕의 농업개혁 정신과 함께 수원의 정체성으로 남아있다.

현재 서울로 캠퍼스를 옮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전신은 수원고등농림학교이다. 권업모범장의 설치 이후 수원고등농림학교가 설립되었다. 1906년 9월 농상공학교를 각각 분리함과 동시에 교명을 농림학교라 개칭하면서 서울에서 개교하였다. 이후 1907년 수원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1908년 1월에는 당연직 교장이 농무국장에서 권업모범장으로 바뀌었고, 1910년 10월에는 관제개정에 의하여 교명이 조선총독부 농림학교로 바뀌면서 권업모범장에 부속 설치되었다. 그러다가 1918년 3월 조선총독부전문학교관제개



정에 의하여 수원농림 전문학교가 되었다. 1922년 3월에는 조선총독부제학교관제가 공포되어 이때 수원 고등농림학교가 되었다. 수원고등농림학교는 일본인 학생들과 조선인 학생들이 선별되어 다니고 있었는데, 교수와 관리들이 거의 일본인으로 조선인 학생에 대한 차별 대우가 매우 심하였다. 이에 우리 조선인 학생들은 굴하지 않고 차별대우의 철폐와 학생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1920년대 여러 차례 수십여 명의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이것은 식민지하에서 차별받던 민족적 울분의 표출이었다.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의 인권과 민족적 차별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독립을 향한 비밀결사운동 등을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지속하였다. 1927년 6월 김찬도 등이 중심이 되어 '건아단(健兒團)'이라는 비밀결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후 계림농흥사가 조직되어 항일투쟁이 벌어졌다. 계림농흥사는 조선개척사(朝鮮



일제강점기 수원고등농림학교(구 서울농대) | 사진소장 수원광교박물관

開拓社)로 재조직되어 조선의 독립을 위해 농민야학운동 등을 벌여나갔다. 1930년대에도 수원고등농림학교의 비밀결사운동은 계속되었다. 재학생들과 전국 각지의 수원고등농림학교 졸업생들이 연계하여 농민 중심의 문맹퇴치운동과 항일의식 고취에 전념하였다. 수원고등농림학교의 비밀결사운동은 우리말과 국사와 전통을 공부하여 항일독립정신을 함양하고 민족문화를 계승할 목적으로 독서회(한글연구회)를 조직하는 등 활발한 독립활동을 전개하였다.



수원고등농림학교 졸업 | 사진소장 수원광교박물관



1967년 게리헬쎄, 서호와 화서동 동말

4절

광복 70년, 미래를 향하여

· 광복 70년 수원의 변화



1. 1940년대~1950년대

해방의 기쁨과 남북분단의 포화, 고난 속 수원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3년 동안 지속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지면서 멈췄다. 하지만 지금도 휴전 상태로 한국전쟁은 한반도에 너무 큰 물적, 인적 피해를 가져왔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이산가족이라는 아픔을 남겼다.

수원은 한국전쟁 기간 4차례에 걸쳐 도시 점령과 탈환을 위한 공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한국전쟁 발발 초기에는 한강선 방어를 위한 국군과 미군의 지휘 본부가 있었으며, 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을 무렵에는 한강 이북 지역의 피난민들이 거주했던 피난민수용소가 도시 곳곳에 설치되었다. 이 때문에 수원은 전쟁기간 한국의 정치, 군사, 사회상을 한눈에 보여주는 몇 안 되는 도시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 1950. 06. 26 의정부 북한군에게 점령
- 1950. 06. 27 정부와 국회 수원으로 이동
- 1950. 06. 28 한강교 폭파
- 1950. 06. 28 밤 1시 북한군 서울 시내 진입, 서울 함락
- 1950. 06. 29 수원농업시험장(농촌진흥청) 육군본부와 극동사령부 전방지휘소 방어작전 주도
- 1950. 06. 29 미극동사령관 맥아더 전용기로 수원비행장에 도착
- 1950. 07. 04 오후 5시 북한군 제105전차사단 제203전차연대 수원에 진입, 오후 8시 북한군 제4사단이 수원을 점령
- 1950. 09. 15 7만 5천명 투입, 인천상륙작전
- 1950. 09. 21 미 제7사단 제32연대 오후 4시 수원 진입
- 1950. 09. 22 제31연대 본대 수원 수복
- 1950. 12. 31 중공군 제3차 공세
- 1951. 01. 07 중공군 제50군 수원 점령
- 1951. 01. 27 미군 수원 재탈환



한국전쟁으로 인해 수원은 많은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었다. 한국전쟁 이후 수원에는 화성과 관련하여 ‘남문은 남아있고, 서문은 서있고, 북문은 부서지고, 동문은 도망가고’라는 말이 전한다. 한국전쟁 때 화성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는데, 북한군을 몰아내고자 미군기가 화성을 폭격하였다. 하지만 이미 북한군은 철수한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장안문과 창룡문의 누각 등이 파괴되었다. 지금도 화성의 성벽에는 수많은 총탄 자국이 남아있다. 이외에도 전쟁의 포화로 수원군청이 무너지고, 많은 가옥들이 파괴되었다.

또한 많은 피난민들이 수원에 머물게 되었는데, 1951년 1·4후퇴 당시 수원과 평택 사이의 피난민은 30만 명으로 긴급구호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후에도 1953년 4월 남쪽으로 피난갔던 사람들이 북상하여 피난민은 약 16만 명이나 되었고, 수원에 7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집결하면서 수원천변 주변, 화홍문 방화수류정 내외에 토막집을 짓고 살며 피난민촌이 형성되었고, 세류동에도 피난민촌이 형성되었다.

한국전쟁 기간에 UN군으로 참전했던 터키군은 수원 서둔동에서 전쟁 고아 640여명을 위해 1952년 5월 ‘앙카라 고아원’을 설립하여 1966년까지 14년 동안 운영하기도 했다.



수원역 피난행렬

2. 1960년대~1970년대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수원,
농업연구의 도시 수원과 새마을 운동,
공업화의 전진기지

수원의 경제적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농업이었다. 수원은 지리상 삼남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수도 서울과 가까운 행정도시로서 기능해왔다. 더구나 수원은 조선후기 정조 임금 때 화성축성과 함께 새로운 도시의 건설이 추진되어 농업발전을 위한 저수지 만석거(萬石渠), 만년제(萬年堤), 축만제(祝萬堤)가 만들어지고 농장 둔전(屯田)이 설치되었다. 이때부터 수원지역은 우리나라 농업사 및 농학사의 한 장을 열게 되었고, 오늘날 수원이 농업연구 중심도시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일제는 이러한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식민지 농업정책의 기구인 권업모범장(본장)을 1906년 6월 수원군 축만제(서호) 옆에 세웠다. 일제는 권업모범장에서 일본 농법을 실험하여 강제적 이식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한일병합 후 조선총독부 소속이 되어 식민지 농업정책의 중요한 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해방 후 권업모범장은 1946년 미군 정청 중앙농사시험장으로 바뀌었고, 다시 1947년에는 농사개량원으로 개편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에는 농업기술원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1957년에는 농사원으로 전면 개편되어 2국 8부 1시험장 직제를 갖추었다. 현재의 이름인 농촌진흥청으로 개편된 것은 1962년이었다. 이후 수많은 직제 개편이 이루어졌고, 약 2,000여명의 인원이 연구하고 운영하는 국내 최대의 농업관련 국가기구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농촌진흥청은 1960~70년대 산업화와 함께 한국 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서둔동에 위치한 농촌진흥청은 중앙 정부 요인들이 참석하는 행사 이외에도 농업관련 기구들이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 진행하며 서둔동을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는 지역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기억하는 농촌진흥청은 식량문제를 해결한 '통일벼'가 개발된 곳이고, '씨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우장춘 박사가 연구에 몰두하였던 농업연구의 도시 수원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도시와 정책의 변화 속에 농촌진흥청은 2014년 7월 전북 혁신도시(전주시, 완주군)로 이전을 완료하였다. 앞으로 농업연구 도시의 중추였던 이곳은 공원, 농업박물관, 지역별 테마형 주거단지, 친환경 자족시설 용지 등으로 활용되어 시민들에게 휴식과 체험의 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1970~80년대를 살아 온 세대들은 너무나도 귀에 익숙한 노랫말이다. 1970년대를 상징하는 새마을 운동의 주제곡인 ‘새마을 노래’이다. 새마을 노래는 1972년 4월 21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작사·작곡하였고, 매일 같이 아침과 저녁에 농촌 마을의 확성기와 방송 매체(라디오 등)를 통해 흘러나왔던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 노래였다.

새마을 운동은 1970년 4월 22일 잘 살기 위한 운동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제창되었다. 근면·자조·협동의 기본적인 정신과 실천을 범국민적·범국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발전을 가속화 시키려는 목적 아래 진행된 운동이다. 새마을 운동은 정부의 절대적 지원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단순한 농촌개발 사업이 아니라 공장·도시·직장 등 한국사회 전체의 근대화 운동으로 확대·발전되었다.

1973년 5월 31일 수원에 새마을지도자 연수원이 신설되었다.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은 수원 농민회관을 임대하여 사용하였는데, 농촌진흥청 내에 위치했다. 10여 년 동안 수원에서 운영되었던 연수원은 1983년 4월 26일 성남시 분당구 율동으로 신축 이전하여 현재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새마을운동 초창기 서둔동은 농촌진흥청을 기반으로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곳이었다. 때문에 지난 70년대 권농일 행사, 모심기 행사, 벼베기 행사, 새마을 행사 등이 있을 때면 대통령이 빠지지 않고 들러갔던 곳이 서둔벌이었다.



수원지역의 공업화 과정을 보면 대륙침략을 위해 세웠던 철도가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경부선은 수원을 통과하는 중요한 노선으로 수원도 근대화라는 미명아래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되었다. 경부선은 일본자본의 회사인 경부철도주식회사에 의해 1905년 1월 1일 개통되었다.

이후 수원역사가 1928년 전통기와 건축으로 새롭게 지어져 다시 개통하게 되는데, 일제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 새로운 역사 대합실에서 성대하게 축하연을 벌였다. 그러면서 '순전히 조선식으로 만든 아름다운 수원역사'라고 식민지배의 효율적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수원역은 여주와 인천을 잇는 협궤열차가 운행을 하면서 경기도의 실제적인 교통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1931년 수원과 여주를 잇는 수여선과 1937년 수원과 인천을 잇는 수인선이 개통되는데 수여선은 쌀을 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인선은 경기만의 염전에서 소금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설되어 또 다른 식민행정과 도시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 해방 이후에는 삶이 묻어나며 사람과 사람이 마주했던 추억의 협궤열차로 1990년대까지 그 모습을 간직했던 철길이었다.

수원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굴지의 대기업인 SK와 삼성이 있다. 수원은 SK의 모태인 선경이 창업을 한 곳이고, 삼성이 기술혁신을 거듭하여 세계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발판을 마련한 곳이다. 지난 20여년전만해도 이 두기업의 월급날이면 수원의 중심이었던 화성 성내 남문의 경제가 하루에 한 달 동안의 매출을 올리며 춤을 추었다. 하지만 지금은 삼성전자도 연구단지만 남았고, SK 또한 평동의 공장시설이 가동을 멈춘 채 건물들만 남았고, 복수원 지역의 공장들이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서 수원에 있는 굴지의 기업들이 명성만 남아있다.

SK의 모태 선경은 1953년 수원에서 창업했다. 지금은 생산이 중단되었지만 수원역 뒤 평동에 있는 선경직물 수원공장은 창업 당시의 공장부지와 본관, 공장, 기숙사 등의 건물이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다. 선경직물 공장이 평동에 처음 세워진 것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였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폐허로 변한 직물공장을 1953년 최종건 회장이 매입하고 지금의 선경을 창업했다. 복구공사를 하고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은 1954년 이었다. 1950년대에 들어 선경 직물의 인조견 안감 상표인 '닭표'는 공전의 히트를 쳤



경기도청 이전식(1967년 6월 23일)



1968년 서울~수원~오산간 고속도로 개통



1970년대 수원 화성 복원

다. 당대 필수 혼숫감이 되었던 '봉황새' 본건(本絹) 이불감을 개발했고, '곰보나일론' 직물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선경직물 전성기는 1970년대였다. 이후 선경이 정밀화학과 생명과학 사업에 집중하면서, 2003년 9월 선경직물 수원공장은 문을 닫았다. 기업의 환경이 바뀌고 주력 업종이 변하면서 선경의 모태 공장인 선경직물 수원공장은 역사의 현장으로만 남게 되었다.

수원에는 또 다른 우리나라의 굴지 기업 KCC가 있다. 서호초등학교와 수원역 사이에 위치한 KCC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슬레이트 생산으로 기억된다. KCC는 1958년 '금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슬레이트공업으로 착박한 국내 건자재시장에 첫발을 내딛었다. 국내의 건자재 및 도료 시장을 선도하면서, 5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유기와 무기화학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정밀화학 업체로 도약하였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사업으로 농촌개량에 한 몫을 했던 것이 슬레이트였다. 농촌의 농가 지붕이었던 초가를 걷어내고 농가의 지붕 마감재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마을의 모습을 바꿔놓았다. 가난했던 시절 슬레이트 지붕은 우리에게 '잘 살아보자'는 하나의 희망 아이콘이었다. 하지만 세월은 흘러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슬레이트가 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이제는 철거의 대상이 되었다.

1960년대 이전 수원은 큰 공업화 기반을 갖추지 못했지만 일정규모 섬유업종을 비롯한 공업부문의 경제활동이 있었다. 1967년 6월 이후 경기도청이 이전되어 도정관련 20여 기관이 수원에 유치되었고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어(1968년 2월~1970년 7월) 수원시 동부 측면을 통과함으로 수원의 공업입지를 호전시켰다. 1970년대 공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었고, 섬유업종 뿐만 아니라 시멘트, 토석제품업체와 식료품제조업 등이 늘어났다. 또한 전자·전기업종의 육성 및 발전의 길이 열렸다. '삼성전자'가 1970년 일본기업과 합작투자계약을 성사 시키며 수원시 매탄동에 대규모 공장을 완공하여 입주하였고, 1973년 본사를 수원시로 이전시켰다. 이에 수원은 대단위 전자공업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2차, 3차 산업의 성장 추세가 지속되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발전하게 되었는데, 수원의 대표적 기업들로는 '선경합섬', '한일합섬', '대한방직', '금강', '삼성전자', '삼성전기'의 대기업들이었다.

3.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끝없는 열망

수원지역에서 전개된 민주화운동의 시작은 1960년 자유당정권의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에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도 참여했던 것이 시작이 되었다. 3월 10일 수원농림고등학교 학생 300여명이 장면 부통령의 연설회에 참여하기 위해 수원극장까지 행진을 벌이며 자유당 정권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 나갈 것을 주장했다. 이후 4·19의거가 일어나고 서울농대생 500여명이 규탄대회를 열어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다. 그러면서 수원농림고등학교, 북중학교, 수성고등학교, 수성중학교, 매향여자중학교, 매향여자상업고등학교, 수원중학교, 수원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다.

해방 이후 일제의 지배를 벗어나 서울대 농과대학은 우리나라 최고의 농업 연구자들을 양성하고, 때론 불의에 저항하며 수원지역 학생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서울농대의 학생운동은 해방 후의 국내안 반대운동, 4·19 시기의 계몽운동으로 이어졌다. 1960년 4·19 이후 서울농대는 선무반을 조직하여 시내 경비 및 질서유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서둔동 주민을 비롯한 수원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4·19 이후 대학생들의 정치적 발언권이 높아지고 서울농대 학생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졌다.

서울농대생들은 1964년 3월 9일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발족 직후인 3월 26일 본격적으로 한일국교정상화 반대투쟁에 돌입하였고, 6월 3일에는 광화문까지 도보시위를 하기 위해 교정에서 한일협정 반대집회를 가진 후 서울을 향해 행진하였다. 또한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된 날 수원 서둔동에 있던 상록캠퍼스의 서울농대생들은 전격적인 단식투쟁에 돌입하였다가 해산 당하였다.

1970년대 반유신투쟁을 통해 다시 한 번 학생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고, 이때 서울농대생 김상진 열사가 대강당 잔디밭에서 300여명의 학생 앞에서 시국성토회 연사로 나선 뒤 ‘양심선언문’을 낭독하고 할복

자결하였다. 이후 '김상진'과 '양심선언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의 정신과 함께 상징이 되었다. 1980년대 서울농대의 학생들은 '반정부', '반미'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화운동을 매우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서울농대의 민주화운동은 한국 사회의 주요한 정치 사회적 사건이나 변화와 맞물리면서 펼쳐졌다.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사건은 1987년 6월민주항쟁이었다. 6월민주항쟁은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기념비적 위치를 차지하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이었다. 수원지역의 6월민주항쟁은 종교인을 필두로 청년학생과 시민들이 함께하여 성공할 수 있었다. 6월항쟁은 1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바탕이 되어, 4·13호헌조치로 종교계를 비롯한 교수, 문화,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반대 여론이 조직되면서 동력을 만들어 냈으며, 6월 10일 국민대회를 통해 폭발하여 국민적 행동으로 이어져 승리한 국민운동이었다.

수원에서는 4월 14일 4·13호헌 철폐와 직선제 쟁취를 위한 성명서가 발표되었고, 6월 11일 경기대생과 서울농대생들의 단식농성이 시작되고, 6월 14일 남문근처에 5천여명이 대중집회를 하고 한신대생이 기숙사에서 심야토론을 진행하였다. 이후 아주대, 성균관대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합



1987년 6월민주항쟁, 수원역

게했다. 6월 18일에는 수원역 광장에 1만여 명의 시위대가 평화집회 보장시위를 열었으며, 6월 26일에는 '6·26평화대행진'이 남문과 북수동성당에서 출발하여 수원역에 7천여 명이 집결하여 집회를 열었다.

6월민주항쟁은 정치에서 상당부분 제도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졌고, 지방자치도 30여년 만에 단계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이후 노동자대투쟁과 농민운동, 빈민운동이 활발해지고, 많은 조직과 기관에서 자유가 크게 확대되고 민주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지며 통일운동도 거세게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6월민주항쟁 이후 각계각층의 민주화 열기가 고조되면서 과거 금기시되었던 통일 욕구가 적극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민주화운동의 진전은 한국사회의 근본문제인 분단문제에도 눈을 뜨게 하였다. 수원지역에서도 6월민주항쟁 이후 학생운동과 청년, 노동, 문화, 여성, 종교 등 다양한 부분에서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87년 8월 15일에 수원지구기독청년협의회(수원EYC)와 수원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수대협) 건설준비위는 수원역 광장에서 시민 300여명과 함께 8·15광복절 기념식을 갖고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우리 손 맞잡고 통일'이란 주제로 길놀이, 대동놀이, 마당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통일한마당 등 광범위한 통일행사들이 개최되면서 통일운동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었다.



1987년 6월민주항쟁, 팔달문 시장 골목

4. 1990년대

경제개발과 도시의 발전, 역사문화도시 수원으로의 도약

1990년대에는 수원 굴지의 기업 선정이 SK로 변화하고 삼성이 세계적인 그룹으로 변모하였다. 그리고 동수원 개발과 영통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지면서 도시의 모습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역사문화 복원도 진행되면서 화성행궁 복원사업을 시작했고, 1997년 수원 화성이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수원은 국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화성문화제 등 지역 축제가 활성화되었고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발전과 도약을 하게 되었다.



도시개발 이후 영통대로



〈역사문화관광도시로의 발전〉

1935년 5월 24일 수원성곽 사적 제3호 지정

1963년 1월 21일 수원성곽 사적 제3호, 화령전 사적 제115호 지정

1964년 9월 3일 팔달문 보물 제402호, 화서문 보물 제403호로 지정

1975년 6월 7일 ~ 1979년 9월 수원성곽 복원

1996년 12월 28일 수원성을 원래의 이름 '화성'으로 부르기로 함

1997년 12월 6일 '화성'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1996년 7월 ~ 2002년 7월 화성행궁 1단계 복원, 일반인 공개

2007년 6월 8일 화성행궁 사적 제478호 등록

2007년 6월 14일 조선왕실 의궤류 833종 세계기록유산 등재 권고(화성성역의궤, 원행음묘정리의궤 포함)

2011년 3월 3일 방화수류정(동북각루) 보물 제1709호, 서북공심돈 보물 제1710호로 지정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수원화성문화제(水原華城文化祭)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화성을 축조한 정조대왕의 개혁이념을 기리는 축제이다. 1964년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이 결정되고 기공식이 있던 10월 15일을 기념하며 수원 시민의 날을 경축하기 위하여 '화홍문화제(華虹文化祭)'라고 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시민의 날 축하로 시작된 수원화성문화제는 해마다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 등 재현 축제의 성격, 수원 전통 화합 축제의 성격, 특산물인 수원갈비를 주제로 한 지역 상품 페스티벌의 성격, 민속 경기를 통한 지역 민속 페스티벌의 성격, 다양한 예술 장르를 망라한 예술 페스티벌의 성격 등 다양한 특성을 통합하여 보여 주는 수원의 대표적인 지역 문화예술 종합행사로 2015년 52회를 맞았다.

5. 2000년대

125만 도시 수원, 인문학 중심도시, 시민을 중심으로

인문학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정조대왕의 개혁정신은 ‘애민, 효, 문예부흥’이 실증적으로 나타나 있는 수원 화성에 집약, 비인간적인 사회현실 속에서 인문학을 통한 삶의 가치회복을 위한 시대적 요구와 마주했다. 125만 인구의 도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광고신도시의 건설, 수원의 세계적 인물 박지성, 프로야구 제10 구단 KT WIZ, 수원고등법원 유치, 수원비행장 이전 결정 등이 수원의 발전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수원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광역화 도시급의 인구 125만 도시가 되었다. 도시를 움직이는 것은 도시의 구성원인 시민이다. 시민들이 하나의 힘으로 모일 때, 그리고 문화의 동질성을 느낄 때 도시경쟁력이 제고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 시민이고 시민공동체 문화복원 사업들이 도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힘이 되어가는데, 이제 그 첫걸음이 수원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 동 근

수원시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

‘역사는 삶’입니다

광복70주년의 행사는 2014년 제안을 받고서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였는데, 수원시의 학예연구사로서, 수원지역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당연히 참여해야하는 행사였습니다. 광복70주년 기념행사의 추진위원으로서 전반적인 행사의 기획 및 자문, 자료의 제공, 행사 운영 등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체성과 자긍심을 찾아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론 바쁘고 힘들었지만 아주 많은 보람을 느꼈던 한 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은 과거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역사 속 식민지라는 어두운 긴 터널 속에서 차별과 폭력에 굴하지 않고 저항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희생위에 바로 오늘이 존재합니다.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3월 28일 ‘수원, 그날의 함성’이라는 독립운동사 재현 퍼포먼스가 일부 기획자와 시민들의 힘으로 펼쳐졌습니다. 김향화, 이선경 두 명의 여성 독립운동가와 여성 인권의 상징 나혜석이라는 우리 지역의 자랑스런 분들이 살아 돌아오신 듯 했습니다. 배우들의 가슴을 울리는 열연과 함께 이를 기억하고자 했던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 광복70주년 새로운 희망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함성 속에 묻혀 살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더욱 더 무거운 책무가 주어졌지만 앞으로의 삶에 큰 방향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의 외침은 8월 15일 1만여명의 대합창이라는 희망으로 이어졌고, 지난 70년의 역사와 새로운 70년, 700년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작은 씨앗을 보았습니다. 그 작은 씨앗은 앞으로 수원시민들의 가슴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아름답고 행복한 열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과거와 현재가 대화를 할까요? 바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광복70주년은 바로 그러한 인고의 과거 속에서 우리가 주제로 펼쳤던 것처럼 평화, 인권, 통일의 중요한 의미를 준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이루고 실천하기 위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우리들의 가장 큰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다시 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광복70주년 수원시민들의 뜨거운 외침이 미래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과거의 모습들을 그냥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내일의 희망과 행복한 삶을 마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는 삶'입니다.



광복70주년 기념백서 제작에 참여하여

류 현 희

2015년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수원시가 기념행사를 마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백서로 남긴다고 하는데,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영광이다. 사실 일반적으로 백서는 사업에 충실한 백과사전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백서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백서에 충실하기보다, 후대를 위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사업이 추진된 근본적 목적에 충실하게 구성되도록 기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역사적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늘 기록이 없어서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복적이고 식상할 지라도 역사 기록은 끈질기게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스스로 역사를 남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자, 우리 자신을 위한 작은 위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픈 역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모두가 칭송하는 독립운동을 한 아버지를 둔 딸은 삶의 현장에서 아파했으며, 또 다른 이는 할아버지의 독립운동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독립운동 한 것을 수원시에서도 광복회에서도 인정하지만 증거부족으로 포상 받지 못해 서운한 손자들도 있었다.

기록으로 남지 않은 역사가 남긴 후유증이다. 때문에 이번 백서는 70주년 기념행사가 완결이 아닌, 역사를 마주하는 거울이 되기를, 또한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독립운동가와 그들의 역사를 복원하는 중간과정이기를 바랬다. 비록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모두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의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부록

- 수원의 항일독립운동가
-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명단
- 광복70주년 지원조례



수원의 항일독립운동가

연번	성명(한자)	생몰년도	출신지	내용	훈격
1	강경식 姜敬植	1888~미상	송산면 고포리	반월 안산 3·1운동 참가	
2	강성문 康聖文	1924~미상	수원면 영정	수원예술호연구락부	
3	강태성 姜太成	미상~1919	향남면 제암리	향남면 3·1운동 참가, 제암리 학살사건 순국	애국장
4	고재천 高在千	1905~1981	경기도 수원	수원고농 건아단 비밀결사에 참가	애족장
5	공석정 孔錫政	1902~미상	성호면 오산리	신간회 수원지회, 수원노동조합	
6	공칠보 孔七甫	1883~1939	성호면 걸리	성호면 3·1운동 참가	대통령표창
7	구철회 具喆會	1915~1965	수원면 장안동	일본에서 죽마계를 조직·활동	애족장
8	김경도 金敬道	1886~1927	성호면 오산리	성호면 3·1운동 참가	애족장
9	김경배 金慶培	1911~미상	수원면 본정	작업활동	
10	김교창 金敎昌	1889~1959	강화군 산원면 창리	송산면 3·1운동 주도	애국장
11	김교철 金敎哲	1880~미상	장안면 수촌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가와바다 순사 처단	애국장
12	김교헌 金敎獻	1867~1923	비봉면 구포리	대종교 2대 교주, 북로군정서 조직	독립장
13	김규완 金奎完	1891~1961	장안면 수촌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애족장
14	김길준 金吉俊	1923~미상	수원읍 영정	치안유지법 위반	
15	김노적 金露積	1895~미상	수원면 산루리	3·1운동, 수원소년동맹, 신간회 수원지회	
16	김덕근 金德根	1889~1958	장안면 수촌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가와바다 순사 처단	애족장
17	김덕삼 金德三	1876~1953	장안면 수촌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애족장
18	김덕용 金德用	1900~1919	향남면 제암리	향남면 3·1운동 참가	애국장
19	김도정 金度貞	1889~1971	송산면 사강리	송산면 3·1운동 참가	대통령표창
20	김명우 金明友	1887~1951	장안면 수촌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애족장
21	김명제 金命濟	1863~1926	장안면 수촌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가와바다 순사 처단	애국장
22	김명호 金明鎬	1887~1951	장안면 수촌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가와바다 순사 처단	애족장
23	김민찬 金玟贊	1902~1950	강원도 이천군	수원고농건아단, 조선개척사조직	애족장
24	김봉일 金奉日	1905~1983	경상남도 고성	수원고농 건아단 비밀결사에 참가	애족장
25	김성실 金成實	1869~1931	송산면 사강리	송산면 3·1운동 참가	대통령표창
26	김성열 金聖烈	1871~1919	팔탄면 고주리	향남면 3·1운동 참가, 제암리 학살사건 순국	애국장
27	김성원 金聲遠	1906~1998	함경남도 함흥군	수원고농 건아단 비밀결사에 참가	애족장
28	김세열 金世烈	1875~1919	팔탄면 고주리	향남면 3·1운동 참가, 제암리 학살사건 순국	애국장
29	김세환 金世煥	1888~1945	수원면 남수리	애국계몽운동, 3·1운동 참가	독립장
30	김씨강태성부인 金氏(姜太成夫人)	1899~1919	향남면 제암리	향남면 3·1운동 참가 중 순국	애족장
31	김씨홍원식부인 金氏(洪元植夫人)	미상~1919	향남면 제암리	향남면 3·1운동 참가 중 순국	애족장
32	김영상 金榮相	1908~미상	평택 고덕면 두릉리	치안유지법 위반	
33	김영현 金寧炫	1907~1944	전라북도 옥구	수원고농출신, 독립군 가담	독립장
34	김용준 金容俊	1881~1936	송산면 사강리	송산면 3·1운동 주도	애국장
35	김용창 金容昶	1926~1945	향남면 상두리	서울에서 '조선독립의 때는 왔다'는 내용의 낙서기재	애국장
36	김원섭 金元燮	1884~미상	경기도 수원군	대한독립단집안환인총지단장	애족장
37	김윤규 金允圭	1894~1962	음덕면 신남리	대부면 3·1운동 참가	애족장
38	김응식 金應植	1879~1944	장안면 수촌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가와바다 순사 처단	애족장
39	김응오 金應五	1885~1949	장안면 수촌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주도	애족장
40	김익수 金益洙	1900~1968	경기도 수원군	수원고농 건아단 비밀결사에 참가	애족장
41	김장성 金長星	1913~1932	수원면 산루리	수원소년동맹	애족장
42	김재근 金載根	1894~1964	서울 영등포구	수원고농 출신, 3·1운동 참가, 철원애국단 활동	독립장

연번	성명(한자)	생몰년도	출신지	내용	훈격
43	김재동 金在東	1908~미상	정남면 황계리	치안유지법 위반	
44	김정두 金正斗	미상	송산면 독지리	고려공산청년회	
45	김정헌 金正憲	1876~1919	항남면 제암리	항남면 3·1운동 참가, 제암리 학살사건 순국	애국장
46	김정화 金正華	1922~미상	수원읍 우만정	치안유지법 위반	
47	김종수 金鍾壽	1909~1947	전라남도 장성군	수원고농 출신, 개척사운동 전개, 화서야학원 활동	애족장
48	김종학 金鍾學	1885~미상	장안면 수촌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가와바다 순사 처단	애족장
49	김주남 金周男	1895~1919	팔탄면 고주리	항남면 3·1운동 참가, 제암리 학살사건 순국	애국장
50	김주업 金周業	미상~1919	팔탄면 고주리	항남면 3·1운동 참가, 제암리 학살사건 순국	애국장
51	김찬도 金燦道	1907~미상	황해도 해주	수원고농 건아단 주도	애족장
52	김향화 金香花	1897~미상	수원면 남수리	수원지역 기생 3·1운동 주도	대통령표창
53	김흥렬 金興烈	미상~1919	팔탄면 고주리	항남면 3·1운동 참가, 제암리 학살사건 순국	애국장
54	김흥복 金興福	미상~1919	팔탄면 고주리	항남면 3·1운동 참가, 제암리 학살사건 순국	애국장
55	김흥삼 金興三	1882~1938	장안면 수촌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가와바다 순사 처단	애족장
56	김흥식 金興植	1893~미상	음덕면 무송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가와바다 순사 처단	
57	남상환 南相煥	1908~1933	송탄면 서정리	수진농민조합	애족장
58	남영희 南榮熙	1905~미상	음봉면 동천리	수원고농 건아단 비밀결사에 참가	애족장
59	노병상 盧秉相	1891~1982	음덕면 신남리	대부면 3·1운동 참가	애족장
60	맹승재 孟升在	1923~1959	당진군성면봉소리	수원예술호연구락부	애족장
61	문봉선 文奉善	미상	수원면 북수리	치안유지법 위반	
62	문상익 文相翊	1893~1960	송산면 사강리	송산면 3·1운동 주도	독립장
63	문용배 文庸培	1917~미상	성호면 양산리	치안유지법 위반	
64	민용운 閔用云	1876~1929	송산면 사강리	송산면 3·1운동 참가	애국장
65	박광남 朴光男	1901~미상	동탄면 장지리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됨	
66	박도병 朴道秉	1917~2002	경상남도 지주	수원고농 출신, 한글연구회	애족장
67	박석진 朴錫鎭	1896~1934	반월면 1리	반월면 3·1운동 참가	대통령표창
68	박선태 朴善泰	1901~1938	수원면 산우리	구국민단, 진명구락부	애족장
69	박승극 朴勝極	1909~미상	양감면 정문리	수원청년동맹, 신간회 수원지회,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70	박영호 朴永鎬	1899~미상	송산면 사강리	송산면 3·1운동 참가	애국장
71	박인종 朴仁鍾	1923~미상	북면 아막리	수원예술호연구락부	
72	백낙열 白樂烈	1865~1937	장안면 수촌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주도	건국포장
73	백명흠 白明欽	1909~1936	안룡면 안녕리	노농운동	애족장
74	백봉흠 白奉欽	1911~미상	안룡면 안녕리	치안유지법 위반	
75	백세기 白世基	1907~1999	경기도 수원군	수원고농 건아단 비밀결사에 참가	애족장
76	백순익 白順益	1882~1963	장안면 수촌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애족장
77	변기재 邊基在	1904~미상	성호면 오산리	수원청년동맹, 신간회 수원지회	
78	성주복 成周復	1894~1971	의왕면 청계리	서울 남대문 역전 3·1운동 참가	건국포장
79	송종혁 宋鍾赫	1868~1919	우정면 화수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중 순국	애국장
80	신상완 申尙玩	1891~1951	안녕리 용주사	유심회 회장, 철원 애국단, 군자금 모집 활동	애국장
81	신중원 申仲元	1877~미상	수원군 남문	정재학의진에 소속	애족장
82	심인택 沈仁澤	1910~미상	고덕면 율포리	치안유지법 위반	
83	심좌보 沈佐輔	1925~미상	반월면 둔대리	치안유지법 위반	
84	안경순 安慶淳	미상~1919	항남면 제암리	항남면 3·1운동 참가, 제암리 학살사건 순국	애국장

연번	성명(한자)		생몰년도	출신지	내용	훈격
85	안관순	安官淳	미상~1919	항남면 제암리	항남면 3·1운동 참가, 제암리 학살사건 순국	애국장
86	안명순	安命淳	1900~1919	항남면 제암리	항남면 3·1운동 참가, 제암리 학살사건 순국	애국장
87	안무순	安武淳	미상~1919	항남면 제암리	항남면 3·1운동 참가, 제암리 학살사건 순국	애국장
88	안봉순	安鳳淳	1894~1919	항남면 제암리	항남면 3·1운동 참가, 제암리 학살사건 순국	애국장
89	안상용	安相鎬	1900~1919	항남면 제암리	항남면 3·1운동 참가, 제암리 학살사건 순국	애국장
90	안순원	安順元	1886~1950	송산면 사강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가와바다 순사 처단	애국장
91	안유순	安有淳	미상~1919	항남면 제암리	항남면 3·1운동 참가, 제암리 학살사건 순국	애국장
92	안정옥	安政玉	1861~1919	항남면 제암리	항남면 3·1운동 참가, 제암리 학살사건 순국	애국장
93	안종락	安鍾樂	1871~1919	항남면 제암리	항남면 3·1운동 참가, 제암리 학살사건 순국	애국장
94	안종린	安鍾麟	미상~1919	항남면 제암리	항남면 3·1운동 참가, 제암리 학살사건 순국	애국장
95	안종엽	安鍾燁	미상~1919	항남면 제암리	항남면 3·1운동 참가, 제암리 학살사건 순국	애국장
96	안종환	安鍾煥	1899~1919	항남면 제암리	항남면 3·1운동 참가, 제암리 학살사건 순국	애국장
97	안종후	安鍾厚	1889~1919	항남면 제암리	항남면 3·1운동 참가, 제암리 학살사건 순국	애국장
98	안진순	安珍淳	1896~1919	항남면 제암리	항남면 3·1운동 참가, 제암리 학살사건 순국	애국장
99	안필순	安弼淳	미상~1919	항남면 제암리	항남면 3·1운동 참가, 제암리 학살사건 순국	애국장
100	양순서	梁順西	미상~1919	수원군 장안면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중 순국	애국장
101	여대현	呂大鉉	1921~1991	경기도 수원군	비밀결사효민회조직, 독립운동 전개 협의, 활동	애족장
102	염석주	廉錫柱	1895~1944	일형면 울천리	신간회 수원지회	
103	예종구	芮鍾九	1897~1950	송산면 고포2리	송산면 3·1운동 주도	
104	오광득	吳光得	1879~1947	송산면 사강리	송산면 3·1운동 참가, 노구치 순사 처단	애국장
105	오병훈	吳炳訓	1884~1910	항남면 행정리	안중면, 매곡면서 의병 군자금 모집	애족장
106	왕광연	王光演	1872~1951	송산면 사강리	송산면 3·1운동 주도	독립장
107	용헌식	龍憲植	1915~미상	일왕면 송죽리	치안유지법 위반	
108	우종휘	禹鍾徽	1904~1972	함경남도 삼수군	수원고농건아단,계림흥농사조직,조선개혁사조직	애족장
109	유기현	柳基玄	1921~1940	경기도 수원군	광복군제2지대활동중순국	애족장
110	유달영	柳達永	1911~미상	경기도 이천군	수원고농 출신, 조선성서사건 가담	건국포장
111	유성구	劉成九	1881~미상	경기도 수원군	의병진 참가	애국장
112	유수산	柳秀山	1891~1951	장안면 사곡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애족장
113	육동백	陸東百	1908~2007	충청북도 옥천	수원고농 건아단 비밀결사에 참가	애족장
114	윤영배	尹永配	1905~미상	장안면 어은리	조선공산당	
115	윤영선	尹永善	1895~1967	화성면 장안면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애족장
116	이경백	李敬伯	미상~1919	미상	우정·장안면 3·1운동참가중 순국	애국장
117	이경집	李敬集	1883~1943	송산면 사강리	송산면 3·1운동 참가, 노구치 순사 처단	대통령표창
118	이규선	李奎善	1885~1941	송산면 중송리	송산면 3·1운동 참가, 노구치 순사 처단	독립장
119	이규선	李圭璇	1895~1955	북면 봉남리	성호면 3·1운동 참가	애족장
120	이두종	李斗鍾	1916~1997	평택에서 신대리	평택에서 독서회, 극단 활동	대통령표창
121	이병억	李秉億	1879~1973	수원면 산루리	구국민단 구제부장	애족장
122	이선경	李善卿	1902~1921	수원면 산루리	나성 한인교민단 조직, 북미총회 활동	애국장
123	이성구	李成九	1895~1973	일형면 조원리	성호면 3·1운동 참가	애족장
124	이순모	李順模	1893~1975	장안면 수촌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중 순국	독립장
125	이영쇠	李永釗	1898~미상	미상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가와바다 순사 처단	
126	이완보	李完甫	1856~미상	강원도 회양면	김보삼의진에서 활동, 수원에서 군자금 모집활동	애국장

연번	성명(한자)	생물년도	출신지	내용	훈격
127	이용성 李用成	1906~미상	수원면 산루리	수원청년동맹	
128	이용준 李容俊	1912~미상	일형면 파장리	치안유지법 위반	
129	이원섭 李元燮	1904~미상	양감면 용소리	치안유지법 위반	
130	이원식 李元植	1897~미상	성호면 오산리	치안유지법 위반	
131	이유만 李裕萬	1876~1964	원곡리 칠곡	양성면·원곡면 3·1운동 주도	애족장
132	이윤식 李潤植	1879~1955	송산면 사강리	송산면 3·1운동 참가, 노구치 순사 처단	애국장
133	이정근 李正根	1856~1919	팔탄면 가재리	항남면 3·1운동 참가 중 순국	애국장
134	이정방 李鼎邦	1900~미상	서울 관악구	혈복단을 결성	애국장
135	이진수 李眞洙	1905~미상	성호면 가수리	치안유지법 위반	
136	이창희 李昌會	1872~1960	음덕면 남양리	대한자강회 활동, 3·1운동 관련 문서 제작, 배포	애족장
137	이철림 李昌會	1901~1959	팔탄면 덕우리	충남홍성 3·1운동 참가	대통령표창
138	이하영 李夏榮	1870~1952	경기도 수원면	애국계몽운동, 국채보상운동	건국포장
139	이현경 李賢卿	1899~미상	수원면 산루리	동경 히비야공원 만세운동, 근우회 주도	
140	인세봉 印世鳳	1892~1965	장안면 금의리	천안 3·1운동 참가	애족장
141	인수만 印壽萬	1895~1945	장안면 석포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애족장
142	임면수 林勉洙	1874~1930	수원면 북수동	애국계몽운동, 국채보상운동, 신민회	애족장
143	임봉호 林鳳鎬	1918~1899	전라북도 순창	수원고농 출신, 한글연구회	애족장
144	임팔룡 林八龍	1888~1921	송산면 사강리	송산면 3·1운동 참가, 노구치 순사 처단	애국장
145	장보라 張保羅	1906~미상	수원면 산루리	치안유지법 위반	
146	장소진 張韶鎭	1886~미상	우정면 주곡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가와바다 순사 처단	독립장
147	장제덕 張濟德	1882~미상	우정면 주곡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주도	애국장
148	장주문 張柱文	1906~미상	양감면 용소리	치안유지법 위반	
149	장형인 張亨仁	1912~미상	항남면 발안리	치안유지법 위반	
150	장희순 張喜順	1921~미상	우정면 조암리	오류조 조직, 강제 학병모집에 항거	대통령표창
151	전도선 全道善	1891~미상	송산면 사강리	송산면 3·1운동 참가, 노구치 순사 처단	
152	정군필 鄭君弼	1883~1973	송산면 사강리	송산면 3·1운동 주도	애국장
153	정규환 鄭奎煥	1894~1961	성호면 오산리	성호면 3·1운동 참가	애족장
154	정서송 鄭庶松	1897~1966	송산면 사강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독립장
155	정순영 鄭淳榮	1868~1944	장안면 수촌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가와바다 순사 처단	애국장
156	정정산 鄭正山	1916~미상	수원시 평동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입대, 광복군 활동	애국장
157	정주원 鄭周源	1870~1925	죽산군 원삼면	경기도, 충남 일원에 걸쳐 활동한 의병장	애국장
158	정진동 鄭鎭東	1905~미상	성호면 가수리	치안유지법 위반	
159	정청산 鄭靑山	1909~미상	수원면 남수리	치안유지법 위반	
160	조경칠 趙敬七	1873~1919	항남면 제암리	항남면 3·1운동 참가, 제암리 학살사건 순국	애국장
161	조득렬 曹得烈	1910~1961	수원면 매산리	조선총독부 고관 암살 미수	애국장
162	조명재 趙明載	1901~미상	태장면 지리	치안유지법 위반	
163	조문기 趙文紀	1927~2008	경기도 수원군	부민관 폭파 의거	애국장
164	조용한 趙鏞漢	1894~1935	경기도 양주군	임시정부요원, 수원지역서 군자금모집	애국장
165	조춘성 趙春成	1910~1968	안용면 동두천	연합군 폭격기의 조선, 일본 폭격설을 유보	대통령표창
166	차경현 車敬炫	1882~1939	송산면 사강리	송산면 3·1운동 참가, 노구치 순사 처단	애국장
167	차계영 車啓榮	1913~미상	수원면 산루리	치안유지법 위반	
168	차병한 車炳漢	1885~1933	장안면 석포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가와바다 순사 처단	애국장

연번	성명(한자)	생몰년도	출신지	내용	훈격
169	차병혁 車炳赫	1889~1967	장안면 석포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가와바다 순사 처단	독립장
170	차인범 車仁範	1901~1922	장안면 수촌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중 순국	애국장
171	차준철 車濬哲	1922~미상	수원읍 영정	치안유지법 위반	
172	차희식 車喜植	1870~1939	우정면 주곡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가와바다 순사 처단	독립장
173	최경창 崔慶昌	1905~미상	성호면 세교리	치안유지법 위반	
174	최만성 崔萬成	1877~1930	동탄면 영천리	동탄면 3·1운동 참가	대통령표창
175	최완희 崔完喜	1913~미상	성호면 두곡리	치안유지법 위반	
176	최용범 崔龍範	1924~미상	일형면 정자리	치안유지법 위반	
177	최웅진 崔雄鎭	1916~미상	수원면 남수리	치안유지법 위반	
178	최장섭 崔長燮	1892~1970	우정면 화수리	우정·장안면 3·1운동 참가 중 순국	애족장
179	최진 崔鎭	1917~1993	평안남도 강서군	수원에서 황국신민화 정책에 항거	애족장
180	최춘보 崔春甫	1867~1936	송산면 사강리	송산면 3·1운동 참가, 노구치 순사 처단	애국장
181	최태종 崔泰鍾	1920~미상	수원면 남부정	치안유지법 위반	
182	한상건 韓相建	1908~미상	반월면 사사리	치안유지법 위반	
183	한인택 韓麟澤	1905~미상	수원면 남창리	비밀결사 소책대 활동	
184	홍가륜 洪加勒	1913~미상	음덕면 남양리	의열단 가입, 조선혁명간부학교 입학	애족장
185	홍관후 洪寬厚	1890~1971	송산면 삼촌리	송산면 3·1운동 참가	애국장
186	홍남후 洪南厚	1871~1924	송산면 삼촌리	송산면 3·1운동 참가, 노구치 순사 처단	애국장
187	홍대우 洪大宇	1847~1919	서신면 전곡리	송산, 서신, 마도3면 3·1운동 참가 중 순국	애국장
188	홍면옥 洪冕玉	1884~미상	송산면 사강리	송산면 3·1운동 주도	
189	홍명선 洪明善	1900~1974	화성군 송산면	송산면 3·1운동 참가, 노구치 순사 처단	애국장
190	홍문선 洪文善	1889~미상	미상	송산면 3·1운동 참가	

평화

연번	성명(한자)	생몰년도	출신지	내용	훈격
191	홍복룡 洪福龍	1901~미상	송산면 사강리	송산면 3·1운동 참가, 노구치 순사 처단	
192	홍사묵 洪思默	1924~1953	팔탄면 하저리	일제 식민지정책 비판, 조선의 독립 가능성을 발언	애족장
193	홍사철 洪思哲	1880~1941	동탄면 중리	동탄면 3·1운동 참가	대통령표창
194	홍순진 洪淳晉	미상~1919	항남면 제암리	항남면 3·1운동 참가, 제암리 학살사건 순국	애국장
195	홍순형 洪淳迥	1918~미상	성호면 세교리	치안유지법 위반	
196	홍승한 洪聖漢	1894~1928	송상면 사강리	송산면 3·1운동 참가	건국포장
197	홍애시덕(애스테) 洪愛施德	1892~미상	경기도 수원군	기독교 계열 계몽운동	애족장
198	홍영유 洪泳裕	미상	서신면 전곡리	치안유지법 위반	
199	홍우선 洪宇善	1866~1919	송산면 사강리	송산면 3·1운동 참가, 노구치 순사 처단	애국장
200	홍운표 洪云杓	1913~미상	비봉면 남전리	치안유지법 위반	
201	홍원식 洪元植	미상~1919	항남면 제암리	의병활동, 구국동지회, 3·1운동 참가	독립장
202	홍원표 洪元杓	1875~1962	음덕면 신남리	부천구 3·1운동 참가	애족장
203	홍원후 洪元厚	1905~미상	송산면 봉가리	치안유지법 위반	
204	홍종갑 洪鍾甲	1902~미상	성호면 세교리	치안유지법 위반	
205	홍종례 洪鍾禮	1905~미상	성호면 세교리	치안유지법 위반	
206	홍종철 洪鍾哲	1920~1989	수원면 인계리	수원예술호연구락부	애족장
207	홍준옥 洪琬玉	1888~1945	송산면 사강리	송산면 3·1운동 참가, 노구치 순사 처단	독립장
208	홍진유 洪眞裕	1882~미상	서신면 전곡리	치안유지법 위반	
209	홍태근 洪泰根	1860~1935	송산면 사강리	송산면 3·1운동 참가	대통령표창
210	홍효선 洪孝善	1879~1919	송산면 사강리	송산면 3·1운동 참가, 노구치 순사 처단	애국장
213	황창오 黃昌五	1886~미상	황해도 해주	삼정리 3·1운동 주도, 대동단가입하여 군자금 모집	독립장
214	황칠성 黃七成	1893~미상	송산면 고포리	송산면 3·1운동 참가, 노구치 순사 처단	

권투

수원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단		
직 위	성 명	소 속
공동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공동위원장	황인성	한신대학교 교수
부위원장	임남규	광복회 수원시지회
부위원장	김혜숙	매향중학교 교장
간사	송영완	수원시 정책기획과장
집행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공동위원장	황인성	한신대학교 교수
부위원장	임남규	광복회 수원시지회
부위원장	김혜숙	매향중학교 교장
학술편찬위원회 위원장	박환	수원대학교 교수
학술편찬위원회 간사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
학술편찬위원회	최경숙	수원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학술편찬위원회	이재익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장
학술편찬위원회	신의섭	아주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학술편찬위원회	이동근	수원시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
학술편찬위원회	김영규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강진갑	경기대학교 교수
문화예술위원회 간사	이석기	수원예총 수석부회장
문화예술위원회	윤범모	가천대학교 교수
문화예술위원회	안도현	아주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장
문화예술위원회	홍사준	수원시 문화교육국장
시민참여홍보위원회 위원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시민참여홍보위원회 간사	박두호	왓츠뉴스 대표
시민참여홍보위원회	배민한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시민참여홍보위원회	김봉식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시민참여홍보위원회	김순화	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지부장

학술편찬위원회(22)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박 환	수원대학교 교수
간사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
위원	김재기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문
위원	백종현	수원시의회 의원
위원	송명숙	수원시여성경영인협의회 회장
위원	신의섭	아주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위원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
위원	오영숙	새마을문고 수원시지부 회장
위원	우종남	수원흥사단 대표
위원	유문종	수원그린트러스트 이사장
위원	유준숙	수원시 새마을부녀회 회장
위원	이동근	수원시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
위원	이재익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장
위원	정진숙	수원평화나비 공동대표
위원	조영연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위원	최경숙	수원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위원	최동호	수원시 인문학자문위원회 위원장
위원	하태양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위원	한준택	경기르네상스포럼 상임이사
위원	황용원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위원	김영규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위원	박래현	수원시 박물관사업소장
문화예술위원회(22)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강진갑	경기대학교 교수
간사	이석기	수원예총 수석부회장
위원	구기태	수원시 방법기동순찰대 연합본부장

위원	권화옥	북한이탈주민 대표
위원	김인경	원불교 경기인천교구장
위원	김홍규	아주대학교 교수
위원	서 준	경기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장
위원	송병수	천주교 수원교구 수원대리구장
위원	송종완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위원	수산스님	수원시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위원	안도현	아주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장
위원	안명애	베트남교민회 회장
위원	윤범모	가천대학교 교수
위원	이광열	중국(귀환동포)교민회 회장
위원	이귀선	수원YWCA 사무총장
위원	이기호	한신대학교 교수
위원	이주영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수원지부 대표
위원	이화자	수원시여성자문위원회 회장
위원	조돈빈	수원시의회 의원
위원	홍성욱	삼일상업고등학교 교장
위원	홍사준	수원시 문화교육국장
위원	한상울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

시민참여홍보위원회(22)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간사	박두호	왓츠뉴스 대표
위원	강용한	장안구 통장협의회 회장
위원	김봉식	수원시새마을회 회장
위원	김순화	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지부 대표
위원	김장일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
위원	박진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
위원	신현옥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위원	심상호	수원시의회 의원
위원	유근종	수원시재향군인회 회장
위원	유용선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회장
위원	윤진석	수원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위원	이강현	수원시 보훈단체협의회 회장
위원	이성호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위원	이영길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 회장
위원	이춘식	새마을교통봉사대 수원지대장
위원	최극렬	수원시 상인연합회 회장
위원	최성국	새마을지도자 수원시협의회 회장
위원	최종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회장
위원	홍지호	수원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위원	이필근	수원시 일자리경제국장
위원	배민한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추진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고문	이영수	광복회 수원시지부장(독립운동 생존지사)
고문	오희옥	독립운동 생존지사
고문	안점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고문	유종하	광복회 수원시지회 고문
고문	김진우	수원시의회 의장
고문	고은	시인
고문	김기연	경기대학교 총장
고문	김동연	아주대학교 총장
고문	채수일	한신대학교 총장
고문	홍기현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고문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고문	우봉제	수원사랑장학재단 이사장
고문	김훈동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고문	염상덕	수원문화원장
고문	이태준	대한노인회 수원시 장안구지회장
고문	이종화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장
고문	이병학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장
고문	김형식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장
고문	안희선	수원종로교회 담임목사
고문	이재식	수원시의회 부의장
고문	유철수	수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고문	박순영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한규흠	한규흠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이혜련	이혜련	수원시의회 녹지교통위원장
김기정	김기정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수원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2.12 조례 제337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복70주년이 되는 2015년을 맞이하여 평화·인권·통일에 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수원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이란 평화·인권·통일을 주제로 수원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의 좌표로 삼을 수 있는 8·15기념행사, 국내외 학술대회, 문화·예술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능)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의 결정
2.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3. 광복7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의 종합·조정
4. 광복7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지원
5. 그 밖에 광복7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어느 한 성이 포함된 부위원장 2명을 두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념사업 업무담당 실·국장, 경제업무 담당 국장, 복지업무 담당 국장, 문화업무 담당 국장, 박물관 업무담당 사업소장, 푸른녹지 업무담당 사업소장
2. 위촉직 위원
 - 가.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 나. 학계 전문가
 - 다. 수원시 인권위원회 소속 위원

라. 나해석학회 소속 회원

마. 국민운동단체 및 보훈단체 소속 회원

바.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 임기는 2016년 2월 28일까지로 하되,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거나,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되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시장은 결원된 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공동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부위원장 또는 20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동위원장은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전과 관련된 관계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집행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업무담당 실·국장
2.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조사·연구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등)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출연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여론의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

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분과위원회·집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15.02.12 조례 제33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광복70주년 기념백서를 마무리하며

광복70주년을 맞은 2015년은 참으로 가슴이 벅찬 한해였다.

‘광복 70년’, 그 자체에 대한 감격이기도 하고, 지난 한해 수원시와 시민이 함께 이루어낸 일들에 대한 감격이기도 하였다.

수원시와 시민사회가 함께 한 70인의 광복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을 기획하는 것을 출발로, 100년 전의 3.1절 정신을 되새긴 ‘수원, 그날의 함성’, 1만 명이 넘는 수원시민이 함께 한 ‘7000인 시민대합창’, 수원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삶을 내던진 독립운동가들의 숨겨진 기록을 찾아낸 각종 학술대회, 광복의 정신을 기억하고자 수원시민이 참여한 시민공모사업들,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1년간의 대장정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수원시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과 더불어 수원시의 60여개의 사업에 광복의 정신을 담아 시민들의 역사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한다. 2015년에는 잊힐 뻔 했던 독립과 관련된 수원의 소중한 역사를 재발견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업에 수원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때론 스스로 기획하였다는 점은 이번 광복70주년 기념사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

광복70주년 기념사업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다. 교과서 속의 이야기로만 생각되었던 광복, 우리의 역사가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는 것

그리고 이 역사가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다는 것이었다. 어르신부터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광복70주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였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수원시와 함께 했던 기념사업을 통해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계기를 발견했고 수원시민의 숨겨진 잠재력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수원시 <광복70주년기념사업백서>는 비단 2015년 한해의 사업만을 정리하는 기록물이 아니다. 수원만의 지역의 역사와 미래 100년에 담아가야 할 정신을 담았다. 수원의 시간과 공간을 그렸고,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고자 했다. 광복을 위해, 우리 수원에서 생을 내던졌던 고귀한 분들의 삶의 기록은 우리 수원시와 수원시민의 정체성이며 이어가야 할 정신적 문화유산이다.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이 일회성의 사업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었듯이, <광복70주년기념사업백서>는 단순한 사업의 기록물이 아닌 수원역사의 연결고리로써 제작되었다.

이번 백서작업은 글과 사진을 통해 수원시와 수원시민의 감동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으며, 역사가 된 '2015년 수원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백서작업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수원시와 광복70주년을 빛내 주신 모든 시민께 감사드리며 수원의 미래의 희망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광복70주년기념사업백서

광복70년 끝까지 함께 가는 길

발행일 2016년 2월 1일

발행처 수원시

수원시 광복7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홈페이지 www.suwon.go.kr

제 작 (주) 더페이퍼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69

031-225-8199

사진제공 수원시청, 수원박물관, 권선구 평동주민센터,

강석우 기자(수원 민예총), 이정선 기자(뉴스시스)

캘리그래피 박민용

발간등록번호 71-3740000-000127-01

I S B N 979-11-957610-0-5

비매품

이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광복70년,
끝나지 않는
한강